



어린이교실 가르치기 1단계

루히 연수원



제 3 권

어린이교실 가르치기 1단계

루히 연수원

루히 시리즈

루히연수원이 발간한 연속 출판물은 전 세계 청소년과 성인이 봉사역량을 개발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려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돕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 3권 바하이 어린이교실 교사양성 과정, 제 5권 주니어유스 그룹 애니메이터 양성 과정에는 상위 단계의 분지 과정이 추가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교육 현장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루히연수원의 연속 출판물은 개정을 거듭하고 있으며, 목록의 책 또한 계속 추가될 것입니다.

- 제 1 권 **영성과 삶**
- 제 2 권 **봉사자로 일어나기**
- 제 3 권 **어린이교실 가르치기 1단계**
어린이교실 가르치기 2단계 (분지 과정)
어린이교실 가르치기 3단계 (분지 과정)
어린이교실 가르치기 4단계 (분지 과정)
- 제 4 권 **쌍생 현시자**
- 제 5 권 **주니어유스 잠재력 끌어내기**
최초의 충동 (분지 과정)
서클의 확장 (분지 과정)
- 제 6 권 **대업을 가르치기**
- 제 7 권 **봉사의 길 함께 걷기**
- 제 8 권 **바하올라의 성약**
- 제 9 권 **역사적 전망 얻기**
- 제 10 권 **활력 있는 공동체 구축하기**
- 제 11 권 **물질적 수단**
- 제 12 권 **가정과 공동체**
- 제 13 권 **사회행동에 참여하기**
- 제 14 권 **공공담론에 참여하기**

Copyright © 2013, 2024 by the Ruhi Foundation, Colombia
All rights reserved. Edition 2.2.1.PE.PV published in April 2024
Printed in Korea

Originally published in Spanish as *Enseñar clases para niños, primer grado*
Copyright © 1987, 1996, 2021 by the Ruhi Foundation, Colombia
ISBN 978-958-52941-7-2

Permission for a limited printing of this book in Korean has been granted by the Ruhi Institute.

Ruhi Institute
Cali, Colombia
Email: instituto@ruhi.org
Web site: www.ruhi.org

한국 바하이 출판재단
용산구 후암로 12
서울, 우편번호 04331
전화: +82-2-754-1947
nsakorea@bahai.or.kr

목 차

조교에게 드리는 말씀 / 1

바하이 교육의 몇 가지 원칙 / 7

1단계 어린이교실 수업내용 / 55

어린이를 위한 24과 수업내용 / 99

조교에게 드리는 말씀

본 교재는 자신의 지역과 마을에서 어린이 영성교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어린이 교실을 개설하는 뜻깊은 봉사에 동참하는 자원자들의 수가 증가하도록 그들의 역량 구축을 돕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총 두 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루히연수원이 제공하는 주요 연속과정 중 세 번째 과정이자, 연속 과정을 밟는 참여자들에게 특화된 봉사의 길을 제시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어린이교육이라는 특화된 봉사의 길에 발을 내딛기로 결심한 참여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속도로 연수원 연속과정이 제시하는 경로를 밟아 가면서, 향후 어린이교육의 분지 과정을 공부할 기회도 얻게 됩니다.

스터디그룹을 안내하는 조교는 프로그램의 이러한 비전을 유념하되, 참여자 중 일부의 사람들만이 어린이교육 분야에 헌신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과정은 당면 목표 외에도, 굳건하게 봉사의 길을 걷는 모든 참여자가 자신의 지역이나 마을에서 전개되는 어린이교육 프로그램의 개념과 사고에 친숙해지도록 돕는 폭넓은 목적을 띠니다. 이 교재는 어린이를 영적으로 양육해야 할 공동체의 의무, 어린이와 어울릴 때 성인이 구비해야 할 자질, 태도, 행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제 2권 2단원을 공부한 참여자라면 교육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교육에는 물질교육, 인간교육, 영성교육이 있다는 압돌바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과정은 참여자들이 이 중 마지막 유형의 교육, 곧 개개인의 영적 본성, 즉 상위 본성의 계발에 필요한 교육에 대해 이해를 심화할 기회입니다.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하이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린이 영성교육은 독단적 신념의 주입 - 때로 종교 교육과 연관되는 - 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점, 교육은 어디까지나 삶에 대한 사랑, 배움에 대한 열린 태도, 현실을 탐구하려는 부단한 열망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어린이교육에서 종교 수칙을 전적으로 제쳐 놓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동일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린이의 생각과 행동을 규제해야 할 신성한 진리와 영적 원칙에 대해 접근 자체를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각자의 기준과 세계관을 자유롭게 선택, 획득해 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은 정치, 경제, 문화 전 영역에서 온갖 힘들이 작용하여 저마다 사익을 도모하고자 얼마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특정

신념과 행동 패턴을 부추기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설령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영적 본성을 계발하는 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한 세대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할 좋은 이유는 없습니다. 인류가 신성한 교육자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 양산하는 것은 혼돈과 불의, 고통뿐입니다.

이 교재와 프로그램이 구상한 어린이교육 6년 과정의 핵심에는 바하이 신앙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계와 학년별 수업내용을 보면, 어떤 배경의 어린이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습니다. 1단계 교실은 5, 6세 어린이의 영적 자질 계발을 목적으로 그들의 성품 함양에 기여합니다. 2단계 교실은 이전 단계에서 다룬 성품의 내적 특성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습관과 행동 패턴을 육성합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는 소망의 내적 상태를 표현하는 행위로는 기도의 습관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보다 상위 단계 교실에서는 주로 얇은 문제를 다룹니다. 자신의 영적 진보를 위해 스스로 의식적 노력을 기울이는 모든 개인은 하느님에 대한 얇의 근원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위 단계 교실에서는 하느님의 쌍생 현시자 두 분의 생애와 더불어, 그분들 이전에 인류사에 출현하셨던 현시자들에 관한 얇의 주제를 다룹니다. 최상위 단계의 교실에서는 어린이들이 바하올라의 계시에 대한 얇을 키워 나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때 어린이들은 압돌바하의 설명과 삶의 모범으로부터 인도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향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바하올라의 가르침과 한 방향으로 정렬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압돌바하의 문헌과 말씀에 의지하는 습관을 배양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11, 12세가 된 청소년을 위해서는 주니어유스 영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바하이 어린이교실 교육의 연속선상에서 이번에는 애니메이터의 동반을 받아 일련의 책을 읽어 나가며 의식 세계를 한층 더 확장하게 됩니다. 열의가 있는 어린이교실 교사는 바하이가 아닌 부모들도 가까이 자녀를 어린이교실에 보낼 기회를 환영하고, 영성교육이 자녀들의 마음과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변함없이 기뻐한다는 점을 확신할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1단계 교실은 성품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 1단원 “바하이 교육의 몇 가지 원칙”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 전반에 심오한 함의를 갖는 근본 개념들을 바하이 신앙 성서에서 발췌해 검토합니다. 이 단원의 전반부는 이 주제에 할애되며, 남은 부분에서는 교실 운영 및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접근법을 다룹니다.

이 단원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개념은 인간의 잠재력입니다. 인간 존재를 “헤아릴 수 없이 진귀한 보석이 가득 찬 광산”에 비유하신 바하올라의 말씀에서 도출되는 심상을 중심으로 이를 탐구합니다. 참여자들은 이로부터 즉각 도출되는 두 가지 함의에

관해 성찰하게 됩니다. 정보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빈 용기로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양되고, 인간은 적절한 교육을 받을 때 비로소 내면에 잠재한 무수한 보석들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합니다.

인간이 지닌 보석들 가운데 “영적 자질”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이는 고귀하고 올바른 성품을 구축해 나갈 인간 내면의 영구적 토대를 말합니다. 칭찬할 만한 모든 특성을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로 “미덕”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습관과 태도, 기술과 능력을 포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자질이란 “미덕”의 고유한 범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단원에서 참여자들이 이해해야 할 필수 개념입니다. 제 6장과 7장에서는 그 의미를 더 성찰합니다. 여기서 조교는 참여자들이 학습 내용을 제1권 3단원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당시 참여자들은 인간 영혼의 역량인 영적 자질들이 현세의 삶에서 어떻게 계발되어야 하는지, 하느님께 다가가는 우리의 영원한 여정에서 이들 자질의 계발이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실어 주는지에 대해 숙고했습니다. 영적 자질을 계발하는 과정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앎은 필수 요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1단계 어린이교실이 예컨대 시간엄수와 진실성이라는 두 미덕을 동일 차원에서 다루는 일부 인성교육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어린이 교육자가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 성품 계발을 비단 행동교정의 관점에서만 다루는 경향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적 자질은 저마다 고유한 역동을 지닙니다. 어린이교실 수업의 핵심 요소인 기도, 암기, 이야기는 함께 그 역동이 발현되도록 돕습니다. 참여자들은 이미 제 1권과 2권 과정에서 이들 수업 요소에 대해 일정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제 8장은 당시 학습했던 내용을 어린이교육으로 확장합니다. 각 과는 어린이의 영적 자질을 함양함과 동시에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과 직접 접촉하게 하고, 최고의 이상적 인간상을 구현하는 압돌바하의 삶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도록 돕습니다.

이 단원에 등장하는 또 다른 개념은 하느님에 대한 경외로서, 제 12장에서 다루어집니다. 바하이 성서에 의하면 이는 인간 교육의 “제일 요소”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분에 대한 사랑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인간이 자신의 거룩한 입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 그분의 풍성한 사랑이 자신에게 도달하는 것을 방해할 어떤 행위도 스스로 삼가려는 열망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만약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면,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도록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두려움은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 즉 진노하시는 하느님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어린이의 마음에 스며야 할 이미지는 이것이 아닙니다. 교사 자신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 사이의 관계를 옳게 파악해야 합니다만, 그렇다고 수업에서

명시적으로 다룰 주제는 아님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사랑의 불꽃을 부채질할 수 있을지 학습해야 하며,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인류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양육과 보호를 결코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에 도달하도록 어린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기쁘신 뜻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저지하는 내면의 힘은 하느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은 영적 자질의 획득을 그 자체 보상으로 여기고, 온전치 못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가장 큰 형벌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행동 교정을 적절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동 교정은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성품의 함양에 도움을 주는 한 가지 요소입니다. 교사들은 어린이와의 교류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독려하고 부적절한 행동 패턴을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들을 찾아낼 것이며, 그 중 일부는 제 13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 다룰 또 다른 개념은 자유와 규율입니다. 분명, 가혹한 처벌은 어린이 교육에 사라져야 하지만, 어린이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무제한적 자유를 허용하는 것 역시 그들의 영적 발전에 해를 입힙니다.

이어서 이 단원은 교실 내 즐거운 학습 환경을 조성하면서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는 법을 다룹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없으리라는 점을 조교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참여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몇몇 예비 개념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봉사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각 장으로 돌아와서 실제 경험에 비추어 사고를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참여자들은 교실에서 어린이들의 활동 참여를 끌어낼 몇 가지 접근법을 검토합니다. 이미 강조한 기도, 인용구 암기, 이야기와 같은 핵심 요소 외에도 노래, 게임, 색칠 활동이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첫 번째 영적 자질로 수업에서 제시된 순수한 마음에 대해 검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26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의 성격을 다룹니다. 이 장에서는 제 2권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확장 적용합니다. 그간 동네나 마을에서 어린이교실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을 방문하는 친구들의 핵이 꾸준히 확장되어 참여자들 또한 방문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이 장은 그때의 경험을 보강해 줄 것입니다. 조교는 참여자들이 제 1단원에 등장하는 여러 개념으로 되돌아가, 부모와의 대화를 준비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 실습을 통해 참여자들은 그간 논의해 온 개념과 사고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강화하게 됩니다.

제 2단원 "어린이교실 1단계 수업 내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24과 수업내용, 교사들이 각 과 수업 내용을 원활하게 파악하도록 돕는 예비 장들이 그것입니다. 각 과는 한 개의 영적 자질의 계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비 장에서는 한 번에 4개 과를 묶어 참여자들이 수업의 핵심 요소를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제 1단원에서 순수함의 자질을 분석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업내용을 분석하게 됩니다.

바하이 성서에서 발췌된 인용구는 모든 과의 수업내용의 핵심 요소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인용구를 소개할 때 교사가 활용할 만한 간략한 설명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 영적 자질이 지닌 역동성에 관해 어린이들이 심상을 형성할 때 도움을 줄 단어와 이미지를 바하이 성서에서 뽑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서두에 하나의 영적 자질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어린이들이 그에 대해 통찰을 얻도록 돕는 역량은 교사 스스로 그 자질들에 대해 지속적인 성찰과 경험을 쌓아가면서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여자는 예비 장을 통해 자신의 삶과 교육 현장을 돌아보면서 여기서 이들 영적 자질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이 점을 돕기 위해 각 영적 자질에 관한 인용구가 소개됩니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은 영적 자질에 관해 어린이들에게 들려 줄 이야기를 검토합니다. 이야기는 주로 압돌바하의 생애에서 수집되었습니다. 각 이야기의 이면에는 인간 영혼이 발휘할 수 있는 영적 자질들이 어떤 무한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를 어린이들이 일별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일련의 사건들 너머 이야기가 탐구하려는 영적 현실을 어린이들이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교사들을 돕기 위한 몇 개 질문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특징적으로 압돌바하께서 어떤 지극히 완벽한 형태로 영적 자질을 드러내 보이셨는지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의 행동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즉각적이고 피상적인 상관성의 도출을 피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4개씩 묶인 각 과의 수업 내용을 분석한 후, 제 1단원의 접근법을 활용해 그룹 일원들과 함께 수업의 요소들을 실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실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재적 교사로서 교육 역량을 키우려는 이들의 노력을 돕는 조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4개 과를 한데 묶은 것은 유연성을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조교는 어린이교실 연수원 조정자와 협의해, 참여자들의 필요에 최선으로 부응하는 실습 방법이 무엇일지 고안합니다. 참여자들이 어린이교실에서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실습 요소를 포함, 단원 전체의 학습을 완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교실 개설을 희망하는 이들은 제 3권 이수 후 스스로 교실 운영을 시작하거나, 또는

다른 교사와 함께 교실을 공동 개설해 몇몇 활동에 도움을 제공하면서 신속하게 경험을 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4개 과의 묶음 한 두 개의 공부와 실습을 마친 후 교육 경험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 참여자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참여자들이 다시 모여, 자신의 성장 경험에 비춰 수업 묶음에 대한 추가적인 공부와 실습을 하도록 조교가 도울 수 있습니다. 예비 장에서 4개 과씩 수업내용을 묶은 것은 해당 수업에 등장하는 영적 특성들 간에 특별한 연결성이 있어서는 아님을 밝혀 둡니다.

교사는 수업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매 수업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책 속의 문장을 그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도문과 인용구를 암기하는 법을 학습하고, 인용구 소개를 준비하고 스토리텔링의 연습을 할 때, 훨씬 더 성공적인 어린이교실이 될 것입니다. 그 외 수업에 필요한 교구나 자원은 게임 소품, 색칠 종이, 색연필 뿐입니다. 제 2단원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색칠 용지는 복사해서 사용하거나, 별도의 종이에 그려도 무방합니다. 연수원 웹사이트에서 그림을 다운로드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1단계 어린이교실을 위한 노래 녹음본이 제공되어 있어 있습니다. 교사는 이를 활용해 수업 준비를 하고, 어린이들의 노래 배우기를 도울 수 있습니다.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 교실을 개설할 때 교사가 자신의 교수 노력을 기록해 보존하는 일이 권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쉽게 찾을 수 있고, 준비와 성찰의 패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상황이라면 1단계 어린이교실 24과의 내용은 한 회 수업에서 한 개 과를 마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 회 수업의 구성 요소를 두 번의 수업으로 분할하면, 활동이 불필요하게 연장됩니다. 결정적으로 학습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강도는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하나의 영적 자질에 초점을 맞추는 수업의 여러 활동 사이의 리듬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는 제 1단원 제 9장과 10장의 주제이기도 하며, 책 전반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단계 교실에서 소개된 모든 영적 자질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사가 최선을 다해야 함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되비추는 사랑을 말합니다. 어린이들은 교사가 조성하는 교육 환경, 즉 교사의 수업 준비, 시작기도, 그들에게 사용하는 언어, 그들을 격려하는 방식, 그들의 발전에 대한 칭찬을 통해 이 사랑을 체감할 것입니다.



바하이 교육의 몇 가지 원칙

목적

바하이 문헌에 등장하는 교육에 관한
원칙과 개념을 탐구하고,
어린이들의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수업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성찰한다.

제 1 장

루히연수원의 이 세 번째 책은 어린이 영성 교육을 위한 바하이 어린이교실을 가르치는 가장 공능이 큰 봉사 행위를 소개합니다. 이 책을 공부하고 실습한 후 일정한 시간과 노력을 이 봉사에 바치기로 결심한다면, 6년 교육 과정 중 1단계 수업에 들어온 한 그룹의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교실을 가르치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연수원 연속과정을 순차적으로 밟아 나갈 것입니다.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자신의 길에서 바칠 수 있는 여러 봉사 행위 중 하나입니다. 설사 이 특정 봉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과정의 공부는 여전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마을, 도시, 동네에서 진척되는 공동체구축 과정에 힘을 실으면서 여러분은 어린이들과 교류할 많은 기회를 접할 것이며, 그때 종종 이 공부에서 얻은 통찰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깊은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세계정의원의 아래 문구를 음미해 보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한 공동체가 소유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과 보장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미래 사회의 성격에 관한 씨앗을 지녔습니다. 공동체의 어른들이 어린이들에 대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데 실패했는가에 의해 상당 부분 그 모양이 결정됩니다. 어떤 공동체도 자신에게 맡겨진 소중한 어린이들을 소홀히 다루면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포용적 사랑, 그들을 대하는 예의 있는 방식, 그들에 대한 높은 관심, 그들과 교류할 때 행동 이면의 정신 - 이것들은 우리에게 필히 요구되는 태도의 핵을 이룹니다.”¹

이 책 제 2단원에 제시된 1단계 수업내용은 단순합니다. 각 과는 하나의 영적 자질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둔 몇 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하이 성서에서 발췌한 기도와 인용구의 암기,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와 설명 듣기, 그림 그리기와 색칠, 노래와 놀이가 제공됩니다. 이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 분야의 많은 지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한 정식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과정을 밟음으로써 매주 효과적으로 어린이교실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 수 있습니다. 향후 제3권의 분지 과정을 추가로 공부하며 경험을 쌓게 되면 교육에 관한 많은 근본적 사안에 대해 사고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초반에는 여기

제시된 교안을 면밀히 따르겠지만, 점차 스스로 정교하게 고안한 내용을 보태면서 교안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제 2 장

바하올라, 압돌바하의 아래 말씀을 성찰해 봅시다. 어린이교실의 교사로서 봉사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암기해 놓으면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그 중요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지도하면서, 선물을 내리시고 깊이 사랑받는 분, 하느님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일어난 교사에게 복이 있다.”²

“전능자 하느님께 한 개인이 바칠 수 있는 모든 봉사 가운데 가장 큰 봉사는 어린이를 교육하고 단련시키는 일입니다.”³

“성서에는 어린이 교육이 필수 의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주 하느님을 섬기는 그분의 시종입니다. 이들은 예배와 다름없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자신의 영적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으니, 숨 쉴 때마다 하느님을 찬미해야 마땅합니다.”⁴

1. 이 말씀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아래 문장의 빈칸을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들을 _____ 하면서, _____ 고, _____ 는 분,
하느님의 _____ 로 사람들을 _____ 하고자 일어난 _____ 에게
_____ .

나. 전능자 하느님께 한 개인이 바칠 수 있는 모든 _____ 가운데 _____ 는
어린이를 _____ 하고 _____ 는 일입니다.

다. 성서에는 어린이 교육이 _____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주 하느님을 섬기는 그분의 _____입니다. 이들은 _____와 _____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_____선 이되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자신의 _____을 교육하고 있으니, 숨 쉴 때마다 _____해야 마땅합니다.

2. 이제껏 우리가 공부한 것을 토대로 아래 진술이 참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_____ 학부모, 교사, 공동체 모두 어린이의 영적 교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 _____ 모든 공동체는 어린이의 영적 교육을 위한 교실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
- _____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은 그 자체 예배의 행위로 간주된다.
- _____ 어린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므로 공동체는 그들의 영적 교육을 위한 교실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 _____ 어린이 교사들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딸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

제 3 장

바하이 신앙의 성서에는 교육에 관한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그 일부를 탐구하게 됩니다. 바하올라의 다음의 말씀을 출발점으로 삼도록 합시다.

“인간을 이루 값을 매길 수 없는 진귀한 보석들로 가득 찬 광산으로 여기라. 오직 교육만이 그 광산의 보석들을 드러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인류가 유익을 얻게 할 수 있다.”⁵

아래 문장의 빈 칸을 채우면서 말씀의 심오한 의미에 대해 묵상해 보세요. 암기 전이라면, 이번 기회에 암기하기 바랍니다.

가. 인간 존재는 이루 _____을 매길 수 없는 보석들로 가득 찬 _____과 같다.

나. 오직 _____ 만이 그 보석들을 _____ 수 있으며, 그로부터 인류가 _____ 할 수 있다.

교육에 관한 바하올라 가르침의 함의는 대단히 방대합니다. 그 중 일부는 다음 몇 장에 소개됩니다. 여기서 우선 한 가지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약 스무 개의 빈 항아리가 주어졌고, 물을 한 스푼씩 떠서 항아리를 가득 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교육이 만약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보 조각을 조금씩 채워 주는 일이 교육이라면, 이는 상당히 지루한 작업이 아닐까요. 이제 그 대안으로, 숨겨진 보석들이 가득 매장되어 있는 광산을 상상해 보세요. 교육이 장차 빛을 낼 다양한 원석들을 채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면 그야말로 진정으로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요?

제 4 장

위 인용구를 더 생각해 봅시다. 바하올라께서 언급하신 보석에는 사랑, 진실성, 정의, 관대함, 굳건함, 성실함과 같은 자질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연의 신비를 발견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창조하고, 고귀하고 고상한 사고를 표현하는 인간 정신의 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칠 어린이들은 모두 이러한 자질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밖에 또 어떤 것들을 꿈꿀 수 있을까요? 이들 중 적절한 교육 없이 계발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이 질문을 성찰하면서 제 1권에 등장했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등잔에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심지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제 5장

우리 모두는 자신 안의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일생을 마칠 때까지 여러 단계의 교육을 거칩니다. 우리는 집, 학교, 직장, 지역 사회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에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일생에 걸쳐 받게 될 교육의 일환으로 바하이 어린이교실, 그 중에서도 특히 1단계 어린이교실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압둘 바하의 다음과 같은 권고가 답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성품을 닦는 사안을 최우선의 과제로 여겨야 합니다. 모든 부모는 오랜 동안 자녀에게 권고하고, 영원한 영예로 인도할 것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⁶

“도덕과 선행의 단련이 책읽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청결하고 쾌활하고 선한 성품에 행동이 올바른 아이는 설령 무지하다 해도 무례하고 씻지 않고 성품이 불량하면서 공부와 예술에 능한 아이보다 더 낫습니다. 행실이 바른 아이는 설령 무지한 점이 있어도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반면, 성품과 행동이 불량한 아이는 설령 많이 배웠다 해도 부도덕하고 타인에게 해를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많은 배움과 선한 성품을 모두 지닌다면 그 결과는 빛 중의 빛입니다.”⁷

“다가올 미래에는 도덕이 극도로 퇴화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린이들을 바하이 방식으로 양육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모두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온갖 슬픔과 고초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영적 행동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⁸

위와 같은 구절들에 힘입어 루히연수원은 어린이 영성교육을 위한 1단계 프로그램에서 성품 함양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 목표에 대해 탐구하기 전에 먼저 “훌륭한 성품”에 관해 자신이 이해하는 바를 나누고, 도출된 결론의 일부를 아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6 장

좋은 성품에 관해 생각할 때 바로 떠오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덕’입니다. 학생들의 미덕 계발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대개 광범위한 특성들을 가리켜 “미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중에는 시간엄수와 같은 습관도 포함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대한 공감도 있습니다. 명료한 언어 사용 능력과 같이 특정 기술이나 능력을 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모든 미덕과 구별되는 특별한 범주의 미덕들이 있으니 예를 들어 진실성, 관대함, 겸손, 사랑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영적 자질”이라 부릅니다. 1단계 어린이교실 프로그램은 인간 영혼이 지닌 이 토대 속성들을 계발하는데 집중합니다. 물론 이는 어린이들과의 교류에서 그 외의 미덕들은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르치게 될 수업에서는 인간 영혼이 하느님께 다가가는 영원한 여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질들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이 구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경우를 떠올려 봅시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잘 지키지만, 비열하고 잔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열함과 잔인함은 진실성, 성실함, 사랑과 정의, 관대함과 용서와 같은 천상의 자질들을 획득한 사람의 특성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권 3단원 공부에서 여러분은 인간 영혼이 현세의 삶 속에서 획득해야 할 자질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단원으로 되돌아가서, 관련 부분을 검토해 볼 것을 권합니다. 그런 후 유년기부터 이러한 영적 자질을 계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맥락에서 그 단원의 공부를 새롭게 성찰해 보기 바랍니다. 아래 빈 칸에 생각을 적어보세요.

제 7 장

어린이들이 칭찬할 만한 성품을 드러내 보이도록 도울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미덕은 반드시 실행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로서 여러분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어린이의 선한 행동을 강화하고자 할 것입니다. 소그룹의 어린이들의 발달을 추적하면서, 여러분은 칭찬, 격려, 권고, 설명, 보상 이 각각의 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편에서 보이는 온화한 불만의 표시가 어린이로 하여금 부적절한 행동을 단념하도록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교실 안에서 학생들과 깊은 사랑과 애정의 유대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효과를 나타냅니다. 학생들과 어떻게 어울릴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후의 장에서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어린이들과 어울릴 때 여러분은 분명 그들에게 나눔의 태도와 그에 부합하는 습관을 길러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질문을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과 논의해 보세요.

이제 다음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은 관대하시고, 모두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눔이라는 행동의 한 측면은 바로 이 신성의 속성을 되비추려는 영적 자질로서 관대함을 드러내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연 행위자가 스스로 궁핍한 상황 하에서도 여전히 그 행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행동 교정은 물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인간 영혼이 지닌 영적 자질들이 하느님에 대한 앎과 사랑에 의해 함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압둘바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그대가 어린이에 대해 쓴 글을 읽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처음부터 신성한 교육을 받고, 자신의 하느님을 기억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받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젖과 한데 섞여 그들 존재에 깊이 스며야 합니다.”⁹

“어린이는 갓난아이부터 하느님의 사랑의 가슴에서 젖을 먹고, 그분의 앎의 품 안에서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빛을 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혜와 배움으로 충만하고, 천사군의 성품을 띠게 만들어야 합니다.”¹⁰

“어린이교육에 관한 그대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그대는 어린이들을 하느님

사랑의 품 안에서 양육하고, 그들이 영^靈의 사안을 추구하도록 격려하여 하느님께로 자신의 얼굴을 향하고, 선한 행실의 원칙에 부합되게 행동하고,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성품을 지닌 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인류의 모든 예절과 칭찬할 만한 자질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¹¹

이 중 한 개 이상의 인용구를 암기하기 바랍니다.

제 8 장

1단계 교실은 5, 6세 연령대를 위한 수업으로, 지금까지 탐구한 개념들을 중심에 놓고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 2단원으로 가서, 첫 두세 개 과의 수업내용을 읽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후 24과 수업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은 앞선 장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아래 제시된 대로 각 과를 구성하는 수업의 요소들을 고찰하겠습니다.

매 회 수업은 여러분과 몇 명 어린이들이 낭송하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어린이들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기도문을 암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품에서 양육되어야” 할 어린이의 성장에 기도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압둘바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풀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 위에 단비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며, 하느님의 사랑의 미풍이 그들 위로 불어 와서 그들이 기쁨으로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수업의 이 요소가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성품을 키우는 전반적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몇 개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제 1권에도 인용되었던 아래의 구절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경지, 가장 달콤한 상태는 다름 아닌 하느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영성을 촉진하고, 마음을 깨우며, 천상의 느낌을 선사한다. 거룩한 왕국에 새롭게 매혹되게 하고, 높은 차원의 지성에 대한 감수성을 불러일으킨다.”¹²

“나의 종이며,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말씀을 당신께 가까이 이끌린 이들이 낭송한

것처럼 그대가 낭송하여, 그 달콤한 음률로 그대 자신의 영혼에 불이 켜지게 하고, 만인의 마음을 매혹토록 하라.”¹³

“영혼에는 감화력이 있으며, 기도에는 영적 효력이 있습니다.”¹⁴

“시종은 하느님께 빌며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원조를 간청하고 간구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속의 지위이니, 주께서는 당신의 최상의 지혜에 따라 무엇이든 당신이 뜻하신 대로 정하십니다.”¹⁵

각 과의 주제는 어린이들이 암기할 인용구 한 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어린이들이 인용구의 기본 의미를 이해하고, 영적 자질 계발에 필수적인 이해를 얻도록 여러분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련해 한 가지 질문을 다뤄 봅시다. 하느님의 말씀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바람직한 자질들을 의미 있게 함양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을 성찰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사고를 형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권 1단원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지닌 힘에 관한 구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래의 구절을 암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구절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 가슴 속에 뿌리가 심어진 묘목과 같다. 그대들에게 지워진 의무는 성결하고 거룩한 말씀과 지혜의 생명수로 이 묘목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니, 그것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가지들이 하늘과 그 너머까지 높이 뻗어나가게 하라.”¹⁶

수업의 또 다른 요소는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압돌바하의 생애에 관한 것입니다. 압돌바하께서는 당신 아버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신 완벽한 모범으로서 여러분이 피교육자에게 촉진하려는 자질들을 삶 속에 구현하셨습니다. 제2권 3단원 공부를 통해 여러분은 압돌바하의 인격이 인류에게 주어진 대단히 특별한 선물임을 알 것입니다. 그분의 삶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의 성품 계발에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또, 그분이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반복해서 기억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압돌바하와의 유대를 강화하면,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노력이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할 것입니다. 압돌바하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기쁨과 존경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어린이들의 성품 계발에 어떻게 기여할까요?

노래 부르기는 어린이교실의 또 다른 요소입니다. 노래는 어린이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활동입니다.

“음악예술은 신성하며,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혼과 영의 음식입니다. 음악의 힘과 매력은 인간의 영혼을 향상시킵니다. 음악은 어린이의 가슴에 놀라운 전율을 일으키며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는 음률이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음악의 매개를 통해 어린이 내면에 잠재된 재능은 표현력을 얻습니다.”¹⁷

유년기부터 아름다운 노래를 배우는 것이 어린이의 삶에 어떤 중요한 측면이 되는지 그룹 내에서 논의해 보기 바랍니다.

게임과 색칠은 수업의 또 다른 두 가지 요소입니다. 게임은 본질적으로 협동과 바람직한 태도 및 습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각 과에 제공되는 색칠 용지의 그림은 수업내용의 초점이 되는 영적 자질에 관련됩니다. 색칠활동 역시 이 단계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이에게 필요한 중요한 기술과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 두 가지 활동은 어린이 영성 교육을 위한 수업의 특징이 되어야 할 즐거움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적 자질을 계발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의 분위기가 어떻게 필수적인지에 관해 몇 마디 나누기 바랍니다.

제 9 장

지금까지 여러분은 1단계 수업의 목적에 대해 일정한 통찰을 얻으셨고, 수업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성품 함양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린이와 여러분이 맺는 관계의 성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을 되비추는 사랑으로,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를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교사는 이 사랑을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들을 향한 순수하고 편애 없는 사랑을 통해 여러분은 전능자의 손길이 모든 어린이의 내면에 맡겨 놓으신, 이루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진귀한 보석들을 찾아내는 일을 보다 수월하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학생을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로 볼 것입니다. 바하올라의 말씀이 그 진리를 증언합니다.

“아득히 오랜 내 존재와 예부터 영원한 내 본질의 베일에 가린 채 나는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알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하여 네 위에 나의 상을 새기고 너에게 나의 아름다움을 계시하였노라.”¹⁸

“권능의 손으로 내 너를 만들고 힘의 손가락으로 내 너를 창조하여 네 안에 내 빛의 본질을 두었노라.”¹⁹

“너는 나의 등이며, 네 안에 내 빛이 있노라. 거기서 너는 네 광휘를 얻고 나 외에 달리 아무도 구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부유하게 창조하여 내 은총을 네게 아낌없이 뿌렸기 때문이다.”²⁰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필연적으로 시험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들에게서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적 특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어떤 아이는 결코 잘못을 고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바하이 어린이교실의 교사는 모든 어린이가 하느님께서 인류 가운데 보내신 현시자들을 통해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어린이에게는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는 모두 고귀하게 창조되었으며, 여러분이 도움으로써 그 고귀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부님께서 어린이들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셨는지 기억해 보면, 하느님의 창조물인 그들의 영적 본질을 한층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 몇 구절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고, 여러분이 가르칠 소중한 존재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
- 이 총명하고 빛나는 아이들
- 거룩한 왕국의 아름다운 아이들
- 주님의 인도의 개울가에 돌아난 묘목들
- 압하 천국의 어린 초목들
- 주님의 과수원에 피어난 초목들
- 하느님의 사랑의 정원에 피어난 여린 묘목들
- 하느님의 압의 초원에 새롭게 돌아난 묘목들
- 주님의 성스러운 봄철에 꽃망울을 터뜨린 묘목들
- 주님의 정원에 피어 있는 장미들
- 주님의 인도의 정원에 피어 있는 장미들
- 주님의 초원에서 자라나는 꽃들
- 생명의 나무의 작은 가지들
- 주님의 압의 정원에서 자라나는 어린 가지들
- 주님의 은혜의 과수원에서 싹튼 가지들
- 구원의 초원에서 지지귀는 새들
- 거룩한 완전성의 손가락이 불붙이신 촛불들
- 주님이 위력의 손가락으로 빛으신 작품들
- 주님의 위대함의 경이로운 증거들
- 압돌바하게 사랑 받는 이들

제 10 장

여러분이 학생들과 맺는 관계는 1단계 수업에 소개될 모든 영적 자질들로 특징 지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비단 수업 중에 어린이들과 어울리는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이 자질들을 더 잘 나타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바하올라께서 권고하십니다.

“사람들이여, 다른 이들에게는 훌륭한 권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스스로는 그것을 따르길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²¹

교사가 수업에서 소개할 영적 자질들의 중요성과 함의에 대해 점진적으로 이해를 증진하고, 자신이 돌보는 어린 묘목을 단련, 양육하는 노력을 강화할 인식을 얻는 것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 수업은 순수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품 계발에 관한 수업이 순수한 마음에 대한 탐구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적절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 그 중 오직 “인간의 마음만은 예외”로 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인간의 마음을 당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임할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바하올라께서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마음의 거울을 깨끗이 닦으면, 그 거울은 인간 영혼을 장식할 모든 속성을 되비출 수 있게 됩니다.

교사가 이 단계 교실에서 소개될 영적 자질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이 책 제 2단원에는 관련 인용구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먼저, 순수함에 관한 아래의 인용구를 읽기 바랍니다.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인간의 삶에서 이 자질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논의해 보세요. 특히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노력에 이 자질은 어떤 중요성을 띠는지 얘기해 주세요. 간략히 생각을 적은 후, 이 인용구 중 한 개 이상을 암기하면 좋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거울과 같다. 사랑과 하느님 외의 일체를 끊임의 광택제로 그 거울을 닦아 진리의 태양이 그 위를 비추고, 그로부터 영원의 아침이 동터 오르게 하라.”²²

“존재의 아들아! 너의 가슴은 나의 집이니 내가 내려오도록 이를 성화하여라. 너의 영은 내 계시의 자리이니 내가 드러나도록 정결히 하여라.”²³

“인간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성화될수록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실재의 태양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²⁴

“인류의 삶의 방식에 있어 첫째 요건은 순수함이요, 그 다음은 새로움, 정결, 그리고 정신의 독립성이다. 먼저 강바닥이 깨끗이 정화되어야 맑은 강물이 그리로 흘러들 수 있다.”²⁵

제 11 장

이제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교사로서 우리는 어린이가 하느님께서 당신의 현시자 바하올라를 통해 계시하신 가르침에 부합하게 행동하고, 인간 영혼의 장신구라 일컬으신 자질들을 계발해 나가도록 어떻게 동기부여하고 강화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구하면서, 바하올라의 다음 말씀을 성찰해 보세요.

“내 권능의 거룩한 「입」이 내 전능한 영광의 하늘에서 피조물들에게 이 말씀을 이르노라. “나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으로 내 명을 지켜라.” 이 말씀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향기를 머금은 가장 사랑하는 임의 신성한 가향을 들이마신 연인은 행복하다.”²⁶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이 그대들의 빛나는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라. 신성한 인도의 기름을 붓고, 지조의 보호막 안에서 지키라. 신뢰와 하느님 외의 모든 것에 대한 초연의 구체 속에 그것을 방호하라. 그리하여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의 사악한 속삭임이 그 빛을 꺼뜨리지 못하게 하라.”²⁷

“존재의 아들이! 나의 사랑은 나의 요새이니, 그 곳으로 들어오는 이는 안전하고 이를 외면하는 이는 반드시 길을 잃고 멸망하리라.”²⁸

1. 위의 인용구에서 적절한 단어를 찾아 아래 문장을 완성하세요.

가. 우리가 하느님의 명을 지키는 동기는 그분의 _____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나.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_____이 우리의 _____가슴 속에서 _____타올라야 한다.

다.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_____의 불길에 신성한 _____의 _____을 부여주어야 한다.

라. 또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_____의 _____안에서 지켜내야 한다.

마.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_____의 불길을 _____와 _____의 구체 속에 그것을 _____해야 한다.

바. 우리는 하느님의 _____에 대한 사랑에서 그분의 명을 지켜야 한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_____은 우리의 _____가슴 속에서 _____타올라야 한다. 우리는 이것에 _____인도의 기름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의 _____의 보호막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_____와 하느님 외에 모든 것에 대한 _____의 구체 속에 방호해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이 더욱 커지도록 기름을 붓고, 그것을 보호하고 방호하여,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의 사악한 속삭임이 그 _____을 꺼뜨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누구든 _____의 요새에 들어선 이는 안전하고 _____.

제 12 장

여러분은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의 빛나는 마음속에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을 부채질하고, 하느님의 축복과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은 어떤 유형의 두려움을 수반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행동이 그분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면 어떨까요?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 존재의 근원입니다. 단 한 순간이라도 그 사랑이 단절된다면 우리의 삶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느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스스로 그분의 사랑이 자신에게 도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낮은 자아의 충동, 시기심, 탐욕, 헛된 상상, 타락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러기에 어린이들의 마음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씨앗을 뿌리려 노력할 때,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둘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압둘바하께서 권고하십니다.

“거룩한 권고로 이 아이들을 단련하십시오. 어린 시절 그들의 마음속에 하느님 사랑을 심어, 그들이 삶에서 하느님께 경외를 드러내고 하느님 은혜에 확신을 갖게 하십시오. 인간의 불완전성을 탈피하여 인간 마음에 잠재된 신성한 완전성을 획득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²⁹

다만,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어린이들과 직접 이야기 나눌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유일한 이미지는 사랑의 하느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은총과 선물을 완전히 확신하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교사가 그들의 내면에 하느님의 사랑을 키우려고 노력할 때 어떤 말과 행동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어떤 말과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개념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때로 어린이들에게 상기시켜 줄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친절한 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입니다. 반면 불친절한 말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아래 인용구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13 장

이전 장의 논의로 알 수 있는 것은 영성 교육은 아름다움에 끌리는 힘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자질의 계발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어린이들의 마음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향하게 됩니다. 선한 성품의 아름다움, 신성한 말씀이 내재한 아름다움, 모범적 행위의 아름다움, 고귀한 생각의 아름다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영광되신 분의 아름다움에 이끌림입니다. 하느님의 법에 순종함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사랑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영적 자질의 획득이 그 자체로 가장 큰 보상이고, 온전치 못한 성품을 갖는 것이 그 자체 가장 큰 형벌임을 깨닫게 됩니다. 압돌바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릇된 행동의 근본 원인은 무지에 있으니, 우리는 인식과 앎의 도구를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선한 성품은 가르쳐야 합니다. 거룩한 빛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만인이 인류의 학교에서 영^靈이 지닌 천상의 특성을 획득하게 하고, 사악하고 불건전한 성품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혹독한 지옥, 불의 심연은 없으며, 비난받아 마땅한 자질을 보이는 것보다 더 심한 어둠의 구렁텅이나 고역스러운 고통은 없다는 점을 한 치의 의심 없이 만인이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³³

어린이들이 천상의 자질을 되비추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올바른 행실을 하려는 노력,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는 노력을 격려해야 합니다. 이때 가혹한 처벌이나 전적인 방임은 똑같이 피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계정의원의 인도가 있습니다. “사랑은 규율을 필요로 하고, 어린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그들이 고난에 익숙해지도록 지도할 수 있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어린이들이 바하이 기준에 부합되게 살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살피고, 끈질기게 인도해야 합니다.” 압돌바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올바른 행동을 보거든 그를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고 기운을 북돋아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이 드러나면 아이에게 권고하고 벌을 주되, 이성^{理性}에 근거한 수단을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약간의 말로 징계하십시오. 아이를 때리거나 비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구타하거나 언어적으로 학대하면, 아이의 성격은 완전히 변질됩니다.”³⁴

압돌바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 교사는 어린이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잘했을 때 그들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각

어린이의 진행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해야 하며, 몇몇 어린이를 동일하게 늘 칭찬하고 다른 아이들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교사로부터 애정어린 관심을 받는 데 익숙하다면, 무질서한 행동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교사의 단순한 몸짓이 미묘하지만 효과적인 처벌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다 단호하게 말로 표현해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수업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분노나 조바심의 흔적 없이 단호하고 정중한 어조로 말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종종 교실 밖에서 상담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교사가 위의 권고를 따랐음에도 어린이가 기대에 부응하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가볍고 적절한 제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분간 활동이나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의할 점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사는 “네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5분간 기다려야만 다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등 제재 이유를 학생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그릇된 행동이 발생한 직후 제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는 처벌과 자신의 행동의 연관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제 위의 개념을 그룹의 일원들과 함께 논의해 보세요. 어린이의 좋은 행실을 격려하고, 개인적으로나 그룹 내에서 어린이의 발전을 칭찬하는 데 쓸 수 있는 적절한 말을 문장으로 함께 고안해 보겠습니까? 필요할 때 그릇된 행동을 억제할 때는 어떤 말이 적절합니까?

제 14 장

어린이들이 칭찬할 만한 자질을 계발하도록 도우려면 교실 내에 규율과 질서가 돋보이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둘바하께서 말씀하십니다.

“... 어린이들의 학교에는 최상의 규율과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도는 철저해야 하며, 성품의 교정과 순화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유년 시절 어린이 내면의 실체에 신성의 토대가 자리 잡고, 성스러움의 구조가 확립되게 해야 합니다.”³⁵

매주 열리는 어린이교실에 관해 그분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조직적 활동을 중단 없이 지속하고 큰 중요성을 부여하여, 날마다 이 활동이 성령의 숨결로 활력을 얻고 성장해 가게 하십시오. 활동이 잘 조직되어 있다면 큰 결실을 얻을 것임을 확신하십시오.”³⁶

가르침의 기술은 상당 부분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즐겁고도 규율 있는 학습 환경에 기여하도록 지도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험을 통해 얻어야 할 통찰이 많지만, 여러분이 처음부터 준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기본 사고에 관해 논의하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수업 시간에 대한 아래 설명을 읽어보세요.

어린이들이 도착해서 스스로 자리를 정리하고 조용히 앉아 있도록 몇 분간 시간을 줍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자리를 잡으면 차분한 분위기를 활용하여 기도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활동은 노래 부르기입니다. 그 후 수업의 주제를 제시하고 어린이들이 인용구를 암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 다음, 어린이들이 기대감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후에 어린이들은 게임을 합니다. 게임이 끝난 후에는 색칠 용지와 색연필, 연필을 나누어 주고 주의를 집중해서 그림을 색칠하도록 안내합니다. 수업을 마칠 때 어린이들이 조용히 앉아 마침 기도에 준비되도록 합니다. 교사와 몇몇 어린이가 마침 기도를 낭송합니다.

활동의 이러한 순서에는 논리가 있나요? 활동에 이런 방식으로 순서가 정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15 장

위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아이들은 조용히 앉아 있으려고 수업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교사가 가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자연적인 활력을 십분 활용하고, 그것이 학습에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 활동적이고 즉흥성이 발휘되는 시간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만사에 조직은 기본입니다. 수업이 잘 조직되면, 어린이들은 집중과 학습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 봅시다.

1. 각 수업 시간은 명료함과 일관성으로 시작하고, 질서 있게 끝나야 합니다.
2. 수업의 루틴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린이들은 어떤 활동이 뒤따르는지, 자신에게 기대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점차 익숙해집니다.

3. 각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어린이의 열정과 에너지에 따라 유연성을 띠어야 합니다.

이전 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이들이 매 수업에서 수행할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기도문의 낭송과 암기
- 나. 노래 부르기
- 다. 바하이 성서에서 발췌한 인용구를 배우고, 암기하기
- 라. 이야기 듣기
- 마. 게임
- 바. 색칠
- 사. 마침 기도

물론 이러한 활동들 각각에 필요한 에너지 수준과 움직임 정도가 다릅니다. 일부는 매우 활동적이고, 일부는 보다 차분할 것입니다.

일곱 가지 활동 중 움직임이 가장 많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보다 차분한 활동은 무엇인가요?

질서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중

바람직한 수업 분위기에 도움이 되는 것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 따라 “도”나 “방”으로 표시하세요.

- _____ 수업이 진행되는 공간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기
- _____ 상황에 관계없이 침착함과 인내심을 유지하기
- _____ 아이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인내심을 잃기
- _____ 각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기
- _____ 아이들이 기다리는 동안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여기저기서 찾기
- _____ 각 활동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 _____ 과제를 일찍 끝내는 어린이가 활동에 계속 참여하도록 미리 다른 활동을 준비해 두기
- _____ 아이들이 질서 있게 하나의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도록 돕기
- _____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책의 문장을 그대로 읽기
- _____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수월하게 듣도록 이야기의 내용을 잘 익히기

제 16 장

수업 시간에 규율과 질서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행동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첫 몇 주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면 일 년 내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사는 몇 가지 행동 기준을 선별해 서너 개 이하의 개수로, 단순한 언어로 어린이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똑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와 같이 지극히 일반적 기준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차례를 지켜서 말합니다”와 같은 기준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래 명시된 기준에 대해 그룹 구성원들과 토론하고, 목록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해 보세요.

- 가. 게임을 할 때 우리는 서로를 돕습니다.
- 나. 우리는 화합하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 다. 우리는 새 친구를 환영합니다.

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귀 기울여 잘 듣습니다.

마.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하게 말합니다.

바. 우리는 자신이 말할 순서를 차례로 기다립니다.

사. 우리는 색연필을 친구들과 나눠 씁니다.

아. 우리는 숙제를 끝마칩니다.

차. _____

카. _____

타. _____

파. _____

간단한 문장으로 구성된 행동 기준을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문장을 정기적으로 낭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린이가 기준을 기꺼이 내면화할 수 있으며, 그것을 엄격히 부과된 규칙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일련의 기대 사항에 익숙해지면, 교사는 한 번에 많은 것을 추가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추가적인 기대 사항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제를 잘 다루게 해 줄 몇 개 간단한 문장을 어린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사는 굳건하고, 일관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친절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제 17 장

제 8장에서 우리는 1단계 교실에서 수업 내용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중요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들 각 요소가 훌륭한 성품 함양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논의했습니다. 이 장과 이어지는 7개 장에서는 활동에 어린이를 참여시킬 때 유의할 접근법에 관해 몇 가지 고려해 볼 것입니다. 먼저, 암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서에서 발췌한 기도문과 인용구의 암기는 수업의 핵심 요소입니다. 매 수업 시간 여러분은 학생들이 기도문을 암송하고 새로운 인용구를 암기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활동에 어린이들을 어떻게 참여시킬지 논의하기에 앞서, 어린이들이 성스러운 말씀을 암기하도록 도울 때 기억해해야 할 몇 가지 오해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과 정보를 앵무새처럼 읊어서는 안 됩니다”와 같은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암기 학습에 대한 비판은 널리 퍼져 있으며, 이런 사고는 확산세에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수학 방정식이나 물리학 법칙, 문학의 산문을 외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오한 의미를 담은 문장을 암기하는 것과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과연 서로 배치되는 것일까요. 인간의 기억은 이해, 사고, 상상력처럼 인간 정신이 지닌 놀라운 힘의 하나입니다. 이 능력들은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그러한 하느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지능과 이해력 향상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지는 이루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그들은 삶의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이 암기했었던 구절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을 것이며, 평생에 걸쳐 하느님의 말씀이 지닌 창조, 재생, 변형의 힘을 효과적으로 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것은 어린이의 정신과 마음에 영적 지식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암기 행위로부터 자라날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리라는 것을 교사가 확신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논의해 보세요.

제 18 장

위에서 논의했던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제 1과의 인용구를 하나의 사례로 들어 학생들이 바하이 성서의 구절을 암기하도록 어떻게 도울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은 어린이들이 각 수업에서 초점을 맞추는 영적 자질의 중요성에 대해 기초적 단계의 통찰을 얻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활용할 만한 간략한 설명문을 참조하세요. 다음으로, 인용구에 등장하는 어려운 단어를 어린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제시하여, 그들이 인용구의 의미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얻도록 합니다. 아래는 순수함의 자질을 다루는 제 1과의 접근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누군가를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거울에 먼지가 앉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면, 그 마음은 하느님의 빛과 그분의 속성들, 곧 친절, 사랑, 너그러움 등을 되비추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간수할 때 도움이 되는, 바하올라의 다음 인용구를 암기해 봅시다.

“영의 아들아! 이것이 나의 첫 번째 권고이니, 순수하고 친절하며 빛나는 마음을 지니어라...”³⁶

권고

1. 제라르와 메리는 색칠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제라르는 노란 색연필이 필요한데 메리는 주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메리에게 색연필을 친구와 나눠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은 메리에게 좋은 권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2. 페트리샤는 용돈으로 사탕을 살 지, 동화책을 살 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그에게 동화책을 사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페트리샤는 부모님께 좋은 권고를 받았습시다.

지나다

1. 티나는 잠들기 전에 기도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티나는 작은 기도책 한 권을

갖고 있습니다. 티나는 작은 기도책 한 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안나는 언제나 정직하고 친절합니다. 안나는 훌륭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순수한 마음

1. 캐시는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애고트에게 불친절한 말을 했습니다. 애고트는 슬펐지만 곧 마음에서 캐시를 용서했습니다. 애고트는 순수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2. 조르주는 과자를 친구들과 늘 나눠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과자를 나눠 먹지 않는 구스타보에게도 나눠 줍니다. 조르주의 마음은 순수합니다.

친절한 마음

1. 밍링의 부모님이 집으로 친구를 초대하시면 밍링은 그분들께 음식을 대접합니다. 밍링은 친절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2. 로버트슨씨는 연세가 많습니다. 지미는 로버트슨씨가 추수한 과일을 가게 까지 운반해 드립니다. 지미는 친절합니다.

빛나는 마음

1. 내 마음이 슬퍼지면, 어머니는 늘 내 기분을 북돋아 주시고 즐겁게 해 주십니다. 어머니는 빛나는 마음을 지녔습니다.
2. 오부야는 아파서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오부야는 기도하고, 슬퍼하지 않으며,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해 줍니다. 오부야는 빛나는 마음을 지녔습니다.

교사는 책에 소개된 설명문을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암기할 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어나 문구에 추가 설명이 필요할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에 일정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이들이 기도문의 맥락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점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제 1과에서 배우는 기도에서 그들은 “순수한 마음”과 “진주”가 모두 귀중한 것임을 쉽게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을

내려 주셨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내려 주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장을 고안해 보시겠습니까?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저에게 진주처럼 순수한 마음을 내려 주소서.”³⁷

제 19 장

이제 학생들의 기도문과 인용구 암기를 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주어진 구절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한 번에 하나씩 학습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암기한 후, 여기에 두 번째 부분을 추가하며, 전체 문장을 암기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개인별로, 혹은 그룹으로 어린이들이 교사를 따라서 문장을 반복해 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 1과의 인용구를 가르칠 때 “영의 아들이”라는 문구로 시작할 때, 이 구절을 반복합니다. 그런 후 이어지는 문구인 “이것이 나의 첫 번째 권고이니”와 결합합니다. 두 문구를 함께 반복해 말해 보도록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수하고 친절하며 빛나는 마음을 지니어라”를 덧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반복하면 몇몇 아이들은 인용구를 충분히 암기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하여, 아이들이 주의를 집중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역량이 자라남에 따라, 더 긴 구절과 인용구 전체를 한 번에 외울 수 있게 됩니다.

수업의 이 부분에서 교사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것은 현장의

경험을 통해 대처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만, 준비의 일환으로 미리 생각해 보면 좋을 만한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룹의 일원들과 함께 다음 질문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 학급에 어린이 수가 많을 때, 아이들의 인용구 암기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암기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한 명 이상의 어린이가 암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어린이가 수업 중에 인용구를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확실히 성취감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제 20 장

어린이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인용구를 암기하기 전에 진행되는 이 활동은 가장 즐거운 활동 중 하나입니다. 성공의 열쇠는 연습입니다. 여러분은 이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리듬과 멜로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노래를 부르기 바랍니다. 녹음된 노래를 들으면 보다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잘 익힐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기 바랍니다. 노래 가사 외우기는 인용구 외우기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가사에 멜로디를 붙여 반복합니다.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어떤 노래 부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교사가 한 소절을 부르고, 합창 부분에서 학생들이 함께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제 21 장

다음으로 살펴볼 활동은 이야기 듣기입니다. 1단계 어린이교실에서 소개되는 많은 이야기는 압돌바하의 생애에서 가져 온 것입니다. 이들 이야기에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사는 어린이들이 스스로 획득하고자 노력하는 영적 자질들이 그분의 전 생애에 걸쳐 그분의 완벽한 모범 속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교사가 보여주는 경외심은 그들의 부드러운 마음에 천상의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영적인 감수성을 일깨워 줍니다.

어린이들에게 들려줄 압돌바하의 이야기는 짧지만, 깊은 영적 통찰을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이야기 속에 묘사된 사건들의 나열 차원을 넘어, 어린이들로 하여금 영적 현실을 엿볼 수 있게끔 도울 수 있기를 여러분은 바랄 것입니다. 이런 관심에서 제 1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압돌바하께서는 언제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었고 순수하고 빛나는 마음을 지닌 이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압돌바하의 저녁 식사에 초대 받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앉아서 압돌바하의 지혜로운 말씀을 경청하던 그는 자신 앞에 놓인 유리잔을 보고 이러한 간절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야, 잔을 비우고 새 물로 잔을 가득 채우듯이, 압돌바하께서 내 마음 안의 세속적 욕망을 모두 비우시고, 하느님의 사랑과 깨달음으로 새롭게 채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은 한 순간 그의 마음을 관통했을 뿐 그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는 그분이 자신의 마음 속 생각을 읽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압돌바하께서 잠시 말씀을 중단하시더니 시중 들던 이를 부르시고 페르시아로 몇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조용히 그의 자리로 와서 앞에 놓인 잔을 가져가 비우고, 다시 갖다 놓았습니다.

잠시 후 압돌바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식탁 위에 있는 물병을 집어 자연스럽게 그의 앞에 놓인 빈 잔을 천천히 다시 채우셨습니다. 아무도 그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나 그 여성은 압돌바하께서 자신의 가슴 속 열망에 응답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사람의 가슴과 마음이 압돌바하께는 마치 펼쳐져 있는 책과 같다는 것,
그분은 큰 사랑과 친절로 그것을 읽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의 이야기와 제 1과 전체가 초점을 맞추는 영적 자질은 마음의 순수함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순수함의 자질에 대한 어린이의 이해력이 어떻게 심화될 수 있는지, 다음 질문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1. 압돌바하의 손님은 자신의 마음이 순수해지기를 무척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린이들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슴 속 열망과 그의 앞에 놓인 물 잔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2. 순수함에 이르려면 잔을 비우고 새로 채우듯 무가치한 생각과 감정을 마음에서 먼저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께서 사랑, 너그러움, 친절과 같은 자질로 우리 마음이 빛을 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순수함을 추구하는 우리 노력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그룹의 일원들과 이 질문에 대해 논의한 후 여기에 생각을 적어 보세요.

1단계 교실에서는 압돌바하의 생애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영적 자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이야기들도 소개됩니다.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은 그러한 자질을 드러낼 때의 보상과 이러한 자질을 간과했을 때의 결과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문화권에서 잘 알려진 제 4과의 늑대와 목동의 이야기는 거짓말의 결과를 보임으로써 진실성의 자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들 이야기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큰 유익을 제공하며, 성품 형성에 큰 가치가 있음이 입증될 것입니다.

제 22 장

스토리텔링은 하나의 예술입니다.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교사가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지 고찰합니다. 제 1과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자세히 탐구해 봅시다.

위 이야기의 주제는 순수한 마음이라는 영적 자질이며, 물 잔의 사례를 통해 탐구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특히 어떤 부분이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띠까?’ 압돌바하의 지혜로운 말씀은 손님으로 하여금 앞에 놓인 유리잔처럼 마음속의 세속적인 욕망을 정화하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압돌바하께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유리잔에 담긴 물을 버리라고 지시하신 후, 나중에 다시 채워 주신 것도 또 다른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령, 압돌바하께서 시중드는 이에게 손님 앞에 놓인 잔을 비워 달라고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의 핵심 부분을 파악했으며, 이제 또 다른 세부 사항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압돌바하의 손님이 마치 잔을 비우듯 자신의 마음 또한 정화되기를 바랐다 라고만 묘사한다면, 이야기가 성립할까요? 이야기에는 느낌을 더 풍부하게 전달하고, 매력을 느끼게 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 손님은 압돌바하께서 지혜를 나눠 주시는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빈 잔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지만, 자신의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 만찬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던 중 압돌바하께서는 손님이 마음에 품었던 무언의 생각에 대해 응답하시기 위해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

- 손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위에서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 손님은 압둘바하께서 자신의 마음 속 소망을 읽으신 것을 깨닫고, 큰 기쁨을 느꼈다.

교사는 1단계 수업에 등장하는 이야기에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나 기타 요소를 보탬으로써 과장, 또는 윤색하지 않도록 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전달하려는 영적 진리로부터 어린이의 주의를 자칫 분산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내, 스토리텔링의 목적은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사안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때 기쁨과 감동을 갖고 이야기하면 어린이들은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단조롭게 들리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 슬픔, 실망, 두려움, 용기 등의 감정을 목소리, 표정, 몸짓을 통해 전달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목소리의 톤과 크기가 변화해야 하고, 몸짓은 단순하지만 각 부분에 알맞게 맞춰야 합니다. 내레이션의 리듬과 속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천천히 말하면 아이들이 지루해 하고, 너무 빨리 말하면 아이들은 이야기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유념할 것은 여러분은 이때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의 감정에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정성이 부족할 때 어린이들은 이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인류가 획득한 지혜의 저장고로서, 수천 년 동안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혜를 전달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이며, 그를 통해 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 23 장

스토리텔링에 이어, 게임과 색칠 두 개 활동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게임에 대해 논의합니다. 색칠은 다음 장에서 다룹니다.

언급했듯이 1단계 수업에서 다루는 게임은 본질적으로 협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게임이 보다 도전적인 것이 되려면, 참여자인 어린이들을 경쟁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점은 어린이들은 서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게임이 끝난 이후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와 습관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직 경쟁을 통해서만 탁월성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사고방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의 진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협력을 통해서도 좀처럼 탁월함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인가요? 경쟁에서는 어떤 사람은 승자이고 어떤 사람은 패자이지만, 협력에서는 모두가 성취감을 느낍니다.

1단계 수업의 게임은 또한 아이들이 지시 사항을 듣고 따르는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이들은 게임 활동을 통해 학급 전체의 공동 목표가 존재하고, 모두의 노력을 조정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담당할 역할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게임을 통해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깊어지고, 끈기를 배우며, 서로를 이어주는 우정의 끈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그렇기에 성취감을 느끼게 위해서 게임을 완벽히 수행해야 한다고 느낄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 1과에서 제안된 게임을 살펴봅시다. 이 활동은 상술한 목표에 어떻게 기여합니까?

다음 활동으로, 자동차 타이어를 바닥에 놓고 몇 명이 동시에 그 안에 설 수 있겠는지 물어봅니다. 타이어 대신 매트나 수건, 유사한 물건을 바닥에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선택하든, 학급의 많은 어린이가 그 게임을 도전적으로 느낄 만큼 작아야 합니다.

교사가 게임을 소개하는 방식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게임의 목적이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교사는 게임을 소개할 때 종종 놀이 방법을 시연해 보이고, 그들과 함께 연습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제 24 장

예술 활동은 어린이의 창의력과 인지 발달에 중요하며, 어릴 때부터 자유롭게 그림 그리기와 기타 여러 형태의 예술을 통해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세계 많은 지역의 아이들은 5~6세가 되기 전에 그림을 그릴 기회가 거의 없고, 색연필을 접할 기회는 더욱 드뭅니다. 그들에게 1단계 수업에서 제공되는 색칠활동은 수업 중 가장 흥미로운 시간이 될 수 있으며, 상위 단계 교실에서 더 복잡한 예술 활동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또한 색칠은 손 감각과 규율 감각을 개발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색칠을 통해 아래 제시된 어린이의 여러 능력, 기술 및 태도가 어떻게 향상될 수 있습니까?

- 질서와 아름다움을 음미하기
- 세밀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기
-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기
- 다른 사람들과 자원을 함께 나눠 쓰기
-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특정 기술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 외에도, 색칠 시간은 1단계 수업에서 다루는 자질들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교사에게 제공합니다. 그림에 묘사된 상황에 대해 아이들에게 질문하면서, 교사는 아이들이 그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사고를 명료하게 표현하고, 사고를 연결 짓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수업의 색칠 용지를 보면서,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어떻게 소개할지 그룹과 함께 생각해 보세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교사는 이 활동을 적절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색칠을 좋아합니다. 수업의 이 부분이 적절히 구성되지 않으면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색칠 활동을 할 장소를 지정해 주고, 각 과에 맞는 색칠 용지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첫 몇 회의 수업에서 교사는 색연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행동 기준을 정하고, 아이들과 함께 규율과 협동의 기준을 확립해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어린이가 교사가 손에 든 상자에서 색연필 하나씩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색을 바꾸고 싶을 때는 쓰던 색연필을 먼저 반납하고, 다른 색연필로 교환합니다. 몇 회의 수업으로 한 번에 한 가지 색만 사용한다는 원칙에 어린이들이 익숙해지면, 색연필 상자를 교실 중앙에 비치해 둘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상황을 살펴보세요. 각 쌍 중 어느 상황이 이 활동의 효율성에 더 잘 기여하나요?

_____ 아이가 색칠을 잘 하려고 노력하면, 교사는 그림 선 밖에도 색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_____ 모든 어린이에게 반드시 선을 넘지 말고 색칠하라고 지시합니다.

_____ 아이들이 색칠하는 동안 교사는 아이들 사이를 걸으며 도움과 격려를 줍니다.

_____ 아이들이 색칠하는 동안 교사는 앉아서 자신의 작업을 합니다.

_____ 색칠에 안배된 시간에 아이들은 당면한 작업에 집중합니다.

_____ 색칠에 안배된 시간에 아이들이 서로의 주의를 산만하게 합니다.

_____ 색칠하는 동안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침묵을 지킵니다.

_____ 색칠하는 동안 아이들은 즐겁게 어울리고, 서로 격려합니다.

제 25 장

많은 교사들이 어린이교실에 참여하는 그룹에 대한 기본 정보를 기록하는 노트 작성이 유용하다고 느낍니다. 두 개의 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에는 학생들의 이름, 연령, 출석 상황을 기록하고, 다른 하나에는 인용구 암기 진행 상황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후자의 표 각 열에는 어린이의 이름을, 각 행에는 수업의 차수를 적습니다. 어린이가 인용구를 암기하면 해당 칸에 표시합니다.

노트 작성 시 수업에 대한 칸을 마련하여, 각 수업에 대한 분석,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생각, 수업 후의 성찰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칸에는 어린이 개개인의 발전 상황, 학부모와 공유할 수 있는 일화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부모, 형제자매의 이름을 기입하고, 가정 방문 시 수업의 주제들을 간략히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교사들은 말합니다.

제 26 장

어린이교실 교사로서 여러분은 어린이 개개인의 부모와 친밀하고 애정 어린 관계를 구축하며, 정기적으로 만나 그들의 성장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 2권 공부를 마친 후에 지역 공동체의 어린이교실에 참여하는 어린이의 가족을 방문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제 2권의 3단원 15장을 참조해 보세요. 그 장에서 어린이교실 교사 마리벨은 에마의 어머니를 두 번째로 방문하며,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에마가 어린이교실에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자신이 관찰한 에마의 훌륭한 자질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교사가 지역 공동체의 어린이에게 봉사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열정을 부모가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중요할까요? 부모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신뢰의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사의

또 다른 자질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교사로서 어린이가 계발해 가고 있는 영적 자질을 관찰하고, 이에 관해 부모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리벨은 여러분이 이 단원 제 3장에서 공부했던 인용구를 에마의 어머니에게 소개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함의를 함께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와 나누는 많은 대화에서 여러분은 어린이교실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교육 개념들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래에는 이 단원에서 살펴본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어린이 영성 교육과 관련하여 각 개념에 대해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부모와의 대화에서 이 개념들과 관련해 나눌 만한 바하이 성서의 또 다른 구절들이 있습니까?

훌륭한 성품 계발:

영적 자질들의 획득:

기도가 어린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

하느님의 말씀 암기의 중요성:

압둘바하 생애에 관한 선별된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

규율과 자유:

마리벨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중에 잠시 멈추어, 에마 어머니에게 당신의 생각을 나눠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사와 부모 사이에는 보다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사의 첫 가정 방문부터 수업에서 다루지는 주제들에 대한 부모의 의견, 사고,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영적 자질에 대한 일반 개념을 부모와 논의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은 연중 여러 기회를 활용, 각 수업을 통해 어린이가 함양하려고 노력한 특정 자질들에 관해 부모와 대화 나눠야 합니다. 제 1과에서 다루었던 마음의 순수함의 자질에 대해 얻은 통찰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대화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룹 일원들과 함께 탐구해 보기 바랍니다.

마리벨은 자신과 에마의 어머니 사이에 상호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에마가 어린이교실에서 최대 유익을 얻으려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에마는 수업에서 배운 기도문과 인용구를 집에서 낭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침투하여 성품을 강화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더 잘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교사의 노력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그룹 일원들과 논의해 보세요.

바람직한 인지적, 정서적 속성들은 오랜 기간 적절한 교육을 통해 함양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정기적인 만남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아무리 작더라도 그들의 자녀가 이룬 발전상입니다. 대화가 진척되면서 여러분은 부모와 함께 이러한 성취를 기반으로, 그 위에 무엇을 세워 나갈지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통 방식이 확립되면, 교사는 자녀에게서 어떤 어려움을 관찰했을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부모와 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목표는 아이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협력 수단을 함께 찾는 것입니다. 부모와 건설적인 소통 방식을 만들어 가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그룹과 논의하세요.

제 27 장

이 단원의 서두에 언급했듯이, 본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어린이교실을 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들 중 일부는 다른 봉사 부문으로 옮겨가기 전 한동안만 교실을 운영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이 부문의 노력에 장기적으로 헌신해, 하느님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수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참여자들이 각자 어떤 길을 택하든지, 그들 모두 이웃을 방문하거나, 모임에 참석하거나, 혹은 형제나 부모로서 지역 사회의 어린이들과 교류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단원에서 탐구한 여러 개념과 사고를 통해 우리는 세계정의원의 표현대로 "가장 귀중한 보물"을 돌봐야 하는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인류의 밝은 미래를 고대하면서 다음 인용구에서 영감과 자양분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종들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드높일 것을, 존재계의 진보와 영혼의 향상을 이끌 것을 만인에게 명하노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어린이 교육이다.”³⁸

“어린이교육과 단련은 인류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공명이 큰 행위의 하나로, 가장 자비로우신 분의 은혜와 은총을 끌어당깁니다. 교육은 인류의 모든 탁월성의 본질적 토대로서, 인류가 영속하는 영광의 정점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유아기부터 단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정원사의 자애로운 보살핌 속에 시냇가에 핀 어린 나무처럼 영과 삶의 수정 같이 맑은 물을 빨아들일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진리의 태양 광선을 자신에게로 모을 것이며, 그 빛과 열로 인해 생명의 정원에서 언제나 싱그럽고 아름답게 자랄 것입니다. . . .”

“이 중대한 임무에 강력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인간계는 이 외에도 여러 장식들로 찬란히 빛을 발하고,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어두운 곳이 환히 밝아지고, 이 지상의 거처가 천국으로 변모할 것입니다.”³⁹

■ 참고 문헌

1. 2000년 4월 21일자 서신 《세계정의원 1986-2001 메시지, 형성 시대의 제 4기》에 수록. From a message dated 21 April 2000, published in *Messages from the Universal House of Justice, 1986–2001: The Fourth Epoch of the Formative Age* (Wilmette: Bahá'í Publishing Trust, 2010), no. 331.26, p. 727.
2. 바하올라, “바하이교육에 대하여” 세계정의원 경전연구국 《편집 저작의 편집》에 수록. Bahá'u'lláh, in “A Compilation on Bahá'í Education”, compiled by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Universal House of Justice, published in *The Compilation of Compilations* (Maryborough: Bahá'í Publications Australia, 1991), vol. 1, no. 576, p. 251.
3. 《압둘바하 선집》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Abdu'l-Bahá* (Wilmette: Bahá'í Publishing, 2010, 2015 printing), no. 106.1, p. 187.
4. 압둘바하, 《편집 저작의 편집 “바하이교육에 대하여”》에 수록. 'Abdu'l-Bahá, in “A Compilation on Bahá'í Education”, published in *The Compilation of Compilations*, vol. 1, no. 614, pp. 273–74.
5. 《바하올라 선집》 122.1 *Gleanings from the Writings of Bahá'u'lláh* (Wilmette: Bahá'í Publishing Trust, 1983, 2017 printing), CXXII, par. 1, p. 294.
6. 《압둘바하 선집》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Abdu'l-Bahá*, no. 108.1, p. 188.
7. 상동 Ibid., no. 110.2, p. 190.
8. 상동 Ibid., no. 100.2, p. 179.
9. 상동 Ibid., no. 99.1, pp. 178–79.
10. 상동 Ibid., no. 103.5, p. 183.
11. 상동 Ibid., no. 122.1, pp. 198–99.
12. 압둘바하, 《서방의 별》에 수록. Words of 'Abdu'l-Bahá, cited in *Star of the West*, vol. 8, no. 4 (17 May 1917), p. 41.
13. 《바하올라 선집》, 136.2 *Gleanings from the Writings of Bahá'u'lláh*, CXXXVI, par. 2, p. 334; also in *Bahá'í Prayers: A Selection of Prayers Revealed by Bahá'u'lláh, the Báb, and 'Abdu'l-Bahá* (Wilmette: Bahá'í Publishing Trust, 2002, 2017 printing), p. iii.
14. 압둘바하의 1912년 8월 5일 강연, 《세계 평화의 선포》에 수록 From a talk given on 5 August 1912, published in *The Promulgation of Universal Peace: Talks Delivered by 'Abdu'l-Bahá during His Visit to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n 1912* (Wilmette: Bahá'í Publishing, 2012), par. 6, p. 345.

15. 압돌바하, 《기도와 예배의 삶, 바압, 바하올라, 압돌바하, 쇼기에펜디, 세계정의원의 문헌 편집물》에 수록. 세계정의원 경전연구국 Abdu'l-Bahá, in *Prayer and Devotional Life: A Compilation of Extracts from the Writings of Bahá'u'lláh, the Báb, and 'Abdu'l-Bahá and the Letters of Shoghi Effendi and the Universal House of Justice*, compiled by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Universal House of Justice (Wilmette: Bahá'í Publishing, 2019), no. 24, p. 7.
16. 《바하올라 선집》 43.9 *Gleanings from the Writings of Bahá'u'lláh*, XLIII, par. 9, p. 109.
17. 압돌바하의 1912년 4월 24일 강연, 《세계평화의 선포》에 수록 From a talk given by 'Abdu'l-Bahá on 24 April 1912, published in *The Promulgation of Universal Peace*, par. 1, p. 71.
18. 바하올라, 《숨겨진 말씀》 아라비아어 3번 Bahá'u'lláh, *The Hidden Words* (Wilmette: Bahá'í Publishing Trust, 2003, 2012 printing), Arabic no. 3, p. 4.
19. 아라비아어, 상동 Ibid., Arabic no. 12, p. 6.
20. 아라비아어, 상동 Ibid., Arabic no. 11, p. 6.
21. 《바하올라 선집》 128.6 *Gleanings from the Writings of Bahá'u'lláh*, CXXVIII, par. 6, p. 313.
22. 《거룩한 임의 부르심, 바하올라의 신비 저작 선집》 *The Call of the Divine Beloved: Selected Mystical Works of Bahá'u'lláh* (Haifa: Bahá'í World Centre, 2018), no. 2.43, p. 31.
23. 《숨겨진 말씀》 아라비아어 59번 *The Hidden Words*, Arabic no. 59, p. 17.
24. 압돌바하의 1912년 5월 26일 강연, 《세계평화의 선포》에 수록 From a talk given by 'Abdu'l-Bahá on 26 May 1912, published in *The Promulgation of Universal Peace*, par. 1, p. 204.
25. 《압돌바하 선집》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Abdu'l-Bahá*, no. 129.2, p. 204.
26. 《바하올라 선집》 153.5 *Gleanings from the Writings of Bahá'u'lláh*, CLV, par. 4, pp. 376–77. 27. Ibid., CLIII, par. 5, p. 369.
28. 《숨겨진 말씀》 아라비아어 9번 *The Hidden Words*, Arabic no. 9, p. 5.
29. 압돌바하의 1912년 4월 24일 강연, 《세계평화의 선포》에 수록 From a talk given by 'Abdu'l-Bahá on 24 April 1912, published in *The Promulgation of Universal Peace*, par. 4, p. 73.

30. 바하올라, 《늑대의 자식에게 주는 서한》 Bahá'u'lláh, *Epistle to the Son of the Wolf* (Wilmette: Bahá'í Publishing Trust, 1988, 2016 printing), p. 27.
31. 《케타베 악다스 이후 계시된 바하올라 성한집》 *Tablets of Bahá'u'lláh Revealed after the Kitáb-i-Aqdas* (Wilmette: Bahá'í Publishing Trust, 1988, 2005 printing), no. 8.53, p. 126.
32. 압돌바하, 《신성한 문명의 비밀》 'Abdu'l-Bahá, *The Secret of Divine Civilization* (Wilmette: Bahá'í Publishing, 2007, 2016 printing), par. 74, p. 53.
33. 《압돌바하 선집》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Abdu'l-Bahá*, no. 111.1, p. 191. 34. *Ibid.*, no. 95.2, pp. 176–77.
35. 상동 *Ibid.*, no. 111.4, pp. 191–92.
36. 상동 *Ibid.*, no. 124.1, p. 200.
37. 압돌바하, 《바하이 기도서》에 수록 'Abdu'l-Bahá, in *Bahá'í Prayers*, p. 29.
38. 《사회 행동: 세계정의원 경진연구국 편집물》 From a Tablet revealed by Bahá'u'lláh, in *Social Action: A Compilation Prepared by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Universal House of Justice* (Wilmette: Bahá'í Publishing Trust, 2020), no. 178, p. 107.
39. 《압돌바하 선집》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Abdu'l-Bahá*, no. 103.1–3, p. 182.



제1단계

어린이교실 수업내용

목적

5, 6세 어린이들의 성품 함양에 중점을 둔 교실에서 어린이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한다. 어린이교실의 활동으로는 기도문과 인용구의 암기, 노래, 이야기, 게임, 색칠하기가 있다.

제 1 장

앞 단원에서 우리는 1단계 어린이교실의 성격을 고찰하고, 수업의 구성 요소들을 검토했습니다. 이 단원은 24과의 수업 내용을 소개합니다. 알다시피 각 수업은 한 가지 영적 자질의 계발에 초점을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이 단원이 제공하는 예비 장에서는 각 과의 수업 내용을 숙지하고 예행 연습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예비 장을 통해서 한 번에 4과의 수업 내용을 검토하고, 각 수업에서 다루는 영적 자질들에 관해 숙고해 볼 것입니다. 예비 장에 제시된 각 과의 수업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후,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수업의 여러 활동을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교대로 수행해 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제 2 장

1단계 교실의 매 회 수업은 교사가 시작기도를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네 과마다 새로운 기도문이 소개되며, 총 6개의 기도문이 제공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문들을 암기한다면, 어린이들의 암기 노력에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제 1과부터 제 4과까지 네 번의 수업에서는 다음의 기도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느님, 이 어린이들을 교육해 주소서. 이들은 당신 과수원의 나무요, 당신 초원의 꽃이요, 당신 정원에 핀 장미입니다. 이들 위에 당신의 단비를 내려 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실제의 태양이 이들을 밝게 비추게 하소서. 당신의 미풍이 이들을 새롭게 하여, 이들이 바르게 단련 받고 성장 발전하여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은 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¹

위의 기도를 낭송한 후, 여러분은 몇몇 어린이에게 혹시 암기하고 있는 기도문이 있다면 낭송해 보길 권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어린이가 이 부분에 기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아이들이 1단계 교실에서 배운 기도를 암기하고자 하게 되면 점차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 단원에서도 제시되었던 아래의 기도문은 이제 익숙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첫 몇 회의 수업에서 이 기도문의 암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저에게 진주처럼 순수한 마음을 내려 주소서.”²

시작기도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께 대한 헌신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압둘바하께서는 어린이들을 모아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 온다”고 확인하셨습니다. 하느님과의 대화는 “더 높은 차원의 지성에 대한 감수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린이들은 기도할 때 하느님을 향한 심도 깊은 경건함을 계발하고, 그에 부합한 행동을 하도록 도움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기도할 때, 또 다른 이의 기도를 들을 때 마음을 모아 성스러운 말씀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경건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앉는 것이 좋은지, 산만해지지 않게 손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시선을 어디에 둘 지 등이 그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기도에 앞서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과 움직임이 있는 환경에서 모든 어린이가 빠짐없이 기도를 하기보다,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너 명의 어린이가 기도를 낭송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수업 시작 전에 기도할 어린이들을 미리 선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모든 어린이에게 최소한 3,4회의 수업마다 한 번씩 기도를 낭송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중 수업에서 기도의 성격이나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 이따금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처음 몇 주간 어린이들에게 해 줄 말을 아래 칸에 적어 보세요.

제 3 장

이제 그룹 일원과 함께 첫 네 과의 수업을 차례대로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도입부의 소개의 말과, 학생들이 암기할 인용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첫 수업의 주제가 순수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차례의 수업에서 중심이 되는 영적 자질의 이름을 적어 주세요.

제 1과: 순수함

제 2과: _____

제 3과: _____

제 4과: _____

제 1단원에서 이미 순수한 마음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각 과에 소개된 여타 자질에 대해서도 성찰의 시간을 갖고, 수업을 준비합니다. 아래에는 남은 세 과에 등장하는 자질에 관한 인용구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다른 참여자와 함께 각 인용구 묶음을 여러 번 읽고, 학생들이 암기할 인용구를 중심으로 성찰하세요. 그런 후, 개인의 삶에서 이들 자질이 차지하는 중요성, 특히 교사에게 요구되는 노력에 대해 적어 보세요. 여기 제시된 인용구는 어린이교실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성찰을 돕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정의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인간의 빛은 정의이다. 억압과 압제의 역풍으로 그 빛을 꺼뜨리지 말라. 정의의 목적은 사람들 사이의 융합의 출현이다.”³

“정의의 빛에 견줄 수 있는 빛은 어디에도 없다. 세계의 조직화와 인류의 평온은 정의에 의존한다.”⁴

“세상을 단련하는 것은 정의이다. 정의는 상과 별의 두 개의 기둥으로 지탱된다. 이 두 기둥이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원천이다.”⁵

“영^ㅁ의 아들아! 내 앞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것은 정의이니, 나를

바라거든 정의를 외면하지 말고,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도록 이를 소홀히 하지 말라. 정의의 도움으로 너는 남의 눈이 아닌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이웃 사람의 지식이 아닌 너의 지식으로 알게 되리라. 네가 어떻게 해야 마땅한지 가슴 깊이 숙고하라. 참으로 정의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요 내 자애의 표시이니라. 그러니 이를 네 눈앞에 두어라.”⁶

사랑의 자질에 관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인간이 사랑하는 임께로 마음을 향하고, 그분 외에 일체를 끊으며 자신의 주님이 바라시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⁷

“오늘날 하느님의 대업에 봉사함은 그분의 벗들 사이에 사랑과 우애를 일으킵니다.”⁸

“성스러운 현시자들이 출현하시는 목적은 언제나 인간계에 우애와 사랑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⁹

“그대는 이 점을 확실히 알지니, 사랑은 하느님의 성스러운 계시의 비밀이요, 가장 자비로우신 분의 현시요, 영성이 넘쳐흐르는 샘이다. 사랑은 천상의 온유한 빛이요, 인간 영혼에 생명을 불어 넣는 성령의 영원한 입김이다.”¹⁰

진실성에 관해 우리는 이렇게 권고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진실성과 예의로 네 자신을 단장하라.”¹¹

“진실성 없이는 하느님의 모든 세계에서 어느 영혼에게도 진보와 성공이 불가능하다.”¹²

“진실성은 모든 자질 중에 가장 선한 자질이니, 그것이 다른 모든 미덕을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모든 도덕적 시련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모든 악한 행위에서 멀어지며, 모든 사악한 행동으로부터 보존됩니다. 모든 악덕과 비행은 진실성에 대한 정확한 반정립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 일체를 지극히 염오할 것입니다.”¹³

여러분은 수업에서 어린이들이 암기할 인용구 외에도, 이들 각 묶음에서 적어도 한 개 구절을 선택해 암기하기 바랍니다.

제 4 장

위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첫 4과의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들려 줄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그 중 세 개의 이야기는 압둘바하의 생애에서 가져 온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이상을 삶 속에 구현하셨습니다. 1단계 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 가운데 일부는 압둘바하에 대해 익숙지 않을 수 있기에, 그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제 2권의 3단원은 그분의 독특한 지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줍니다. 연수원과정을 순차적으로 공부해 가면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내려 주신 압둘바하라는 귀한 선물을 더 잘 알아보고, 한층 더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1단계 첫 수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린이들에게 그분에 관해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나요?

제 1단원의 공부에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단지 일어난 사건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어린이들이 그를 통해 영적 현실을 엿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제 1과에 등장하는 압돌바하의 손님에 관한 이야기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순수함의 자질이 무엇인지, 그 자질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뒤따르는 세 과의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제 2과에서는 압돌바하께서 정의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셨음을 들려 줄 것입니다. 이야기는 압돌바하께서 악카에서 하이파로 여행하실 때 있었던 일을 묘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기 위해 어린이들이 이해해야 할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객차의 일반 좌석과 개인 교통수단의 차이입니다. 압돌바하께서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꺼이 개인적 편안함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압돌바하의 삶에서 드러나 있듯이,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않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삶의 방식이 바로 정의라는 영적 자질을 드러낸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사전에 마음속에서 확인해야 할 세부 사항은 무엇인가요?

제 3과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 압돌바하께 무례했지만 수년에 걸쳐 그분의 자애를 누렸던 악카 도시의 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압돌바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압돌바하의 사랑이 지닌 특성이 어린이들에게 분명히 전달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지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을 인식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생략해 버리면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따라가거나 통찰을 얻기 어렵게 만드는 이야기의 세부 사항은 무엇인가요?

제 4과는 진실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늑대를 부르는 목동에 관한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 양치기의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 주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실함의 보상에 대해서도 어린이들이 인식하길 원할 것입니다. 그 보상은 무엇이며, 이야기 속에서 어린이들이 그것을 인식하도록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제 5 장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1단계 교실의 첫 네 번의 수업에서 다뤄지는 영적 자질들에 대해 성찰해 보았고, 그 중요성을 더 잘 이해했습니다. 또한, 수업에서 들려줄 이야기들이 1단계 어린이교실의 학생들이 계발해야 할 자질들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음 4개 과의 수업내용 검토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동료 참여자와 함께 이 부분의 수업 준비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기 바랍니다. 앞 단원에서 논의된 접근법을 활용해, 번갈아 가면서 서로에게 암기할 기도문을 소개하고, 각 과에 제시된 영적 자질을 설명하고, 암기할 인용구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게임을 해 보고, 노래를 불러 보세요. 색칠 용지를 어떻게 소개할지 생각해 보세요. 예행연습을 시작하기 전 첫 단원의 제 17장부터 제 24장까지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업의 여러 요소를 연습해 본 후, 그룹의 각 일원은 한 과 이상의 수업을 가르쳐 보고, 다른 참여자들은 학생 역할을 수행해 보세요. 상황에 따라 서너 명의 어린이를 한데 모아,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행연습을 해 보면서 각 과의 요지, 가르칠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싶을 것입니다. 일부 게임의 경우에는 수업 전에 물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제 1단원에 언급된 노트의 한 부분을 이러한 준비에 할애했습니다.

여러분은 교실에 책과 노트북을 소지하겠지만, 단순히 그것들을 읽어주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육 내용을 수월하고 열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연습과 준비는 필수입니다.

제 6 장

제 5과에서 제 8과까지 각 수업을 시작할 때 다음 기도문을 암송할 것을 제안합니다.

“친절하신 주여!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당신이 위력의 손가락으로 빛으신 당신의 작품이요,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놀라운 증적입니다. 하느님이시여!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은혜로이 도와주시고, 이들이 인류 세계에 봉사하게 해 주소서. 하느님이시여! 이 아이들은 진주들이오니 당신의 자애의 진주조개 안에서 양육되게 하소서.

“당신은 베푸시는 분이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¹⁴

여러분의 교육 노력에 비추어 이 말씀들을 잠시 숙고해 보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매번 수업에 임할 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린이들의 어린 마음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강화시켜 줄까요?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아래의 기도문을 암기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알다시피, 학생들은 의미를 잘 이해할수록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어떤 단어가 새롭거나 낯설다고 느껴질까요? 아이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 그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어 외에도 우리는 등불과 별은 모두 빛을 발하는 대상으로서, 빛이 없는 상태는 어둠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아무 것도 볼 수 없고, 길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빛으로 밝게 빛날 수

있도록 하느님께 간청하며, 또한 그분께는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위력과 힘이 있음을 증언합니다.

“하느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로 하여금 밝은 등불이 되고, 반짝이는 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은 위대하시고 강력하신 분이십니다.”¹⁵

제 7 장

이제 제 5과부터 제 8과까지 차례로 읽으면서, 특히 도입부에서 학생들에게 해 줄 말과 그들이 암기해야 할 인용구를 어떻게 소개할지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각 과에서 다루지는 영적 자질의 이름을 아래 적으세요.

제 5과: _____

제 6과: _____

제 7과: _____

제 8과: _____

아래에는 이 네 가지 자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인용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각 묶음을 성찰하고, 빈 칸에 생각을 적어보세요.

너그러움의 자질에 대한 구절입니다.

“풍족한 날들에는 너그럽고, 상실의 시간에는 인내하라.”¹⁶

“관대함의 시작은 자신과 가족, 신앙의 형제 중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쓰는 것이다.”¹⁷

“자신을 향한 적대감이 크면 클수록 성실한 신앙을 드러내십시오. 직면해야 할 고통과 재난이 크면 클수록, 한층 더 크나큰 관대함으로 넉넉한 잔을 돌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계의 생명이 될 정신이요, 그 심장부에서 퍼져나갈 밝은 빛입니다. . .”¹⁸

“그대들은 너그러움의 여명, 존재의 신비들의 새벽녘, 영감이 빛 발하는 곳, 찬란한 빛의 동틀 녘이 되십시오. 성령의 힘으로 지탱되고, 주님을 애모하며, 그분 외에 일체에 초연하고, 인류의 특성들 너머로 성화되고, 하늘의 천사들의 속성을 갖춰 입은 영혼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이 새로운 때, 이 놀라운 시대에 모든 은사 가운데 최상의 은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¹⁹

이기심 없음에 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권고 받습니다.

“... 그대들은 서로에 대해 무한한 사랑을 지녀야 하며, 각자 자신보다 서로를 더 각별히 여겨야 합니다.”²⁰

“주여, 저로 하여금 무아의 잔으로 마시게 하시고, 무아의 옷으로 저를 입혀주시며, 무아의 바다에 잠기게 해 주소서. 저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의 길 위에 뿌릴

흠으로 하여 주시고, 당신의 길에 주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의 발자국으로 축복받은 땅을 위해 저의 영혼을 바칠 수 있게 허락해 주소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영광의 주여.”²¹

“인간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잇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안락을 포기하는 존재입니다. 아니, 그는 인류의 삶을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류의 영예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계의 영광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한 지복을 획득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느님의 문턱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한 지복의 정확한 시현자입니다.”²²

아래 인용구는 기쁨이 지닌 역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창공으로 기쁨의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라.”²³

“그분의 현존에 도달하여, 그분의 아름다움을 응시하고, 그분의 음률에 귀 기울여, 성스럽고 존귀하며 영광되고 빛나는 그분의 입술에서 발화된 말씀으로 소생된 이들에게 모든 기쁨이 있으리라!”²⁴

“기쁨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기쁨의 순간에 우리의 힘은 한층 활력을 띠게 되고, 우리의 지성은 한층 예리해지고, 우리의 이해력은 더 선명해집니다.”²⁵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모든 모임에서 사랑의 촛불을 켜고, 온유함

으로 즐거워하고 모든 마음을 기쁘게 만드십시오.”²⁶

아래 구절은 성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성실한 영혼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를 갈망함은 마치 젖먹이가 어머니의 젖을 갈망하는 것과 같다. 아니, 그대들이 알기만 한다면 그의 갈망은 그보다 훨씬 더 간절한 것이다. 다시 말하노니, 그의 갈망은 목이 타는 이가 은혜의 생명수를 갈망하는 것과 같고, 죄인이 용서와 자비를 갈망하는 것과 같다.”²⁷

“이 날에 진실성과 성실이 거짓의 손아귀에서 심한 고초를 겪고 있고, 정의가 불의의 재앙 속에 고통 받고 있다.”²⁸

“만인은 성실함과 공정함으로 이 생애의 짧은 거리를 가로질러야 한다.”²⁹

“신성한 은사를 받는 이가 되려면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의도를 지녀야 합니다.”³⁰

각각의 묶음에서 적어도 한 구절을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제 8 장

이제 제 5과에서 제8과까지 수업에서 들려줄 이야기를 검토하면서, 어린이들이 영적 자질에 대한 통찰을 얻는데 이야기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 생각해 봅니다. 각 이야기를 읽은 후 아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제 5과의 이야기의 주제는 관대함으로, 압둘바하의 유년 시절, 아버지의 양떼와 관련해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핵심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만약 이야기 속에서 누락하면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느낄 만한 세부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하올라께서 목자들을 향한 당신 아드님의 관대함에 관해 들으셨을 때 보여 주신 크나큰 기쁨입니다. 그분은 압둘바하께서 성장하면서 장차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인류의 유익을 위해 바칠 것이라고, 비단 물질적 소유뿐 아니라 전 존재를 바칠 것이라고 예견하셨습니다. 압둘바하의 관대함의 넓이를 어린이들이 잘 인식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 6과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이기심 없음의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압둘바하께서는 값비싼 외투를 받기를 거절하시면서, 당신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아끼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실히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에 분명히

확인해야 할 세부 사항은 무엇입니까?

제7과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소년으로서 압둘바하를 만난 이후, 하느님의 대업을 증진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던 르로이 이오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르로이는 압둘바하를 위해 산 꽃다발을 압둘바하에게 드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의 마음을 그분께 바치고 싶어 합니다. 르로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어린이들이 이해하려면, 인간의 마음이 그 어떤 물질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는 점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야기의 그 부분을 말할 때 단지 목소리에 힘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잘 따라오고, 압둘바하께서 르로이에게 당신의 코트에 달려 있던 붉은 장미를 선물하신 몸짓이 소년에게 그토록 큰 기쁨을 준 이유를 깨닫게 하려면, 이야기에서 어떤 세부 사항을 강조해야 할까요?

압둘바하께서는 당신의 일생 동안, 당신 앞으로 나아온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르로이가 압둘바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어린이들이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8과의 초점은 성실함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때로는 어떤 자질이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통해 그 자질을 지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나무를 자르도록 설득한 남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 예입니다. 걸모습이 때로는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어린이들이 잘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와 주겠습니까? 이야기를 전달할 때, 성실함이 결여된 이웃이 오히려 보상을 받았다고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불성실함의 부정적 영향을 어린이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말해줘야 할까요?

제 9 장

제 5과에서 제 8과까지 등장하는 영적 자질들에 대해 일정한 통찰을 얻었다면, 첫 4개 과에서 했던 것처럼,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수업의 여러 요소에 대한 예행연습을 해 보세요. 각 과에 대해 기억하고 싶은 점을 노트에 적고,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기록하기를 기억하세요.

제 10 장

제 9과에서 제 12과까지의 수업은 다음의 기도로 시작하기를 제안합니다. 이 기도를 암기하길 권합니다.

“저의 주여! 당신의 아름다움을 저의 먹을 것으로, 당신의 현존을 저의 마실 것으로 해 주소서. 당신의 기쁨을 저의 소망으로, 당신을 찬미함을 저의 행동으로, 당신에 대한 기억을 저의 동반자로, 당신 주권의 위력을 저의 구원자로 해 주소서. 당신 계신 곳을 저의 집으로 해 주시고, 제가 사는 자리를 당신으로부터 장막으로 차단된 이들에게 부과하신 모든 한계에서 성화된 자리로 해 주소서.

진실로 당신께서는 전능하시고 지극히 영광되시며 가장 강력하신 분이십니다.”³¹

이 네 번의 수업에서 여러분은 학생들이 아래의 기도문을 암기하도록 돕습니다. 어린이들이 이 기도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어떤 단어나 문구에 관해 설명해야 할까요?

“하느님께 대한 말씀을 올리고 그분을 향한 찬양을 올린 자리, 집, 고장, 도시, 가슴, 산, 안식처, 동굴, 골짜기, 땅, 바다, 섬, 들판은 축복을 받느니라.”³²

제 11 장

앞서 연습했던 것처럼, 제 9과에서 제 12과까지 읽으면서 도입의 말과 학생들이 암기할 인용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세요. 각 과의 초점이 되는 영적 자질의 이름을 아래 적어 보세요.

제 9과: _____

제 10과: _____

제 11과: _____

제 12과: _____

위의 네 개의 자질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각각의 특성에 관한 인용구를 성찰해 보세요. 이때 학생들이 암기할 구절을 기억해 두세요. 그런 후, 개인의 삶과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삶에서 이 자질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적어 보세요.

겸손의 자질에 대한 구절입니다.

“겸손은 영광과 권능의 천상으로 인간을 드높이나, 교만은 비참함과 타락의 깊은 나락으로 그를 떨어뜨린다.”³³

누구든 이 날에 자신의 하느님의 길을 겸허히 걸으면서 그분께 단단히 매달린 영혼은 모든 선한 이름과 지위를 누리는 영예와 영광이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³⁴

“하느님께 사랑 받는 이들은 어느 곳에 모이든, 누구를 만나든 하느님을 향한 태도와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방식에서 지극한 겸손과 순종을 드러내어 그들 발밑에 있는 먼지 입자까지 그들의 헌신의 깊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³⁵

“인간을 구별 짓는 가장 큰 특징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 .”³⁶

감사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알아두어라, 나는 거룩함의 모든 향기를 네게로 불어 주었으며, 내 말을 네게 온전히 계시하였고, 너를 통해 내 은사를 완성했으며, 나 자신을 위해 바랐던 것을 너를 위해 바랬노라. 그러니 너는 내 기쁨으로 만족하고 내게 감사하라.”³⁷

“하느님 한 분으로 그대에게 충분히 하라. 그분의 거룩한 영³⁸과 긴밀히 교제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라.”³⁸

“그러하니, 그대는 하느님께 감사하라. 그분께서 그대에게 힘을 주시어 그대가 주님의 대업을 돕게 하시고, 그대 마음의 정원에서 앎과 이해의 꽃들이 피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그분의 은혜는 그대를 온전히 감싸고, 창조계 전역을 온전히 감싸셨도다.”³⁹

“진실은 이러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자연에 전적으로 결핍된 미덕과 힘, 이상적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으니 이로 인해 인간의 지위가 높여지고, 구별되고 뛰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내려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머리 위에 관을 씌워 주셨으니 하느님께 감사해야 합니다.”⁴⁰

다음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탐구자는 죄인의 낮은 상태를 결코 경멸해서는 안 되며 그를 용서해야 한다. 이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종말이 어떠한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⁴¹

“만물의 가장 내밀한 본질이 만물 안에서 이렇게 증언하였다. ‘이날에 모든 용서는 하느님, 비할 데 없고 견줄 데 없으신 분, 만물의 최고의 보호자이시며,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께로부터 옵니다!’”⁴²

“그러므로 어느 누구의 결점도 보지 마십시오. 용서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불완전한 눈이 불완전함을 봅니다. 결점을 가려주는 눈은 영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만을 바라봅니다.”⁴³

“누구로 인해서든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그대에게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즉시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⁴⁴

다음은 우리가 열렬히 추구해야 할 정직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정직, 미덕, 지혜, 성자다운 성품은 인간의 지위를 드높이지만, 부정직, 속임수, 무지, 위선으로 그의 지위를 실추시킨다.”⁴⁵

“하느님의 도시에 있는 그분의 벗들과 하느님의 땅에 거하는 그분의 사랑받는 이들이! 이 부당히 대우받는 이는 그대들에게 정직과 경건을 명하노라. 그 빛으로 물든 도시에 복이 있다. 그 빛을 통해 인간의 지위가 높여지고, 모든 창조물의 면전에 안전의 잠긴 문이 열렸노라. 이를 굳게 붙잡고 그 미덕을 알아 본 이는 행복하다. 그 지위를 부인하는 이에게 화가 있으리라.”⁴⁶

“진실로 이르니, 신용, 지혜, 정직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단장하시는 아름다운 장신구이다. 이 아리따운 옷이 모든 사원에 어울리는 의복이다. 이 점을 이해하는 이는 행복하고, 이 미덕들을 획득한 이는 만사에 형통하다.”⁴⁷

각 묶음에서 적어도 한 개 구절을 암기하려 노력해 보세요.

제 12 장

이제 이 4개 과의 수업에서 들려줄 이야기가 영적 자질들에 대해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9과의 이야기는 압돌바하께서 어떤 부유한 방문객들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을 묘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그분의 완전한 겸손을 보여줍니다. 압돌바하께서는 어떤 걸치레나 화려함으로 대접받길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겸손을 보여주나요? 그릇, 물, 향이 나는 수건과 같은 것은 흥미로운 세부 사항일 뿐이며, 이야기를 전달할 때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그것은 압돌바하의 겸손과 사람들에게 봉사하기를 염원하시는 그분의 열망에 대해 어린이들의 이해를 어떻게 넓혀줄까요?

제 10과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어린이들은 압둘바하를 방문해 자신의 모든 고민과 비애를 털어놓기 시작한 어느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압둘바하께서는 그녀를 미르자 헤이달 알리에게 소개하십니다. 그는 인생에서 크나큰 고난을 겪었음에도 하느님께서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에 결코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 줄 때 여러분은 압둘바하께서 부인을 미르자 헤이달 알리에게 소개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를 만난 부인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 교훈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나요?

용서는 제 11과의 주제입니다. 압둘바하에 관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려줍니다. 어린이들이 생각의 흐름을 잘 따라오려면, 명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할 세부 사항이 이야기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압둘바하와 악카 도시에 있는 그분의 동반자들에게 큰 위해를 가하려는 악카의 주지사가 등장합니다. 압둘바하께서는 주지사의 행동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그를 친절하게 대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를 도와주십니다. 어린이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압둘바하께서 보여주신 용서는 우리를 부당하게 대한 이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지 않는 것, 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이 점을 이해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 12과의 이야기에서 어린이들은 압둘바하께서 마차 탑승에 부당한 가격을 요구하는 운전사에게 어떻게 응대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인에 대한 친절과 예의의 화신이셨음에도, 압둘바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직하거나 기만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운전자는 압둘바하의 응대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가 부정직함으로써 실제 잃는 것은 운전자가 잃은 상당한 팁과 같은 물질에 비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큰 것이라는 점을 어린이들이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울 것입니까?

제 13 장

동료 참여자들과 함께 제 9과에서 제 12과까지의 수업 활동을 예행 연습한 후 다음 4개 과로 넘어갑니다. 제 13과에서 제 16과까지는 다음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이 기간 매 수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이 사람은 당신의 기쁘신 뜻의 정원에서 자라난 히아신스요, 참된 앎의 과수원에서 돌아난 나뭇가지입니다. 은사를 베푸시는 주여, 생기를 불어넣는 당신의 산들바람으로 그를 늘 새롭게 해 주시고, 당신의 은총의 구름이 뿔어내는 비로 그가 푸르고, 싱싱하고, 번성하게 하소서. 친절하신 주여!

“진실로 당신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⁴⁸

다음은 제 13과에서 제 16과의 수업 중에 학생들이 암기할 기도문입니다. 학생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새롭거나 익숙지 않은 단어나 문구를 확인하고 그것을 설명해

줄 적절한 문장을 고안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기도가 전달하고 있는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것입니다. 또 그것은 이 부분의 수업에서 여러분이 암송할 기도의 내용과 잘 부합할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정원에 이 어린 묘목을 심어 주시고, 주님의 자애의 샘에서 물을 주시며, 주님의 은총과 은혜의 단비로 그가 튼실한 나무로 자라게 해 주소서.

“당신은 막강하시고 강력하시옵니다.”⁴⁹

제 14 장

동료 참여자들과 함께, 이제껏 해 왔던 방식으로 제 13과에서 제 16과의 수업 내용을 읽고, 이 부분에 소개된 영적 자질의 이름을 적어 보세요.

제 13과: _____

제 14과: _____

제 15과: _____

제 16과: _____

다음 인용구는 여러분이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들 수업에서 논의되는 영적 자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홀히 여기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홀의 빛으로 비취 주시와 그 빛으로 마음들이 깨끗해지고 순수하게 되어, 주께서 내리시는 확증의 자기 뭇과 일부분을 취하게 하소서.”⁵⁰

“서로를 공홀히 여기십시오. 그리하면 마치 등잔에서 흘러나온 빛과 같이 그대의 행동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⁵¹

“그대들은 한 나무의 열매요 한 가지의 잎사귀입니다. 그러니 공홀과 친절로 전 인류를 대하십시오.”⁵²

“이제 하느님의 연인들은 일어나 그분께서 명하시는 것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인류의 자녀에게 인자한 아버지가 되고, 젊은이를 공홀히 여기는 형제가 되며, 연로한 사람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자손이 되십시오.”⁵³

초연의 자질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권고 받습니다.

“나 외의 일체에 대한 애착을 끊고, 네 얼굴을 내 얼굴로 향하라. 이것이 네가 소유한 모든 것보다 더 나으리라.”⁵⁴

“세상의 것들과 그 헛된 장식품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들에 대한 소망을 품지도 말라.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 하느님의 기억에 온전히 의지하라.”⁵⁵

“초연의 본질은 인간이 자신의 주님의 긍정으로 얼굴을 향하고, 그분의 현존에 도달하며, 그분의 용안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⁵⁶

“초연은 태양과 같다. 이 빛이 비추기만 하면 어떤 마음이든 그 안의 탐욕과 자아의 불을 끌 수 있다. 이해의 빛으로 시야가 밝아진 눈을 가진 사람은 확실히 세상과

그 안의 헛된 것으로부터 초연할 것이다....세상과 그 추악함에 그대는 슬퍼하지 말라.
부자라고 거만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슬퍼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다.”⁵⁷

만족의 자질에 대해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설령 네가 광대한 우주를 질주하고, 광막한 천상을 횡단한들 우리
계명에 순종하고 우리 얼굴 앞에 겸손하지 않고는 어디서도 안식을 찾지 못하리라.”⁵⁸

“걱정의 진수야, 모든 탐욕을 제쳐놓고 만족을 구하라. 탐하는 사람은 늘 빼앗겼고,
만족하는 사람은 늘 사랑과 칭찬을 받았노라.”⁵⁹

“그러므로 묵종과 단념의 길을 걸으십시오. 어떤 고난에도 슬퍼하지 말고, 세상의
선물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뜻하신 것이면 무엇에나 행복해 하고 만족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 마음과 영혼이 평온을 찾고, 그대 내면과 양심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십시오.”⁶⁰

친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밝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내 기쁜 뜻의 낙원에서 너희가 친목과 조화로 서로 사귀길 보기 원하고,

너희의 행위에서 친절과 융합, 자애와 우의의 향기를 맡기를 원하노라.”⁶¹

“외양으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친절하십시오. 하느님께 사랑받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주의를 모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가 되고, 주님의 은혜가 되십시오. 자신이 가는 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에게 뭔가 선을 베풀고, 뭔가 유익이 되십시오.”⁶²

“... 사람들이 하느님 뜻을 거슬러, 어째서 서로에게 불의하고 불친절해야 합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적개심과 미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까? 하느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 모두를 창조하시고, 단련하시고, 베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애는 신성의 정책입니다.”⁶³

“말로만 우정을 언급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지니, 그대가 가는 길에서 마주친 모든 이들을 향한 자애의 열기로 그대의 가슴이 타오르게 하라.”⁶⁴

위의 각 묶음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구절을 암기하세요.

제 15 장

제 13과에서 제 16과까지에서 다룬 영적 자질에 대해 이해를 심화했으니, 이제 여기서 소개될 네 개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고, 아래 질문에 대해 그룹과 함께 논의해 보세요.

제13과의 주제는 긍휼입니다. 여러분이 들려줄 이야기는 압둘바하께서 머무시던 집에서 그분을 만나길 바라며 문을 두드렸으나 거절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여성에 대한 그분의 긍휼하심을 보여 주나요? 이야기를 따라

가면서, 공허히 여기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관심을 보내지만, 특히 고난, 괴로움,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어린이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세부 사항은 무엇입니까?

제 14과는 초연이라는 영적 자질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이야기에는 성지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한 두 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부유하고 다른 한 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연의 자질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어린이들은 성지로의 여행이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감을 상징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초연함은 우리가 소유한 것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 그보다 우리의 소유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데 방해가 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점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나요?

제 15과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만족이라는 자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압둘바하께서 요새 도시인 악카에 갇혀 계시는 동안 봉사의 길을 걸으셨기에 행복하셨다고 동반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말씀은 아이들이 만족의 자질을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압둘바하의 정신은 가두어질 수 없었음을 그들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 16과에서 분노와 증오에 휩싸인 악카의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여러분이 강조해야 할 특정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들은 그것이 친절이라는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무엇인가요? 압둘바하께서는 당신께 그토록 오랫동안 분노와 증오를 마음에 품었던 사람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나요?

제 16 장

제 13과에서 제 16과에 대한 분석이 유익하고, 동료 참여자와 함께 한 수업의 예행 연습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제 17과에서 제 20과까지의 수업 시간에는 매번 다음 기도의 암송으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주님의 이 좋은 주님을 향해 나아 왔고, 주님의 봉사의 길을 걷고,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주님의 은사를 소망하며, 주님의 왕국에 기대며,

주님의 선물의 술에 취한 채 주님의 사랑의 사막을 애타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열기와, 주님을 향한 그의 한결같은 찬미와,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열정을 더해 주소서.

진실로 당신은 가장 관대하시고 풍성한 은총의 주님이십니다. 용서하시고 자비하신 분, 당신 한 분밖에 달리 하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⁶⁵

이번 네 과의 수업에서는 어린이들이 아래 기도문을 암송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여타 과의 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암기할 단어에 대해 일정한 이해력을 얻도록 어떻게 도울지 노트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도문은 이전 기도문보다 길이가 더 깁니다. 네 과의 수업 기간 동안 어린이들이 기도문을 암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떻게 필요한 조정을 가할지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하느님, 당신의 이름은 저의 치유이오며, 당신을 기억함은 저의 치료입니다. 당신께 가까이 감이 저의 소망이며, 당신을 사랑함은 저의 반려입니다. 제게 베풀어 주시는 당신의 은총은 저의 치유이며, 현세와 내세에 저의 구원입니다. 주여, 진실로 주께서는 가장 관대하시고, 전지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⁶⁶

제 17 장

이제 제 17과에서 제 20과까지의 내용 검토를 시작하면서, 한 번에 한 과씩 읽은 후, 어린이들과 함께 탐구하게 될 영적 자질들의 이름을 적어 보세요.

제 17과: _____

제 18과: _____

제 19과: _____

제 20과: _____

아래는 여러분과 동료 참여자들이 이들 영적 자질의 중요성에 대한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인용구입니다. 개인의 삶의 차원뿐 아니라, 여러분처럼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용기의 자질에 관해 우리는 이러한 권고를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온전히 거룩한 왕국을 향하여, 타고난 용기와 이상적 힘을 획득하도록 하십시오.”⁶⁷

“마음이 상한 이에게 그대가 위안의 원천이 되기를. 방황하는 이에게 그대가 피난처가 되기를. 두려움에 떠는 이에게 그대가 용기의 원천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느님의 은총과 원조에 힘입어 인류의 행복의 기^旗가 세계의 한복판에 올려지고, 보편적 합의의 깃발이 펼쳐지기를.”⁶⁸

소망의 중요성에 관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의 모든 소망을 하느님께 두고, 그분의 틀림없는 자비를 굳게 붙들라. 그분 말고 그 누가 궁핍한 자를 부하게 하고, 타락한 자를 비천에서 구할 수 있는가?”⁶⁹

“움직이는 형체의 먼지야! 나는 너와 사귀길 원하나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네 반역의 칼이 네 소망의 나무를 베어 버렸구나. 나는 모든 때에 네 곁에 가까이 있었으나, 너는 여전히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해 불멸의 영광을 정해 놓았음에도, 너는 한없는 수치를 스스로 택했구나.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돌아와 너에게 남아 있는 기회를 잃지 말라.”⁷⁰

“인간은 어떤 여건 하에서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십시오.”⁷¹

“하느님께서 주시는 축복에서 마음이 돌아서서 어떻게 행복을 바랄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자비에 소망과 신뢰를 두지 않으면서 어디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느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은사는 영속합니다. 그분의 축복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을 능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⁷²

신용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여! 오늘날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빼어난 옷은 신용이다. 모든 은사와 영예는 이 가장 뛰어난 장식으로 스스로를 단장한 영혼의 뒤편이다.”⁷³

“신용은 인류의 도시를 보호하는 요새와 같고, 인간 사원에 눈과 같다. 이를 얻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자는 그분의 보좌 앞에서 눈 먼 자로 간주된다.”⁷⁴

“그대들은 모든 땅에서 하느님이 드러내신 신용의 시현자가 되라. 그대들은 이 자질을 완벽하게 되비추어, 설령 금으로 뒤덮인 도시를 가로지르지라도 단 한 순간도 그 유혹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⁷⁵

불붙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벗들이여! 오늘날 그대들 모두 하느님의 사랑의 불길로 타올라, 그대들의 모든 혈관, 사지, 몸의 각 지체에 그 열기가 확연히 드러나고, 세계 모든 민족들이 그 열기에 불붙어 가장 사랑받는 분의 지평선을 향하게 되어야 한다.”⁷⁶

“그대 영혼이 세계의 심장부에서 불타오르는 이 꺼지지 않는 불길로 환히 빛나야 한다. 그래서 우주의 어떤 물로도 그 열기를 식힐 수 없게 하라.”⁷⁷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 창조계의 심장부에 점화하신 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라. 그대를 통하여 그분의 총애 받는 이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의 열기가 불붙게 하라. 나의 길을 따르고, 전능자이시요 가장 존귀하신 분, 나에 대한 기억으로 인간의 마음이 황홀해지게 하라.”⁷⁸

“사랑의 불을 붙여 일체를 태워 버리라. 그런 다음 연인들의 땅에 발을 내디려라.”⁷⁹

위의 각 묶음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구절을 암기해 보세요.

제 18 장

이제 제 17과에서 제 20과까지의 수업에서 들려줄 이야기를 검토할 차례입니다. 각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은 후, 그룹의 다른 일원과 함께 아래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제 17과에서는 부패한 관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도록 설득당하지 않았던 알리 아스카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들은 이미 거짓말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그들은 하느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용기의 원천이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어떤 세부 사항이 이러한 연결을 보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따라가고, 중요한 점을 이해하게 하려면 사건을 설명할 때 어떤 세부 사항이 강조되어야 할까요?

제 18과에서는 소망의 자질을 다루며, 낙담했던 한 남성이 압돌바하를 만나 소망을 회복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압돌바하께서는 남성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그가 하느님의 왕국에서 부자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느님의 왕국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큰 부를 소유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압돌바하께서 남성을 일깨워 주심으로써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어떻게 더욱 튼튼해졌나요?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소망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어린이들이 인식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제 19과의 주제는 신용이며, 수업에서 이 자질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은 압둘바하께서 성지에서 우편물을 수령하고 발송하는 임무를 맡기신 무함마드 타끼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스토리 텔링에서 명심해야 할 세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무함마드 타끼를 묘사할 때 “믿음직함”과 “신뢰할 수 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부주의함과 신용의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갖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 20과의 이야기는 불붙음의 자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 토마스 브레이크웰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불 켜진 촛불, 타오르는 불꽃, 화염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강도, 곧 불붙음의 자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유로, 성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학생들이 불붙음이 의미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이해하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추상적 사고 능력은 유년기에도 발견되며, 언어 능력의 발달과 함께 개발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토마스 브레이크웰이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의 불로 타오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의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드는 세부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 19 장

여러분과 동료 참여자들은 제 17과에서 제 20과까지의 수업 예행연습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제 1단계 교실을 마무리할 제 21과부터 제 24과까지 수업 내용의 검토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매 수업 시간을 시작할 때 이 기도문을 암송하실 것을 권합니다.

“저에게 순결한 마음을 만들어 주소서, 저의 하느님, 제 안에 고요한 양심을 다시 새롭게 해 주소서, 저의 희망이시여! 힘의 정신으로 저를 주님의 대업 안에 굳건하게 하소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임이시여!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주님의 길을 제게 계시해 주소서, 주, 제 소망의 목표이시여! 주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저를 주님의 신성의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게 하소서, 제 존재의 모태이시여! 주님의 영원의 미풍으로 저를 기쁘게 하소서, 저의 하느님, 주님이시여! 주님의 영원한 노랫가락으로 저에게 평안을 주소서, 저의 동반자이시여! 주님의 오랜 용안의 풍성하심으로 주님 밖의 모든 것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저의 주님이시여! 그리고 주님의 썩지 않는 본질의 계시로 저를 기쁘게 하소서, 명백한 것 중에 가장 명백하시고, 숨겨진 것 중에 가장 깊숙이 숨겨진 분이시여!”⁸⁰

다음은 이 단계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암기할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은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게 느낄 만한 단어나 문구를 어떻게 설명할지 결정하세요.

“친절하신 주여! 저는 어린 아이오니 왕국으로 받아 주시어 저를 높여 주소서. 저는 땅에 있사오니, 하늘에 속하게 하소서. 저는 낮은 세계에 있사오니, 높은 왕국에 속하게 해 주소서. 저는 슬픔에 잠겨 있사오니, 제가 빛을 발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저는 물질적이오니 영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제가 주님의 무한한 은총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은 강력하시고 만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⁸¹

제 20 장

1단계 교실에서 가르칠 마지막 네 과의 내용을 읽으세요. 이제껏 그래왔듯이, 학생들이 암기하게 될 인용구를 소개할 때 그들과 나눌 이야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각 과의 수업에서 중점을 두는 자질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제 21과: _____

제 22과: _____

제 23과: _____

제 24과: _____

아래의 인용구는 여러분과 그룹 일원들에게 마지막 네 과의 수업에서 다룰 영적 자질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빛남의 자질이 갖는 중요성에 관한 성서의 구절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불꽃이여! 빛줄기는 빛을 발해야 하고 태양은 떠올라야 한다. 보름달은 휘영청 밝아야 하고, 별은 은은히 빛을 내야 한다. 그대는 한 줄기 빛이니, 주님께 간청하여 그대가 빛을 비추고, 어둠을 걷어내게 해 주시길, 지평선을 밝히고 하느님의 사랑의 불로 세계를 남김없이 소진하게 해 주시길 구하라.”⁸²

“사람들아, 빛과 기쁨 안에서 서로와 더불어 살아가라.”⁸³

“만유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인간으로 하여금 신성의 빛을 발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세계를 밝히도록 정하셨습니다.”⁸⁴

“인류에 대한 봉사가 곧 하느님께 바치는 봉사입니다. 거룩한 왕국의 사랑과 빛이 그대를 통해 퍼져나가, 그대를 보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의 반사로 밝아지게 하십시오.

천상에 있는 자신의 높은 자리에서 찬란히 반짝이는 별과 같이 되십시오.”⁸⁵

아래의 구절을 통해 충직의 자질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대 위에, 모든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과, 한결같고 충직한 모든 영혼 위에 임하리라.”⁸⁶

“그대는 자비로우신 분의 시녀들에게 전갈을 보내, 시험이 한층 격렬해질 때 그들이 흔들림 없이 바하에 대한 사랑에 충직하게 남아 있어야 한다고 이르시오. 한겨울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도, 반드시 그 뒤에 봄이 오리니, 향기로운 풀과 붉은 아네모네가 언덕과 평원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모든 아름다움이 만개할 것이니 보기에다 좋을 것입니다.”⁸⁷

“오늘날 주님의 문턱에서 충애를 받는 이는 충직의 잔을 돌리는 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적에게조차 은사의 보석을 내리고, 쓰러진 자신의 압제자에게조차 도움의 손을 내밉니다. 그는 가장 사나운 적들에게조차 사랑하는 친구입니다.”⁸⁸

인내에 관한 구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모든 것에는 징표가 있노라. 사랑의 징표는 내 명에 충직함이요, 내 시련에 인내함이다.”⁸⁹

“굳건하게 견디는 이들, 불행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이들, 자신에게 닥친 어떤 것에도 한탄하지 않는 이들, 단념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⁹⁰

“철회될 수 없는 명으로 내가 정한 뜻에 만족하라. 그리고 인내로 견디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라.”⁹¹

“누구든 가장 높은 지평선을 향해 얼굴을 돌린 이는 인내의 끈을 굳게 붙들고, 위협에서 도와주시고,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으시는 분, 하느님께 의지함이 마땅하다.”⁹²

굳건함에 관한 구절입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분을 알아봄 다음으로 주어진 인간의 최우선 의무는 그분의 대업에 대한 굳건함이다.”⁹³

“하느님의 대업에 굳건함은 세상 그 무엇도 그대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함을 방해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⁹⁴

“그대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한 걸음을 내딛고, 그분의 신앙 안에서 끈게 나아가며, 그대가 지닌 발언의 힘으로 그분을 도우라.”⁹⁵

“우리가 굳건한 걸음으로 확신의 길을 걷게 되기를, 그래서 하느님의 기쁘신 뜻의 초원에서 신성한 가냘픈 달콤한 향기를 실은 미풍이 혹 우리에게로 불어와, 사라지고 말 유한자인 우리가 영속하는 영광의 왕국에 도달하게 되기를.”⁹⁶

“그대들은 확신하고 굳건하십시오. 그대들이 고귀한 의도와 순수하고 가치 있는

목적은 지녔으니, 그대들의 봉사에 하늘의 권능이 확증을 내릴 것입니다.”⁹⁷

각 묶음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구절을 암기하기 바랍니다.

제 21 장

여러분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낸 어린이들은 이제껏 배운 영적 자질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들려줄 마지막 4개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읽은 후, 그룹과 함께 아래 질문에 대해 논의하기 바랍니다.

제 21과에서 아이들은 도로시 베이커가 압돌바하를 처음 만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발산한 광휘에 도로시가 어떻게 매료되었는지에 관해 아이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압돌바하의 광휘는 도로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압돌바하에 대한 어린이들의 애정이 어떻게 커지기를 바라나요?

제 22과의 주제는 충직입니다. 이스판디아르의 이야기에서 그 자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이 주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나요? 이스판디아르가 계속해서 충직하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에게 도움을 준 또 다른 영적 자질들은 무엇인가요? 이야기를 들려줄 때 여러분은 어떤 세부 사항을 꼭 포함시키고 싶습니까?

제 23과는 인내의 자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복숭아나무가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성장하는 동안 리신은 나무를 돌보며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이는 인내로부터 얻는 기쁨을 강조하고, 우리가 결과를 맛보기 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어린이가 영적 자질로서 인내를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 줄 때 어떤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싶습니까?

제 24과에서는 압돌바하의 여동생 바히예 카눔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이야기는 그분이 역경 속에서 어떤 굳건함을

드러냈는지 보여줍니다. 이때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에 굳건함은 특정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내포한 자질임을 어린이들이 알기를 바랄 것입니다. 바히예 카눔의 삶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이 하느님의 대업에 굳건함이 요구하는 강인함과 한결같음을 엿볼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제 22 장

이 단원에서 여러분은 1단계 교실의 어린이들과 함께 탐구하게 될 영적 자질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들의 성품 계발에 기여하려는 소망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칠 24과 수업내용의 여러 요소들을 실습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학생들이 1단계 교실을 통해 얻게 될 모든 영적 자질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수업은 의도의 순수함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굳건함에 초점을 맞춰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어린이교육에 착수하면서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굳건함이 그들 안에 잠재된 모든 자질들의 보석을 드러내는 지속적인 노력에 어떤 도움을 줄 지 종종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린이교실
24과 수업내용

제 1 과

A. 기도 낭송과 암기

신성한 축복을 끌어당기고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암기하는 기도한 편을 암송하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하세요. 제 2장에 소개되었던 기도가 좋습니다. 기도를 암기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지 수업에서 어린이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은 아래의 기도문을 암기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문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야 할 단어들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이 기도문을 쉽게 익힐 것입니다. 그래도 이후 세 번의 수업을 시작할 때 이 기도문을 복습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 5과 수업에서 새 기도를 배울 시점에는 이 기도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제게 진주같이 순수한 마음을 내려 주소서.”⁹⁸

처음 몇 번의 수업에서 어린이들이 외울 기도는 길이가 짧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 2장에서 경건함과 기도의 본성에 대해 성찰한 내용을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기회가 충분할 것입니다.

B. 노래

기도 시간 후에 어린이들은 아래의 노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과의 주제인 순수한 마음에 관한 노래로, 어린이들이 암기할 인용구에 음률을 붙였습니다. 몇몇 단어는 어린이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러분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동안 어린이들은 처음 네 줄을 노래하게 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권고이니

C/B Am C/B
영靈의 아들이!

C/B Am C/B
영의 아들이!

F G
이것이 나의 첫 번째 권고이니

F G
이것이 나의 첫 번째 권고이니

F G C Am
순수하고 친절하며 빛나는 마음을 지니어라

F G C Am
그래야만 태고부터 불멸하고 영속하는

F G C
주권이 네 것이 될 수 있노라

C. 인용구 암기

다음 활동으로, 어린이들은 바하이 성서에서 발췌한 인용구를 외울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수업 주제와 암기할 인용구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원망을 품는 것,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 무슨 이유에서든 누군가를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마음의 거울 면에 쌓이는 먼지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순수할수록 우리 마음은 하느님의 빛과 그분의 속성들, 즉 친절, 사랑, 너그러움과 같은 속성들을 잘 되비출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 바하올라의 다음의 말씀을 암기해 봅시다.

“영^靈의 아들아! 이것이 나의 첫 번째 권고이니, 순수하고 친절하며 빛나는 마음을 지니어라...”⁹⁹

아이들이 인용구를 잘 이해하면 할수록 암기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단어와 구절의 의미에 대한 설명에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아래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문장의 사례입니다.

권고

1. 제라르와 메리가 색칠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제라르는 노란 색연필이 필요한데 메리는 주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메리에게 색연필을 친구와 나눠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메리에게 좋은 권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2. 패트리샤는 용돈으로 과자를 살지, 동화책을 살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패트리샤의 부모님은 동화책을 살 것을 권하셨습니다. 패트리샤는 부모님께 좋은 권고를 받았습시다.

지니다

1. 티나는 잠들기 전에 기도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티나는 작은 기도책 한 권을

- 갖고 있습니다. 티나는 작은 기도책 한 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2. 홍수가 나자 많은 사람이 자신이 지녔던 소중한 물건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와서 도움을 주어, 필요한 것들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마음

1. 캐티가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애고트에게 불친절한 말을 했습니다. 애고트는 슬펐지만, 곧 마음에서 캐티를 용서했습니다. 애고트는 순수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2. 조르주는 과자를 친구들과 늘 나눠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과자를 나눠 먹지 않는 구스타보에게도 나눠 줍니다. 조르주의 마음은 순수합니다.

친절한 마음

1. 밍링의 부모님이 집으로 친구를 초대하시면 밍링은 그분들께 음식을 대접합니다. 밍링은 친절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2. 로버트슨씨는 연세가 많습시다. 지미는 로버트슨씨가 추수한 과일을 가게까지 운반해 드립니다. 지미는 친절합니다.

빛나는 마음

1. 내 마음이 슬퍼지면, 어머니는 늘 내 기분을 북돋아 주시고 즐겁게 해 주십니다. 어머니는 빛나는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2. 오부야는 아파서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오부야는 기도하고, 슬퍼하지 않으며,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해 줍니다. 오부야는 빛나는 마음을 지녔습니다.

D. 이야기

어린이들이 인용구를 암기한 후, 순수한 마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압돌바하의 일화를 들려주세요. 압돌바하에 관해 잘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분에 관해 소개하는 몇 마디 말을 간략히 준비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들려주기를 잊지 마세요.

압돌바하께서는 언제나 마음을 읽을 수 있으셨고 순수하고 빛나는 마음을 지닌 이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압돌바하의 저녁 식사에 초대 받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압돌바하의 지혜로운 말씀을 경청하며, 그는 자신 앞에 놓인 유리잔을

보고 이러한 간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잔을 비우고 새 물로 가득 채우듯, 압둘바하께서 내 마음 안의 세속적 욕망을 모두 비워 주시고 하느님의 사랑과 깨달음으로 다시 채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은 한 순간 그의 마음을 지나갔을 뿐, 그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는 그분이 자신의 마음 속 생각을 읽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압둘바하께서 잠시 말씀을 중단하시더니 시중들던 이를 부르시고 페르시아로 몇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그의 자리로 와서 앞에 놓인 잔을 가져가 비우고, 다시 갖다 놓았습니다.

잠시 후 압둘바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식탁 위에 있는 물병을 집어 자연스럽게 그의 앞에 놓인 빈 잔을 천천히 다시 채우셨습니다. 아무도 그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나 그는 압둘바하께서 자신의 가슴 속 열망에 응답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사람의 가슴과 마음이 압둘바하께서는 마치 펼쳐져 있는 책과 같다는 것, 그분은 큰 사랑과 친절로 그것을 읽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E. 게임: “나눔”

다음 활동으로, 자동차 타이어를 바닥에 놓고 몇 명이 동시에 그 안에 설 수 있을지 물어봅니다. 타이어 대신 매트나 수건, 유사한 물건을 바닥에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선택하든, 학급의 많은 어린이가 그 게임을 도전적으로 느낄 만큼 작아야 합니다.

F. 색칠: 그림 1

게임을 마친 후, 여러분은 어린이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색칠활동을 위해 색칠용지 복사본을 한 장씩 나눠줍니다. 용지 하단에는 그들이 암기했던 인용구가 적혀 있다고 알려 줍니다. 용지 속 그림이 이 과의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미리 준비한 말을 몇 마디 해 주세요.

G. 마침기도

수업을 마칠 때 두 세 명의 아이들에게 알고 있는 기도나, 암기하고 있는 인용구를 암송하도록 요청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침기도로 수업을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제 2 과

A. 기도 낭송과 암기

이 수업과 다음 두 번의 수업에서는 제 1과의 서두에 암송했던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기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미리 몇 명의 어린이에게 암기하는 기도를 한 편씩 낭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전 과에서 소개했던 기도를 계속해서 어린이들이 암기하도록 도와주세요.

B. 노래

어린이들은 노래 두 곡을 부릅니다. 하나는 이전 과에서 소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에 제시된 정의에 관한 새로운 노래입니다. 바로 이 과의 주제입니다.

고귀한 길

D
정의는 고귀한 길

A D
정의가 있으면 더 밝은 하루

G D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그 빛 비추고

A D
선한 행실로 세상에 그 빛 밝히세

D A D
정의가 곧 길이라네

D
압돌바하는 늘 나눠 주셨네

A D
사랑과 배려를 베푸셨네

G D
언제나 적은 것으로 만족하셨네

A D
행복을 가져다 주시려고

D A D
언제나 적은 것으로 만족하셨네

D
정의로우려면 우린 베풀어야 해

A D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나눠야 해

G D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눌 때

A D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네

D A D
정의가 곧 길이라네

C. 인용구 암기

노래 부르기 후에 바하올라의 말씀을 암기하게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하세요.

“너희는 정의의 길에 발을 내디뎌라. 진실로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이다.”¹⁰⁰

위의 인용구를 암기하기 전에 어린이들이 이 문장의 뜻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게 합니다. 아래에 몇 개 예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발(걸음)을 내딛다

1. 숲 속 나무에서 많은 잎이 떨어져서 길을 뒤덮었습니다. 푸미코는 숲속을 걷습니다. 푸미코는 나뭇잎으로 뒤덮인 길에 발을 내딛습니다.
2. 페드로는 친구들이 어울려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친구들을 돕는 걸 좋아합니다. 페드로와 친구들은 사이가 좋습니다. 페드로는 화합의 길에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길

1. 루이스에게는 나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는 나귀가 풀을 뜯을 수 있도록 목장으로 데려가 홀로 두고 왔었습니다. 그러자 나귀는 혼자서도 길을 잘 찾아 집에 돌아 왔습니다.
2. 학교에 가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밀리는 늘 할머니 댁을 지나 갈 수 있는 길을 택해 등교합니다.

정의

1. 칼로스는 수업 중에 색연필을 받아 친구들에게 나눠 줍니다. 친구들은 다섯 명이고, 색연필은 열 자루입니다. 칼로스는 친구들에게 똑같이 두 자루씩 나눠 줍니다. 칼로스는 각자에게 제 몫을 정의롭게 나눠 주었습니다.
2. 안나의 집 마당의 우물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옆집 우물은 이따금 말라 버릴

니다. 이웃집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나는 우물물을 이웃과 나눕니다. 안나는 정의를 사랑합니다.

D. 이야기

어린이들이 인용구를 암기하는 법을 배운 후, 압둘바하에 관한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느 날 압둘바하께서 악카에서 하이파까지 이동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값싼 운임의 마차를 타시길 원했습니다. 마부는 압둘바하께 그렇게까지 검소하실 필요가 있는지 의아해 하며 호소했습니다. “예하께서는 개인용 마차로 여행하시는 게 더 편안하실텐데요.” 사부께서는 “아니요”라고 답하시고, 혼잡한 마차로 하이파까지 이동하셨습니다. 하이파에 도착해 그분이 하차하실 때, 허약해 보이는 한 여성 어부가 그분께 다가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굶고 있는 가족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압둘바하께서는 여성에게 넉넉한 돈을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곤 마부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어찌 내가 호화로운 마차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E: 게임 “타는 목마름”

이야기 시간을 마친 후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의 팔에 막대기를 고정해 팔꿈치를 구부릴 수 없게 합니다. 이제 그들이 사막을 걷고 있는데 아주 많이 목이 탄다고 상상해 보라고 알려 줍니다. 여러분은 그들 앞에 물이 담긴 잔을 놓아둡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이때 친구의 웃이 젖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F. 색칠: 그림 2

색칠활동을 위해 용지를 배포합니다. 색칠용지 하단에는 그들이 암기한 인용구가 적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색칠 그림이 이 과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몇 마디 설명해 줍니다.

G. 마침기도

어린이들이 색칠을 마치면 몇 명에게 기도문 한 편이나, 또는 이전 수업이나 오늘 수업에서 암기했던 인용구를 암송하도록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마침기도를 낭송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제 3 과

A. 기도 낭송과 암기

여러분이 암기하는 기도문 한 편을 암송하는 것으로 이 과의 수업을 시작합니다. 미리 요청한 몇 명의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그런 후 어린이들이 제 1과에서 배우기 시작한 기도문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B. 노래

지난 두 번의 수업에서 배웠던 노래 두 곡을 어린이들과 함께 부릅니다. 아래의 노래를 가르쳐 주세요. 노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C F
우리 모두

G C
사랑합니다

C F
사랑으로

D7 G
시작된 세상

C F
하느님께서

C G
사랑하시는 것처럼

C F
우리 모두

G C
사랑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선입니다
사랑은 형제애의
씨앗이지요
하느님께선
당신과 인류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네

하느님의 창조를
사랑합니다

모든 인류는
빛나는 별들
하느님께선
당신과 인류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네

C. 인용구 암기

인용구를 소개하면서 이 과의 주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인류 위에 햇빛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햇빛은 사막이건 초원이건 가리지 않고 똑같이 쏟아집니다. 그 온기를 통해 비옥한 땅에서 씨앗이 자라고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슴 속에도 깨끗한 땅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느님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자라납니다. 하느님의 자애로운 보살핌의 온기를 받고 자라면 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널리 퍼지고,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친절한 이들에게도 우리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 인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바하올라의 다음 말씀을 암기해 봅시다.

“벗이여! 그대 가슴의 동산에 사랑의 장미 밖에 달리 아무 것도 심지 말라...”¹⁰¹

어린이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구절은 ‘- 밖에 (달리 아무 것도)’, 이것 하나뿐입니다.

- *밖에*

1. 디네오는 해와 꽃에 대한 노래를 즐겨 부릅니다. 디네오는 늘 이 노래만 부릅니다. 그는 해와 꽃에 대한 노래 밖에 달리 어떤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다.
2. 타젠은 강가에 놀러가고 싶었지만, 집안일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타젠이 일을 끝마치지 않은 채 놀러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타젠은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타젠의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아버지 말씀대로 일을 먼저 마치지 않으면, 다 놀고 난 후엔 후회 밖에 남는 것이 없단다.”

D. 이야기

인용구를 암기한 후에는 다음의 이야기를 어린이들에게 들려줍니다.

압둘바하께서 감옥도시 악카에 계실 때, 압둘바하께 몹시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압둘바하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바하이들이 아무리 열악한 대우를 받아도 하느님은 개의치 않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는 바하이에게 증오를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전심을 다해 압둘바하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증오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부서진 항아리에서 물이 새듯이 때때로 그의 증오심은 그의 마음에서 흘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 모스크에 모일 때 그는 그곳에서 큰 소리로 압둘바하에 대해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길에서 압둘바하를 마주치면, 그는 그분을 보지 않으려고 옷자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우 가난해서 먹을 것도 입을 옷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압둘바하께서는 그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그분은 그를 친절하게 대하셨고, 그에게 음식과 옷을 보내시고, 그가 언제나 돌봄을 받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그가 병으로 앓아 누었을 때 압둘바하께서는 그에게 의사를 보내시고, 약과 음식 값을 지불하셨으며, 약간의 돈도 주셨습니다. 그는 압둘바하로부터 온 선물들은 받으면서도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 의사에게 한 손을 내밀어 자신의 맥을 짚게 하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압둘바하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그의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압둘바하께서 계신 집으로 찾아와, 무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펴펴 흘리면서 그분의 발 앞에 주저앉아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24년 동안 저는 선생님께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께서는 24년 동안 제게 오직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십시오!” 압둘바하의 큰 사랑이 증오에 대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E. 게임: “다리”

긴 의자, 판지, 벽돌이나 타일을 이용해 바닥에 선을 표시하고, 그것을 ‘다리’라고 부릅니다. 두 그룹으로 나뉜 아이들이 동시에 양쪽 끝에서 출발해 다리를 건너게 하는데, 이때 다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들은 차례로 위치를 바꾸면서 통과할 수 있게 서로를 도와야만, 모두가 성공적으로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F. 색칠: 그림 3

게임 활동을 마친 후 어린이들에게 이 과의 색칠용지를 나눠 줍니다. 그림이 이번 과의 수업의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간단히 이야기해 주는 것을 기억하세요.

G. 마침기도

어린이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게 하고, 그 중 두세 명에게 암기하는 기도문이나 인용구를 암송하게 합니다. 여러분이나 어린이 한 명이 마침기도를 낭송합니다.

제 4 과

A. 기도 낭송과 암기

시작기도로 수업을 시작한 후, 앞선 세 번의 수업에서 암기한 기도문을 복습합니다.

B. 노래

아이들과 함께 이전 수업에서 배웠던 노래들을 불러 본 후, 아래의 새 노래를 함께 익혀 봅니다. 진실성에 관한 노래입니다.

진실한 말

G D
먼지 덮인 거울은

A D
태양을 되비출 수 없어

G D
날개에 흙이 묻은 새는

A D D7
하늘을 날 수 없어

합창:

G D
우리의 말이 늘 진실할 때

A D D7
우리의 영혼은 진보할 수 있어

G D
인간 모든 미덕의 토대는

A D
다름 아닌 진실성이야

합창

찢어진 돛단배는
바람을 가를 수 없어
장막으로 가려진 눈은
길을 볼 수 없어

합창 (마지막 행 반복)

C. 인용구 암기

이 과 수업의 주제와 아이들이 암기할 인용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실성은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자질 중 하나입니다. 설사 아무도 알아낼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사소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시기에, 그분 앞에는 아무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정의, 사랑, 친절과 같은 여타 자질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압돌바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암기해 봅시다.

“진실성은 인간 모든 미덕의 토대이다.”¹⁰²

진실성

1. 산제이는 유리잔을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을 때 산제이는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제이는 진실성 있게 행동했습니다.
2. 기타는 저녁까지 놀았기 때문에 숙제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숙제를 제출해야 했을 때 그는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기타는 진실 되게 행동했습니다.

토대

1. 알록의 아버지는 집을 짓고 계십니다. 벽을 세우기 전, 아버지는 그 자리에 돌과 시멘트를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돌과 시멘트는 집의 토대가 됩니다. 그것들은 집이 바르게 서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2. 읽기와 쓰기를 배우려면 먼저 글자의 소리를 익혀야 합니다. 글자의 소리를 익히는 것이 읽기와 쓰기 학습의 토대입니다.

미덕

1. 오로라는 우애가 있고, 예의 바르고, 친절합니다. 우애, 예의, 친절은 오로라가 지닌 여러 미덕입니다.
2. 파텔 부인은 어린이들에게 정의, 너그러움, 겸손, 정직을 가르치십니다. 이것들은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할 중요한 미덕의 일부입니다.

D. 이야기

이제 진실성에 대해 어린이들이 생각해 보도록 돕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 어느 먼 나라에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에 나가 일하시고 어머니가 집에서 일하시는 동안, 이 소년은 양을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은 무척 심심해서 이웃들에게 장난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늑대대! 늑대대!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다!” 하고 소리치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를 도와 늑대를 쫓아 주려고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와 보니 늑대는 없고 그들이 깜짝 놀라 달려 나온 것을 본 양치기 소년이 깔깔대고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소년이 매우 좋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말하며 되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소년은 같은 장난을 또 했습니다. “늑대대! 늑대가 나타났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몇몇 이웃 사람이 도와주러 달려 나왔지만, 이번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어린 양치기가 자신들을 놀리며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세 번째 날 소년은 또 다시 “늑대대!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또 다른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것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늑대가 와서 실제 양을 잡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치기는 매우 슬펐습니다. 그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에도 부모, 형제자매, 친구 누구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는 날이 오게 됩니다.

E. 게임: “촉각 전화기”

위의 이야기를 들려 준 다음, 어린이들을 한 줄로 서게 합니다. 어린이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서고, 마지막 어린이는 벽이나 나무에 매달아 놓은 종이, 혹은 가능하다면 칠판을 바라보고 섭니다. 아이는 뭔가를 적을 도구가 필요합니다. 참여 어린이 수가 많으면, 어린이들을 한 줄 이상으로 서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첫 번째 어린이 등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그립니다. 첫 번째 어린이는 두 번째 어린이 등에 같은 것을 그립니다. 두 번째 어린이는 세 번째 어린이 등에 같은 것을 그립니다. 마지막 어린이에게 도달하면, 그는 그것을 종이나 칠판 위에 그립니다. 교사는 그 옆에서 자신이 첫 번째 어린이 등에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립니다. 여러분이 그린 그림은 모든 어린이가 복제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것이어야 합니다.

D7 G7
 내게 혹은 나눠 줄 게 있는지
 누구나 행복을 바라요
 마음과 영혼을 주세요.
 그럴 때 진정
 하느님이 함께 하세요.
 매일 마음으로 찾아봐요.
 내게 혹은 나눠 줄 게 있는지

누구나 행복을 바라요
 마음과 영혼을 주세요.
 그럴 때 진정
 하느님이 함께 하세요.

C. 인용구 암기

아래에는 이 과의 주제와 인용구를 소개할 때 도움이 될 설명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피조물에게 아주 관대하십니다. 그분은 식물에게는 비를 내려 주시고, 동물과 인간에게는 먹을 양식과 영양분을 제공하십니다. 하느님은 만물을 돌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눈을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는 산과 바다, 별, 우리를 둘러싼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귀를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는 노래의 선율, 새들의 지저귀, 부모님의 조언,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또 우리 인간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관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관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음식이든, 우리가 지닌 물건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지식이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사랑, 기쁨,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좋은 것들을 서로와 나눕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도와주는 바하올라의 다음 인용구를 암기해 봅시다.

“베짱과 관대함은 나의 속성이니, 나의 미덕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는 이는 형통하다.”¹⁰⁴

관대함

1. 램과 라지슈는 약간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동생들에게 줄 책 몇 권을 사기로 했습니다. 램과 라지슈는 관대합니다.

2. 머피 부인은 아침 내내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케이크를 팔기 위해 읍내로 가기 전에 그녀는 큰 조각 두 개를 이웃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머피 부인은 참 관대합니다.

속성

1. 이 돌은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함은 돌의 속성입니다.
2. “네가 지닌 속성이 많은데, 그 중 하나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야”. 선생님은 찰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장하다

1. 오늘 저녁 센터에서 예배모임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모임 장소에 놓을 꽃을 준비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꽃으로 단장되었습니다.
2. 리 핑은 늘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의 얼굴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은 그의 따뜻한 미소입니다.

D. 이야기

이 과에서 여러분은 관대함의 개념에 대해 어린이들이 성찰해 보도록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압돌바하께서는 부친 바하올라께서 소유한 양떼를 돌보는 책임을 맡은 이들의 초대를 받아 목자들과 어울려 들판에서 한나절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당시 압돌바하는 어린 아이였고 바하올라와 그 가족이 강제로 고국을 떠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바하올라께서는 산에 큰 땅과 많은 양떼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압돌바하는 목자들의 무리에 합류하여, 그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며 잔치를 준비하는 내내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이 저물어 압돌바하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목자들이 그분 둘레에 모여 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압돌바하와 동행했던 사람은 땅과 양떼의 주인은 떠나기 전에 목자들에게 작별 선물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압돌바하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당신이 줄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동행한 사람은 목자들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압돌바하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돌보는 양들 가운데 몇 마리를 선물로 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목자들을 위한 압돌바하의 관대한 생각을 들으신 바하올라께서는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젠가 압돌바하가 자기 자신까지 내어 줄 것이니, 모두들 압돌바하를 잘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유머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더할 나위 없이 압돌바하께서 평생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도록 압돌바하께서는 생의 모든 순간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인류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E. 게임 “쌍둥이”

이야기를 마친 후 아이들은 게임을 합니다. 어린이들을 둘씩 짝을 이룹니다. 되도록 비슷한 키의 아이들이 짝을 이루게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짝과 서로 등을 맞대고 선 다음 쪼그리고 앉게 합니다. 그 다음 서로 팔꿈치를 걸어 놓은 상태로 같이 일어섭니다. 일단 두 명의 짝이 성공하면, 서너 명의 어린이를 그룹 지어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F. 색칠: 그림 5

마지막 활동으로, 색칠용지를 나눠주고 색칠하게 합니다.

G. 마침기도

이제껏 해 왔던 대로 여러분과 몇 명의 어린이가 기도로 수업을 마칩니다.

제 6 과

A. 기도 낭송과 암기

여러분과 어린이 몇 명이 암기할 수 있는 기도로 수업을 시작한 후, 계속해서 제 5과에 소개된 기도를 암기합니다.

B. 노래

어린이들에게 아래의 노래를 가르칩니다. 이 과 수업의 주제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몇 몇 다른 노래도 함께 불러 봅니다.

형제를 먼저 생각해요

C C/B Am7 C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Dm G C Am7
하지만 형제가 먼저랍니다

F Em Dm C
그래서 난 물을 건네죠

Dm G C
그의 목마름을 먼저 달래죠

합창:

F G C Am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건 축복이에요

F G C Am
관심을 보여줄 방법이에요

F G C Am
자매를 먼저 생각하는 건 축복이에요

F G C
나누면 나눌수록 부자가 되죠.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내 자매도 배가 고프죠.

그래서 난 음식을 함께 나눠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요

합창

C. 인용구 암기

이 과에서 아이들은 이기심 없음에 대한 바하올라의 말씀 인용구를 배우고, 암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주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알고 당신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음이 순수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이 되비추고 있는 하느님의 징표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관대하심, 친절하심, 자비로우심을 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고 싶어집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이웃들에게 말이죠. 우리가 지닌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올 때, 다른 사람들의 편안을 우리 자신의 편안보다 더 먼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가장 큰 기쁨을 맛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동료 인간을 먼저 생각합니다. 바하올라의 다음 인용구를 암기해 봅시다.

“자신보다 자신의 형제를 선호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¹⁰⁵

복

1. 아밀리아의 어머니는 아밀리아에게 가게에 가서 다섯 가지 물건을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밀리아는 적어가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부탁하신 것을 한 개도 빠짐없이 사다 드렸습니다. 아밀리아는 좋은 기억력을 가진 복을 받았습니다.

2. 빅토르의 가족은 매일 아침 집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빅토르의 가정은 하느님을 기억하는 복이 큼니다.

선호하다

1. 아누시카의 할머니는 민트티와 레몬티를 둘 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를 고르실 수 있을 때는 민트티를 선택하십니다. 할머니는 민트티를 선호하십니다.
2. 베스나는 나가서 놀 수도 있고, 정원에 아버지를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정원에 가서 아버지를 돕기로 합니다. 베스나는 아버지를 돕는 것을 선호합니다.

D. 이야기

아래의 이야기는 압둘바하께서 당신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이기심 없음의 길을 어떻게 가리켜 보이셨는지 알려줍니다.

압둘바하께서는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값싼 옷을 선호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옷을 입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분의 옷이 있으면 그분은 언제나 다른 이들에게 옷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악카의 총독을 접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압둘바하의 부인은 그런 자리에 입기에는 그 외투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재단사에게 가서 미리 좋은 외투를 주문해 놓으셨습니다. 총독이 방문하는 날, 압둘바하 앞에는 새 외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둘바하께서는 당신이 입으시던 옷을 찾고 계셨습니다. 앞에 놓여진 그 값비싼 외투가 그분의 것일 리 없었습니다. 그 외투 한 벌 값이면 평범한 외투 다섯 벌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랬다면 내게는 새 외투 한 벌이 생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줄 외투 네 벌도 함께 생겼겠지요.”

E. 게임: “달팽이”

어린이들에게 다함께 달팽이 모양을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성공하려면 모두가 손을 잡은 상태에서 한 줄로 서고, 손을 풀면 안 됩니다. 줄의 한쪽 끝에 서 있는 어린이가 중심이 되어 고정합니다. 줄의 다른 쪽 끝에 서 있는 아이는 한 줄로 서 있는 친구들을 인도해, 중심점 어린이 둘레로 감아 돕니다. 조금씩 나선형으로 감아 돌면서, 달팽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위의 게임의 변형입니다. 아이들에게 한 줄로 서게 하고, 서로 손을 잡게 합니다. 줄 한쪽 끝에 있는 아이에게 부탁해, 원을 그리며 제자리에서 돕니다. 천천히 다른

아이들도 아이를 중심으로 나선형으로 감아 돕니다. 서로 발을 밟지 않게 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달팽이 모양이 만들어진 후, 중간에 위치한 아이들은 몸을 구부리게 하고, 중심점의 아이는 옆에 있는 아이의 팔 밑으로 지나갑니다. 차례차례 모든 아이들의 팔 밑을 지나 달팽이 밖으로 빠져 나옵니다. 다른 아이들도 손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이 옆에 있는 아이의 팔 밑으로 지나갑니다. 모든 아이들이 빠져나와 다시 한 줄로 서게 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이 게임에는 충분한 수의 어린이가 있어야 합니다.

F. 색칠: 그림 6

G. 마침기도

제 7 과

A. 기도 낭송과 압기

여러분과 몇 명의 어린이들이 시작기도를 낭송한 후 함께 제 5과에서 압기하기 시작했던 기도를 복습합니다.

B. 노래 (이전의 노래 복습을 포함)

기쁨은 우리의 날개

D A D G D
기쁨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 주네

D A D A D
기쁨은 우리의 날개, 우리의 날개

A D
기쁠 때 우리 힘은 더 강인해지고

A D
기쁠 때 우리 지성은 더 예리해지고

A D
기쁠 때 우리 이해력도 더 커지네

D A D G D
기쁨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 주네

Dm A7 Dm A7 Dm
 때때로 슬픔이 몰려올 때는

A Dm A Dm
 허약해지고, 힘도 자취를 감추네

A Dm A Dm
 시야는 흐려지고, 생각도 떠오르지 않네

A7
 하지만

기쁨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 주네
 기쁨은 우리의 날개, 우리의 날개
 기쁨 때 우리 힘은 더 강인해지고
 기쁨 때 우리 지성은 더 예리해지고
 기쁨 때 우리 이해력도 더 커지네
 기쁨은 우리의 날개, 우리의 날개

C. 인용구 암기

아래는 어린이들이 이 과에서 암기할 인용구를 소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설명입니다. 기쁨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압둘바하께서는 기쁨이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준다고 하셨습니다. 기쁨 때 우리는 더 강인해지고, 행복할 때 이해력이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기쁨은 중요한 자질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속에서 하느님이 내려 주신 은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와의 우정,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압둘바하께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밝은 등불처럼 빛나, 모든 곳에 기쁨의 빛을 퍼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쁨을 간직할 수 있기 위해, 다음의 인용구를 암기해 봅시다.

“사람의 아들이! 네 마음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야 네가 나를 만나 내 아름다움을 되비출 만하게 되노라.”¹⁰⁶

즐거워하다

1. 로날드는 조부모님 댁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방학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로날드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2. 무즈간은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서 정원에 오이 씨앗을 심었습니다. 어린 오이가

자라나는 걸 보면서 그는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만하다

1. 소냐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소냐가 근면하고 열심히 학업에 임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소냐의 노력은 선생님의 칭찬을 받을 만했습니다.
2. 데이비드는 언제나 동생들을 잘 돌봅니다. 부모님은 데이비드에게 동생을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부모님의 신뢰를 받을 만하게 행동했습니다.

되비추다

1. 아마리는 주은 돌을 반들반들하게 잘 닦았더니, 돌이 빛을 되비추었습니다.
2. 순수한 마음은 하느님의 속성들을 되비출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

1. 하나의 어머니는 창공을 나는 새들, 활짝 핀 꽃들, 해변가에 파도의 일렁임을 보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아보십니다.
2. 때로는 노래 선율의 아름다움이 우리 마음을 울려서, 우리 눈에 눈물이 고일 때가 있습니다.
3. 무니르는 기도를 할 때 하느님의 아름다움, 사랑, 너그러움, 지혜를 기억합니다.

D. 이야기

이 이야기는 압둘바하께서 어떻게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셨는지를 어린이들에게 들려 줍니다.

르roi 아이오아스는 뛰어난 바하이로, 여러분이 자라면서 아마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사부께서 1912년 시카고를 방문하셨을 때 그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영성이 깊었던 이 소년이 사부님을 직접 뵈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사부께서 묵고 계신 호텔로 가는 길에 그의 마음 속에 문득 압둘바하께 꽃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았지만 그는 아름다운 하얀 카네이션 한 다발을 샀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도달했을 때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설사 아름다운 꽃이라 해도 사부님께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그분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르로이의 아버지는 압둘바하께 꽃을 전해 드리면서, 누가 가져온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압둘바하께서는 그분을 뵈려고 호텔에 모여든 벗들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동안 르로이는 그분의 발밑에 앉아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분의 말씀에 가만히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끝나자 사부께서는 일어나셔서 손님들과 악수를 하였고 사랑의 표시로 하얀 카네이션 한 송이씩을 나눠 주셨습니다. 르로이는 사부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 사부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내게도 한 송이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그 꽃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인지 사부께서 알아주시길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카네이션의 수는 하나씩 줄어들고 있었고 르로이에게 돌아올 가능성은 점점 더 없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순간 사부님께서 돌아서시더니, 르로이 아이오아스에게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사랑으로 빛나고 눈에는 친절이 넘쳐흘렀습니다. 과연 그분이 카네이션 한 송이를 르로이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압둘바하께서는 르로이에게 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외투에는 빨간색의 예쁜 장미가 꽃혀 있었는데, 그분은 그것을 떼어 내어 어린 소년에게 선사하셨습니다. 르로이의 가슴은 기쁨으로 뛰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당신께 카네이션을 선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E. 게임: “용의 꼬리를 잡아라”

어린이들이 한 줄로 서서 앞사람의 어깨에 두 손을 얹게 하세요. 줄의 첫 번째 어린이가 용의 머리가 됩니다. 마지막 어린이는 용의 꼬리가 되어, 이쪽저쪽으로 열심히 움직여 용의 머리를 피해야 합니다. “시작”이라는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용은 일직선을 유지합니다. 어린이 한 명이 “하나, 둘, 셋, 시작!”하고 신호를 줍니다. 시작 신호가 떨어지면 머리는 꼬리를 잡으러 달려 나갑니다. 용의 몸 전체는 끊어지지 않고 머리를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머리가 성공적으로 꼬리를 잡으면, 또는 그렇게 하기 전에 몸통이 끊어지면 머리가 꼬리가 되고, 줄의 두 번째 어린이가 머리가 됩니다. 모든 어린이가 최소 한 번 머리와 꼬리가 되어 볼 때까지 게임은 계속됩니다.

F. 색칠: 그림 7

G. 마침기도

제 8 과

A. 기도 낭송과 암기

이제껏 해 왔던 대로, 여러분이 암기하는 기도로 수업을 연 후, 어린이 몇 명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제 5과에서 암기하기 시작한 기도를 학생들과 함께 복습할 수 있습니다.

B. 노래

언제나

합창:

E A
우린 언제나

B E A B
진실과 성실을 보여야 하네

E A
우린 언제나

B E A B
진실과 성실을 보여야 하네 (반복)

E A B
말에는 진심을 담아야 하네

E A B
친절하고 진실한 말은 나의 예술

E A B
성실은 참 놀라운 보물

A E B E
정직과 순수는 아름다운 조화

A E B E A E
성실은 참 놀라운 보물

봉사에는 진심을 담아야 하네
순수한 생각과 기도로 시작하네
이런 내 행동이 융합의 원인
성실은 참 놀라운 보물
성실은 참 놀라운 보물

기도엔 진심을 담아야 하네
눈을 감고 하느님을 기억하네
내 소망을 잊었네, 내 필요도 잊었네
성실은 행동을 통해 빛을 낸다네
성실은 참 놀라운 보물

합창 (두 번 반복)

C. 인용구 암기

오늘 배울 말씀의 인용구를 소개할 때, 다음과 같은 생각에 어린이들이 주목하게 하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되비출 때, 우리는 성실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함을 지니면, 진실하고, 신의 있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입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에서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순수함을 알아 볼 수 있고,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질의 중요성을 기억하도록, 압돌바하의 다음 말씀을 암기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성과 성실함을 드러내야 합니다...”¹⁰⁷

드러나다

1. 사바는 해변에서 주운 조개껍질에서 진흙을 털어내고, 매끄럽고 광택이 날 때까지 닦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조개껍질의 진짜 아름다움이 드러났습니다.
2. 해가 떠오르고 아침 안개가 걷히니, 산의 장관이 드러났습니다.

성실함

1. 레오의 친구들은 공부 대신 게임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레오는 친구들의 학업이 염려되어 다 같이 공부하기를 제안하고, 서로 도와가며 공부할 방법을 찾아내려 애씁니다. 레오는 친구들을 성실하게 대합니다.
2. 로사는 매일 숙제를 할 것을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에도 로사는 숙제를 합니다. 로사는 약속을 성실하게 지킵니다.

D. 이야기

이 과에서 여러분이 어린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성실함의 자질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결여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도록 도와줍니다.

어느 부부와 아이들이 사는 집 뒷마당에 아주 크고 오래 된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들이 뻗어 나가 집 뒤편에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에

나무 밑을 지나던 아버지가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이웃은 큰 나무를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젠 이 거대한 나무를 베어버릴 때가 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제멋대로 뺏어가고 있고 다루기 힘드네요. 큰 가지가 부러져서 지붕 위로 떨어지거나, 그늘에서 놀던 아이 위에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웃이 떠난 후에 집주인은 그의 조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그가 기억하기 전부터 그곳에 있었지만, 나무로 인해 어떤 해를 입은 적은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 주었고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나무는 튼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집주인은 생각했습니다. “겉모습과 달리, 속이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는 나무를 베어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무는 대단히 굵고 큰데다, 가지들이 무척 많았기에 베어 내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집주인이 작업을 끝내자, 이웃이 아들 둘을 데리고 수레를 끌며 나타났습니다. “나무를 잘라 버리기로 했군요.” 이웃은 수북이 쌓인 나무더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장작더미들을 치울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우리가 도와드리죠. 아들 둘과 내가 수레를 가져왔으니, 덕의 마당에서 저것들을 말끔히 치워드리죠.” 집주인이 채 대답도 하기 전에 아들들은 수레에 벤 나무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수레를 끌고 가 버린 후에, 집주인은 아주 오랜 세월 자신의 집에 그늘을 드리워 주었던 나무 밑둥 위에 걸터앉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웃이 자신의 가족의 안전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겨울 동안 필요한 땀감을 얻으려 했을 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겉모습에 속을 수 있구나.”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날 아름다운 나무를 잃은 것은 그 가족들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슬픈 것은 그 이웃이 친구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느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E. 게임: “따뜻해 아니 차가워”

한 어린이의 눈을 가리고 다른 아이들을 등지고 서 있도록 요청하세요. 다른 아이들이 작은 물건- 연필이나 색연필 - 을 숨겨 놓습니다. 눈가리개를 푼 아이는 물건을 찾습니다. 아이가 숨겨진 물건의 위치에 가까이 가면 아이들은 박수를 크게 쳐서 도와줍니다. 숨겨진 물건의 위치에서 멀어지면 박수를 작게 칩니다. 박수치기 대신 아이가 물건에 가까이 갈 때 “따뜻해”, “더 따뜻해”, “뜨거워”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멀어져 가면, “추워”, “더 추워”, “얼었어”라고 소리칩니다. 어린이들이 아이를 잘못 인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어, 게임의 의미가 사라질 것입니다.

F. 색칠: 그림 8

G. 마침기도

제 9 과

A. 기도 낭송과 암기

이 과의 수업과 다음 세 번의 수업을 시작할 때 암송할 기도 한 편을 택하세요. 제 10장에서 소개된 기도가 좋습니다. 여러분의 암송 후에 몇 명의 어린이들이 뒤따라 암송하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의 기도를 소개하세요. 이 기도는 아이들이 이전에 암기했던 것들에 비해 길이가 길지만, 암기하는데 그리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제 12과의 수업을 진행할 때 즈음이면 모든 아이들이 암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 그분을 향해 찬양을 올린 자리, 집, 고장, 도시, 가슴, 산, 안식처, 동굴, 골짜기, 땅, 바다, 섬, 들판은 축복을 받으리라.”¹⁰⁸

B. 노래

땅과 같이 됩시다

C G
땅을 밟으

F G C
참 겸손하죠

C G
부유하신 하느님의 선물을 주죠

F G C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가졌어요

C G
우린 매일 땅을 밟아요

F G C
그래도 땅이 이런 말 않죠

C G
내가 너보다 더 부유해

F G C
너보다 더 위대해

나무를 봐요
 참 겸손하죠
 열매 많이 달릴수록
 땅을 향해 고개 숙여요
 모든 열매 나누고도
 나무는 이런 말 않죠
 내가 너보다 더 부유해
 너보다 더 위대해

C G
 땅처럼 되세요

F G C
 나무처럼 되세요

C G
 겸손의 날개를 달고

F G C
 영광의 하늘로 올라요

C G
 겸손의 날개를 달고

F G C
 영광의 하늘로 올라요

C. 인용구 암기

아래의 개념은 여러분이 이 과의 주제와 인용구의 암기를 소개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자질이 있으니,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그분과 그분의 창조의 위대함을 알아봅니다. 하느님의 원조와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인식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가장 강력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결코 자만심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앞에서 언제나 겸손합니다. 우리는 지상 위의 만물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만물은 그분의 징표와 속성을 되비추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존중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언제나 배울 것이 있음을 알아봅니다. 이제 아래 인용구를 암기해 봅시다.

“사람의 아들이! 너는 내 앞에서 겸손하여라. 그래야 내가 너를 은혜로이 찾아가리라.”¹⁰⁹

겸손하다

1. 자이납은 수학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잘 풁니다. 그는 겸손하고, 자신의 성취에 대해 자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2. 용푸의 이웃에 사는 아이들은 배움에 대한 열의가 큼니다. 이웃들은 용푸에게 그들을 위해 간단한 수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경험이 많지 않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느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겸손하게 수행합니다.

은혜롭게

1. 칸다스의 가족은 몇 명의 이웃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자, 칸다스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은혜롭게 베풀었습니다.
2. 오바니는 이웃의 노인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은혜롭게 도움을 베풀어, 대신 짐을 운반했습니다.

D. 이야기

겸손함은 압둘바하께서 지니신 가장 두드러진 자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을 위대한 명칭으로 부르길 원했으나, 그분은 오직 압둘바하라는 이름으로만 불리길 원하셨으니, 그 뜻은 바로 “영광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분의 가장 열렬한 바람은 봉사였습니다. 한 번은 일부 부유한 방문자들이 그분께서 식사하시기 전 손 씻기를 도와드리기 위해 공들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복장을 한 소년으로 하여금 화려한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아와 전해 드리고 향기 나는 수건으로 수발을 들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사부께서는 벗들이 그릇과 수건을 든 소년을 데리고 잔디밭을 가로질러 다가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뭘 하려는지 알아 채셨습니다. 그분은 서둘러 가까이 있는 물을 찾아내시어 손을 씻으시고는 정원사가 지니고 있던 형겔조각으로 손을 말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빛나는 얼굴로 돌아서서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받으실 극진한 예를 손님들에게 돌려주시며, 그들이 그 물과 수건으로 손을 씻도록 청하셨습니다!

E. 게임: “때론 키가 커요”

한 아이는 눈을 가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 주위에 원을 그리고 섭니다.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우린 아주 커요.”(발끝으로 서서 최대한 키를 늘린다.)

“우린 아주 작아요.”(쪼그리고 앉아 최대한 키를 줄인다.)

“지금은 커요.”(다시 키를 늘린다.)

“지금은 작아요.”(다시 쪼그리고 앉는다.)

여러분은 손짓으로 아이들에게 키를 늘일지 줄일지 지시한 다음,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합니다. “우리 키를 알아 맞춰 봐요!” 눈을 가린 아이는 그들의 목소리의 높낮이로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알아 맞춰야 합니다. 각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술래가 되어 봅니다.

F. 색칠: 그림 9

G. 마침기도

제 10 과

A. 기도 낭송과 압기

시작기도를 한 후 아이들은 이전 과에서 배운 기도를 계속해서 압기합니다.

B. 노래 (이전 노래들의 복습을 포함)

내 주께 감사 찬송 드리네

C Am Em
내 주께 감사 찬송 드리네

F G
자비의 왕관을

C Am
내 머리에 씌워주셨네

F C
감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G7 Am
영원토록 더욱 빛나리라

Dm G7 C
내 주께 감사 찬송 드리네

내 주께 감사 찬송 드리네

사랑과 지식을

내 안에 심어주셨네

감사를 올리면 올릴수록

더 쑥쑥 크게 자라네

내 주께 감사 찬송 드리네

내 주께 감사 찬송 드리네

진리의 빛으로

내 눈 밝혀주셨네
감사를 올리면 올릴수록
한없는 은총이 넘치네
내 주께 감사 찬송 드리네
내 주께 감사 찬송 드리네

C. 인용구 암기

여러분은 아래와 같이 학생들에게 암기할 인용구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선물을 받을 때도 감사를 표합니다. 하물며, 셀 수 없는 선물과 은사를 내려 주신 하느님께는 얼마나 더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는 많은 이들은 그분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봅시다. 압둘바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사에 하느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기쁨을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느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할수록 그분의 무한한 은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인용구를 암기해 봅시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일어나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대가 올리는 감사로 은사의 증대를 촉진하십시오.”¹¹⁰

일어나다

1. 살마는 병을 앓으시던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산책을 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2. 어린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합니다.

촉진하다

1. 나디아는 언제나 청결합니다. 그는 청결이 영적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결은 영성을 촉진합니다.
2. 세프의 가족들은 모든 중요한 사안에서 협력하고 서로를 돕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조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협력은 화목을 촉진합니다.

증대

1. 작년에 마리아의 학교에는 다섯 명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올해는 여덟 분으로 늘어났습니다. 학교에 선생님은 세 분 더 증대되었습니다.

2. 샤얀은 기쁨이 많은 아이입니다. 샤얀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더 기뻐합니다. 샤얀의 기쁨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더욱 증대합니다.

D. 이야기

어느 날 아주 부유한 여성이 성지에 제신 압돌바하를 뵙기 위해 먼 길을 떠나 왔습니다. 그는 압돌바하께 자신이 오기까지 겪은 어려움을 세세한히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압돌바하께서는 인내와 친절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내 압돌바하께 또 다른 약속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의 손님을 떠나시며 그분은 창문 밖을 걷고 있는 한 남성을 가리켜 보이셨습니다. “저 사람의 이름은 미르자 헤이달 알리입니다. 저 사람은 지상을 걷고 있지만, 사실 천상에 살고 있습니다.” 압돌바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그 얘기를 부인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미르자 헤이달 알리는 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출신이었습니다. 그곳의 바하이들은 참으로 불의하고 지극히 잔인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속되고 부당하게 투옥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증오와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미르자 헤이달 알리가 자신의 삶에서 겪은 모든 고통을 듣는다면 큰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압돌바하께서는 미르자 헤이달 알리를 부르시고, 그가 당신의 손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를 손님에게 소개한 후 압돌바하께서는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미르자 헤이달 알리는 그에게 큰 기쁨과 겸손을 보이면서 우리가 어떤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다가올 하느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손님은 한참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돌바하께서 말씀하시길 선생께서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제게 이야기해 줄 거라고 하시던데요.” 미르자 헤이달 알리는 놀라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려움이요?” “아닙니다. 부인, 저는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압돌바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미르자 헤이달 알리가 크나큰 고난을 겪었음에도 그것들이 그의 행복을 조금도 앗아가지 않았다는 것을요. 헤이달 알리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삶에 주신 축복만을 바라보았으며, 오직 그것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E. 게임 “빠른 신호”

어린이들이 원을 그리고 서서 서로 손을 잡게 하세요. 가장 먼저, 연습 활동으로 자신이 잡은 왼쪽 손을 쥐었다 놓고, 자신이 잡은 오른 손을 쥐었다 놓게 하세요. 이제 그룹

전체에게 “신호”를 보내 볼 것이라고 설명하세요. 한 아이가 오른쪽 아이의 손을 꼭 잡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호를 받은 아이는 다음 아이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 아이는 또 다음 아이에게 신호를 보내어, 결국 신호는 처음 아이에게 되 돌아옵니다. 시간을 재어 점점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도전을 가하세요. 어린이들이 기본 규칙을 배우고 나면, 신호는 반대 방향으로 보낼 수도 있고, 손을 쥐었다 놓는 횟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F. 색칠: 그림 10

G. 마침기도

제 11 과

A. 기도 낭송과 암기

늘 해 온 대로, 암기하는 기도를 낭송하고 몇몇 아이에게 기도 낭송을 요청하면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제 9과의 기도를 계속해서 암기하도록 도우세요.

B. 노래 (이전에 배운 노래의 복습을 포함)

좋은 점을 보라

^C
 내 목표는 다름 아닌 탁월함
^{F7}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네
^C
 매일 좋은 점을 찾아보면
^{G7} ^C
 내가 가는 길에 힘을 실어주네
^{F7}
 네가 실수를 하더라도
^C
 놀리지 않을 거야
^{G7}
 친구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F7} ^C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거야
 합창:

^{F7}
 좋은 점을 볼 거야
^C
 좋은 점만 볼 거야
^{G7}
 너도 그걸 바라지
^{F7} ^C
 나도 그걸 바라네
^{F7}
 하느님은 내 안에
^C ^{Am}
 좋은 점 보시는 분
^C ^G
 다른 이의 사소한 단점을
^{F7}
 내가 가려 준다면
^C ^{G7} ^C
 하느님께서 내 단점 가려 주시지
 압둘바하는 지혜로운 분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
 뭔가 잘못된 점을 발견하실 땐
 그를 더 강하게 만드실 길 찾으셨네
 그러니 네 잘못이 혹 내 눈에 띈다면
 난 뭘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에도 말하지 않을 거야
 합창

C. 인용구 암기

이 과의 주제와 암기할 인용구를 소개할 때 다음과 같은 개념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하느님께서 지니신 속성 중 하나입니다. 압둘바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눈으로 서로를 보고, 서로의 잘못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압둘바하의 모범을 따르다면, 우리는 친구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의 실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에 도움을 주는 다음의 인용구를 암기해 봅시다.

“...용서와 자비, 하느님께 총애 받는 이들의 마음을 복돋아 줄 것들로 그대 자신을 단장하라.”¹¹¹

자비

1.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복돋아 주다

1. 우르술라는 몸이 아팠습니다. 친구 엘시는 꽃을 가져 와서, 우르술라에게 얘기를 들려주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엘시의 방문으로 우르술라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엘시의 방문은 우르술라의 기운을 복돋아 주었습니다.
2. 산체스 부인은 업무 차 인근 도시에 출장 간 남편으로부터 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곧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산체스 부인의 마음에 힘을 복돋아 주었습니다.

충애하다

1. 선생님은 반의 학생 모두를 아끼고, 한 명 한 명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 모두를 충애하셨습니다.

D. 이야기

사부께서 악카에 계셨던 때였습니다. 이곳의 총독은 계속해서 바하이들에게 해를 끼치려 했습니다. 한 번은 총독이 그들의 생계수단을 파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경비들에게 명령을 내려, 바하이들의 가게를 모두 폐쇄하고 모든 가게 열쇠를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압돌바하께서 총독의 계획을 아시고 바하이들에게 다음날 가게 문을 열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가게들이 열지 않아, 열쇠를 가져오지 못 했다는 경비들의 보고를 듣고 총독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런데 총독이 그 다음 계획을 생각해 내기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악카의 총독을 해임한다는 상부의 전보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하이들의 가게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해임된 전 총독은 악카를 떠나 다마스쿠스 도시로 가라는 전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즉시 홀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이며, 정부의 충애를 잃은 그를 더 이상 누가 도와줄까요? 사부님께서 그 소식을 접하시고 전 총독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마치 그가 신앙의 적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처럼 사부께서는 이 불행한 이를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총독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그를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총독은 남겨 둔 아내와 자녀에 대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압둘바하께서 그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고 확언하셨습니다. 이후 압둘바하께서는 그의 아내와 자녀가 다마스쿠스로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사람을 동행시키고 그 비용을 부담하셨습니다.

가족과 재회한 전 총독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동행해 준 사람에게 감사해 하며 여행 경비를 물었습니다. 그는 압둘바하께서 이미 경비를 지불하셨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전 총독은 그에게 여행에 동행해 준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선물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압둘바하의 명을 따랐을 뿐, 봉사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 총독은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하룻밤 묵어가면 어떻겠냐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카로 지체 없이 돌아오라는 사부님의 지시를 따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 총독은 그렇다면 자신이 압둘바하께 편지를 쓸 동안만 기다려 줄 것을 청했고, 그 바람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악카에 돌아온 그는 사부님께 그 편지를 전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압둘바하, 저를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고, 귀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귀하께 큰 해악을 끼쳤음에도 귀하는 선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E. 게임: “사람과 사람”

어린이들이 손뼉을 치며 “사람과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원하는 대로 걸어 다니게 하십시오. 선생님이 “등과 등”이라고 외치면, 어린이들은 동작을 멈추고, 다른 어린이와 등을 맞대고 서야 합니다. 선생님이 신호를 주면, 어린이들은 다시 “사람과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손뼉을 치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이번엔 “얼굴과 얼굴”이라고 외치면, 어린이들은 멈춰서 친구와 얼굴을 마주 보고 서로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이 두 개의 지시가 반복되면서 게임이 진행됩니다. “무릎과 무릎”이나 “팔꿈치와 팔꿈치” 같은 지시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F. 색칠: 그림 11

G. 마침기도

제 12 과

A. 기도 낭송과 암기

늘 그렇듯 수업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앞선 세 과의 수업에서 배운 기도를 복습합니다. 제 13과에서 새로운 기도가 소개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 아이들이 모든 기도를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B. 노래 (이전에 배운 노래 복습을 포함)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네

C G D G
진실성은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네

C G D G
진실성은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네

C G D G
진실성으로 우리의 혀를 단장하자

C G D G
진실성으로 우리의 혀를 단장하자

C G D G
정직은 우리 영혼의 장신구

C G D G
정직은 우리 영혼의 장신구

C G D G
정직은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네

C G D G
정직은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네

C. 인용구 암기

이 과의 주제는 정직입니다. 다음은 이 과의 주제와 암기할 인용구를 소개할 때 나눌 수 있는 개념들입니다.

정원은 서로 다른 모양과 색깔의 꽃들로 아름답습니다. 봄에 나무들은 향긋한 꽃봉오리로 자신을 단장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깨끗하고 때 묻지 않은 옷으로 자신을 단장합니다. 이 모든 장식은 아름다움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 인간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자질이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장식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질, 그 가운데 하나는 정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으로 단장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지 않으며, 누군가를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의 자질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바하올라의 다음 인용구를 암기합시다.

“사람들아, 진실성으로 너희의 혀를 단장하고, 정직의 장신구로 너희의 영혼을 장식하라.”¹¹²

단장하다

1. 마리트는 장미를 심은 정원을 정성껏 가꾸어, 정원을 아름답게 단장했습니다.
2. 수닐은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말을 진실성으로 단장합니다.

D. 이야기

압돌바하께서는 말년에 자유의 몸이 되어 세계 여러 지역을 여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노동자들, 지도자들, 교육자들, 과학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편하게 느끼도록 늘 배려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집트에서 정부의 고위 관료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당시 관료들이 마차로 이동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압돌바하께서는 마차를 구해 관료를 목적지까지 데려와 주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이동 시간은 길지 않았고, 그들은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마부는 압돌바하께 다가와 운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상 운임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압돌바하께서는 마부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정확히 내셔야 할 금액만 지불하셨고, 자리를 떠나시려 돌아서셨습니다.

그러자 마부가 언쟁을 벌이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압돌바하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마부가 운임에 관해 정직했더라면 오히려 큰 액수의 팁으로 보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마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내버려 두시고 돌아서셨습니다.

E. 게임: “네모, 동그라미, 세모”

이 게임을 하기 위해 어린이들은 ‘네모’, ‘세모’, ‘동그라미’ 정도의 기본적인 도형의 이름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아이들이 각 도형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 세 개의 도형이 순서대로 그려진 카드를 들어 보여 주고(예: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모) 정확히 봐 두라고 말해 주세요. 카드를 덮고, 도형들이 어떤

순서로 그려져 있었는지 기억하게 하세요. 도형의 순서를 바꾸면서 여러 번 진행합니다. 어린이들이 세 개 도형의 순서를 기억하기 어려워하면 두 개 도형만으로 진행하세요. 오히려 세 개 도형이 너무 쉬우면, 네 개, 다섯 개 도형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학생들의 역량에 맞추어 도형의 이름을 말하게 하고(두 개, 세 개, 네 개 도형) 그룹의 한 아이에게 그 순서를 반복해 보도록 하세요. 각 아이와 반복하기를 한 후에는, 난이도를 높여서 여러분이 도형의 순서를 말하는 대로 어린이들이 도형을 그려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F. 색칠: 그림 12

G. 마침기도

제 13 과

A. 기도 낭송과 암기

이번 과와 다음 과의 수업에서 어린이들은 아래의 기도를 암기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암기하는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세요. 제 13과에서 소개된 기도가 좋습니다. 뒤이어 몇 명의 어린이들이 기도를 암송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주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정원에 이 어린 나무를 심어 주시고, 주님의 자애의 샘에서 물을 주시며, 주님의 은총과 은혜의 단비로 그가 튼튼한 나무로 자라게 하소서.

“당신은 막강하시고 강력하신 분이십니다.”¹¹³

B. 노래 (이전에 배운 노래 복습을 포함)

바르게

합창:

A
바르게, 바르게

E7 A
모든 사람의 평안을 구하자

^A
바르게, 바르게

^{E7} ^A
모든 사람의 평안을 구하자

^A ^E
다른 이들을 바르게 대하면

^{E7} ^A
친구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

^{A7} ^D
공평하게 나누면

^E ^A
정의의 빛이 세상을 환히 밝혀주네

합창

참된 평안과 도움을 베풀면
사부님의 길을 따라 걷게 되네
말과 행동에 지혜와 정의가 깃들면
마음에 기쁨을 선사할 수 있네

합창

C. 인용구 암기

이 과에서 어린이들은 공훈의 자질과 연관된 인용구를 배울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공훈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느님께로 마음을 향해, 우리에게 위안과 힘을 내려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공훈로 대하시듯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공훈히 여겨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사람을 공훈과 친절로 대해야 합니다. 나무는 모두에게 열매를 나눠 줍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진 이에게도 여전히 열매를 줍니다. 압둘바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으나, 그분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사람을 공훈로 대하셨습니다. 공훈한 마음을 지니려는 우리의 노력을 도와 줄 압둘바하의 다음 말씀을 암기해 봅시다.

“하느님의 왕국은 공평과 정의, 살아있는 모든 영혼에게 베푸는 자비와 공훈, 친절의 토대 위에 있다.”¹¹⁴

토대

1. 의사 선생님은 마을 어린이들의 건강을 염려하셔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 병원 문을 여셨습니다. 그 병원은 의사 선생님의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2. 제나와 메르세데스는 오랜 친구입니다. 그들은 늘 함께 공부하고, 서로와 유용한 배움을 나눕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친절과 사랑을 토대로 합니다.

공평

1. 어느 왕국의 모든 백성들은 공동의 번영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곡물을 수확하면, 임금은 곡식을 가족 수에 따라 모든 가정에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공평하게 대했습니다.
2. 시의회는 인근 마을로 통하는 길을 닦기로 했습니다. 의회는 농경지를 빙 둘러서 길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부들이 손해를 입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도로의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회는 공평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훈

1. 리용은 친구인 자흐라가 행복하지 못한 것을 보고, 어떻게든 그를 도울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자흐라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리용은 자흐라를 위로하고, 다음날 병원에 같이 가 뵙자고 제안했습니다. 리용은 친구의 처지를 공훈히 여겼습니다.
2. 어느 날 시오리는 시골길을 건다가 어린 양 한 마리의 발이 울타리 사이에 끼여,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오리는 조심스럽게 양의 발을 빼내어, 봉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시오리는 공훈한 마음으로 양을 도와주었습니다.

D. 이야기

압둘바하께서 서방을 여행하실 때,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분께 격려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압둘바하께서는 밤낮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젊은이와 노인, 부자와 빈자, 관료와 일반 시민들을 모두 만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부님을 깊이 흠모하여 찾아 왔고 어떤 이들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하여 호기심을 갖고 찾아 왔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사부님께서 머무시는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여성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아주 잠깐이라도 압둘바하를 뵙기를 깊이 소망했습니다. “사부님을

뵙기로 약속을 하셨나요?” 문을 연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여성은 약속을 잡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압둘바하께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기에 당장은 만나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크게 낙담하여 돌아서서 집 앞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불현듯 압둘바하께서 전갈을 보내신 사람이 현관에 나타나서 여성을 불렀습니다. 사부님께서 그 여성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전갈이었습니다. 힘과 권위가 실린 그분의 음성이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한 마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서두르세요, 서두르세요. 그이를 내게 데려오세요!”

E. 게임: “함께”

어린이들을 짝 지어 나란히 서게 합니다. 한 아이의 왼쪽 다리를 다른 아이의 오른쪽 다리에 묶습니다. 게임에 성공하려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 주세요. 한 쌍이 함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게 하세요. 게임을 더 도전적으로 만들려면, 가는 길 위에 나뭇가지나 돌 같은 작은 장애물을 놓으세요. 안전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세요. 걷는 대신에 개구리처럼 폴짝폴짝 뛰거나, 말처럼 질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쌍이 다른 쌍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F. 색칠: 그림 13

G. 마침기도

제 14 과

A. 기도 낭송과 암기

시작기도를 낭송한 후, 앞선 수업에서 소개된 기도를 계속해서 암기합니다.

B. 노래 (이전에 배운 노래의 복습을 포함)

초연의 날개

C F G
새가 하늘 높이 날고 있어요

C F G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차

C F G C F G
천상에 있는 자기 집으로 날아올랐죠

C F G C F G
그러다 어느덧 배가 고파진 새는

C F G C F G
저 아래 물과 진흙을 향했습니다

C F
저 아래로 향했습니다

G C F
새는 끝내 자신의 욕망에

G C
간히고 말았어요

F G C F G
진흙에 빠진 날개가 무거워

C
날 힘을 잃은 새는

F G C F G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죠

합창

나도 새처럼 하늘에 속한 자
땅에 매여 있지 않으리
부에 매달리지 않으리
내 뜻에 매달리지 않으리
하느님 뜻에 매달리리라

C G F G
초연의 두 발로 걸으리라

C G F G
초연의 날개로 날아오르리라

C G F
하느님을 제외한 모든 애착에서

G C
자유롭게 나를 풀어 주리라 (반복)

C. 인용구 암기

어린이들은 이 과의 주제인 초연의 자질에 관한 인용구를 암기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 주제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도록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건강, 음식, 사랑과 우정, 자연의 아름다움, 인간 지성이 그것입니다. 지성을 통해 인간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해 줄 발명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모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삶의 즐거움을 허락하신 데 대해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유롭고 힘찬 새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성스러움의 하늘로 높이 날아올라야 합니다. 만약 하늘을 날 수 있는 새가 땅 위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 땅 위에 발이 묶인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다음의 인용구를 암기해 봅시다.

“알지니, 너의 진정한 장신구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 외의 일체에 초연함으로 이루어져 있다...”¹¹⁵

이루어지다

1. 조이는 점심 식사로 소시지 두 개와 감자를 먹었습니다. 조이의 점심 식사는 소시지와 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달걀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껍질과 계란 흰자, 계란 노른자가 그것입니다.

초연

1. 헬기는 친구들과 함께 수영하러 가길 몹시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실 수 있도록, 기꺼이 어린 동생과 집에 남아 있기로 했습니다. 헬기는 가족을 돕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에 초연할 수 있었습니다.
2. 한 학년이 끝나갈 때 즈음, 안잘리는 담임 선생님께 꽃을 가져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함께 케이크를 구워 가져다 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안잘리는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받아 주었습니다. 안잘리는 자신의 생각에 기꺼이 초연하기로 했습니다.

-외의 모든

1. 어린이들은 모두 시험을 잘 봤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한 아이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 외의 모든 아이들은 시험을 잘 봤습니다.
2.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중요한 식재료가 빠져서 요리를 하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식재료 외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갖고 계셨습니다.

D. 이야기

어느 날 오랜 친구인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영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생애에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사람은 그보다 가진 것이 훨씬 적었습니다. “나는 성지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네.” 그가 부자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자네와 함께 가겠네.” 두 사람은 차잔을 내려놓고 곧장 일어나 성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이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걸음이 느려지고 멈춰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우리 집으로 함께 되돌아가지 않겠나. 그게 더 편안하지 않겠나. 아침에 상쾌하게 다시 출발하는 게 좋겠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왜 여기서 되돌아가야 하나?” “우리는 성지를 향해 이미 출발했지 않은가!” 그래도 친구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가기엔 성지는 너무 먼 곳이야.” “돌아가서 나귀를 데려와야겠네. 나귀를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려.”

부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에 날 동행해 줄 친구는 자네가 아닌가 보네. 나는 기꺼이 내가 가진 모든 걸 놓고 떠나 왔네. 말이며, 땅이며, 좋은 옷들이며. 그래도 아쉽지 않아. 그런데 자네는 고작 나귀 한 마리를 두고 올 수 없다는 건가?” 안타깝게도 그의 친구는 자신이 아끼는 단 하나의 소유물을 떠나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버려두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남겨진 친구는 성지를 향해 계속 길을 걸었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E. 게임: “바퀴”

어린이들에게 원을 그리고 서서, 옆으로 서도록 요청하고 각자 왼 팔을 원 안으로 뻗어 손이 중심에서 모이게 합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서 있는 모양은 하나의 바퀴와 같고, 그들의 뻗은 팔은 바퀴살이 됩니다. 다음에는 아이들이 바퀴와 같이 원 중심을 돌게 합니다. 그런 후, 아이들이 교실 공간으로 넓게 퍼지게 합니다. 이 때 바퀴 모양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원을 그리고 돌아야 합니다. 여기에 좀 더 도전을 가하려면 쟁충 쟁충 뽀뽀기를 하면서 원을 돕니다.

F. 색칠: 그림 14

G. 마침기도

제 15 과

A. 기도 낭송과 암기

시작기도로 수업을 시작한 다음, 제 13 과에서 소개된 기도를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암기하도록 도와주세요.

B. 노래 (이전 노래들의 복습을 포함)

제 뭇을 내려주소서

합창:

A
제 뭇을 내려 주소서

D A
하느님, 저의 하느님

A D A
하느님 기쁘신 뜻대로

E A
제 뭇을 내려 주소서

A
일이 잘 풀릴 때는

D A
만족하기 어렵지 않죠

A
자신감이 느껴질 때는

E A
만족하기 어렵지 않죠

D A
그보다 진짜 더 어려운 건

E A
일이 잘 안 될 때 만족하고

D A
어려움 앞에서 인내하고

E A
기쁘게 노래 부르기

합창

어린 소년 시절부터
사부님은 슬한 꺾박을 받으셨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떤 안락과 평안도 누리지 않으셨네
그분은 늘 만족하고 평온해 하셨네
불안의 흔적 없이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셨네
언제나 인내하셨네

합창

C. 인용구 암기

다음은 여러분이 이 과의 주제와 어린이들이 암기할 인용구를 소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념들입니다.

압돌바하께서는 어떤 상황 하에서도 하느님의 뜻에 만족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매사가 순조로울 때, 우리가 건강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을 때 만족하기는 쉽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압돌바하의 삶은 온갖 고통으로 점철되었지만, 그분은 결코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심각하고 힘든 순간에도 그분은 만족하셨고, 하느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쾌활하고 낙관적이셨습니다. 다음의 인용구를 암기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만족함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일인지 종종 떠올리시다.

“모든 영광의 원천은 주께서 내리신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임이요, 하느님께서 정하신 뜻에 만족함이다.”¹¹⁶

영광

1. 포렝은 과학자들의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많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그의 가문을 영광되게 했습니다.
2. 스위는 산, 나무, 바다의 자연을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마다 스위는 만유의 창조자이신 하느님의 장엄함과 위대함을 떠올립니다. 자연에서 스위는 하느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려주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건강, 모든 좋은 것을 떠올리며 파올로는 매일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파올로는 이러한 많은 선물을 내려 주신 데 감사합니다.
2.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춥고 킁킁해서 그 위에선 아무 것도 살 수 없습니다. 태양은 지상에 빛과 온기를 내려줍니다.

정하다

1. 임금은 봄의 첫째 날에는 온 나라 백성이 일을 쉬 것을 명했습니다. 봄의 첫째 날은 이렇게 공휴일로 정해졌습니다.
2. 여러 달 비가 오지 않자, 마을의 협의체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명했습니다. 물을 절약하기 위해, 협의체는 물의 사용 제한을 정했습니다.

D. 이야기

어느 날 저녁, 압둘바하께서 불이 환히 밝혀진 런던 거리를 몇몇 바하이 친구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시선이 닿는 데까지 멀리 뻗은 거리 양 쪽으로 가로등이 형형히 불을 밝힌 도로를 일행은 걸어갔습니다. 사부님을 사랑하는 일행들은 마치 판 세상을 온 것 같은 이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이 광경에 마음이 흡족합니다.” 압둘바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참 좋은 것이 아니,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악카의 감옥은 온통 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압둘바하를 흠모하는 벗들은 그분이 악카라는 요새 도시에 감금되어 계시던 때를 떠올리고 아내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압둘바하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아버님 바하올라 곁을 오래 지키셨습니다. 그곳은 대단히 불행한 곳이었고, 그분의 가족들 역시 그곳에서 크나큰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사부님께서 자유의 몸이 되신 것에 저희는 더없이 기쁩니다.” 벗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압둘바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지낸 나날,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봉사의 길을 걸으며 그 날들을 보냈습니다.” 아울러, 그분은 최대의 감옥은 다름 아닌 자아의 감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진실로 그때가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순간입니다! 압둘바하께서는 모든 상황 하에서 만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느님과 인류를 섬기는 길을 부단히 걷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심지어 악카의 죄수로 가장 어두운 나날을 보내고 계실 때에도, 그분의 잠재울 수 없는 밝은 정신은 빛을 뿜어내었고, 늘 다른 이들에게 온기와 평안을 선사했습니다.

E. 게임: “조각가”

여러분이 조각가 역할을 맡고, 어린이들에게 조각 작품을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한 어린이에게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취하는 자세를 따라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팔을 앞으로 뻗은 채 몸을 구부리는 자세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명씩, 혹은 한 번에 몇 명씩 모든 아이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이 취할 자세를 익히면, 그들 모두를 모아서 하나의 조각 작품을 만듭니다. 어린이들이 모두 조각의 일부분이 되게 하고, 여러분도 마지막 조각이 되어 조각 작품의 일부가 됩니다.

학생들을 짝으로 나눕니다. 짝을 지은 아이들은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은 조각가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요청받은 자세를 취합니다.

여러분은 이 게임의 또 다른 변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철조망이 될 수 있나요?” “정원이 될 수 있나요?” 아이들은 이에 응답하여, 요청받은 형태를 만듭니다.

F. 색칠: 그림 15

G. 마침기도

제 16 과

A. 기도 낭송과 암기

이 과의 수업을 진행할 때는 모든 어린이들이 제 13과에 소개되었던 기도문을 암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기도를 한 후에 여러분은 이 점을 아이들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노래 (이전 노래의 복습을 포함)

우리는 한 바다

C
우리는

우리는 (에코 보이스)

C
한바다의

한 바다에

F
물결들

물결들

G
파도들

파도들

합창:

C
어서 와서

어서 와서 (에코 보이스)

F
손잡고 같이 가요

C G C F C
하나된 세계 향한 이 길로

우리는 한 정원의 (에코 보이스)

나무들
잎사귀들

합창

세계는
한 나라요
인류는
그 국민

C. 인용구 암기

이 과의 내용은 친절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친절의 주제에 관해 소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념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온 인류가 한 가족과 같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서로의 다른 점들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해서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종교, 나라, 배경의 사람들과 사랑과 친절로 가깝게 어울려야 합니다. 이 점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바하올라의 다음 말씀을 암기하도록 합시다.

“최상의 친절과 사랑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과 어울리는 이에게 복이 있다.”¹¹⁷

어울리다

1. 해오라기와 찌르레기는 모두 초원에 사는 새들입니다. 이들이 종종 함께 있는 모습을 보기 쉽습니다. 이 두 새들은 서로 잘 어울려 지냅니다.
2. 예배모임에서 기도를 마친 후에도 사람들은 남아서 서로와 어울렸습니다.

D. 이야기

이전에 들려 준 이야기들에서 알 수 있듯이, 압둘바하께서 처음 악카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바하이들을 잔인하게 대했고 그들과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바하이들에게서 사랑과

친절을 보게 되자,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들에게 친절로써 화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분노와 증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전히 압둘바하를 향해 증오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한 사람이 압둘바하의 위대함과 선행을 칭송하는 이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당신들 모두가 그렇게 존경해 마지않는 이 사람이 결코 훌륭한 사람이 아님을 직접 보여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분노로 이끌거리는 마음으로 그는 자리를 파했습니다. 그 시간에 압둘바하께서 모스크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그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부님에게 폭행이라도 가할 태세였습니다. 그러나 압둘바하께서는 침착하고 위엄 있게 남성을 바라보셨습니다. 압둘바하께서는 애정 어린 어조로 말씀하시며, 우리는 우리와 다르더라도 우리를 찾아 온 어떤 손님에게든 관대해야 한다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압둘바하와 바하이들이 과연 그의 고향인 악카를 방문한 손님과 같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집주인처럼 관대함을 발휘하여 손님들을 환영하고 친절히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E. 게임: “숨은 자질”

어린이들에게 원을 그리고 동글게 서서, 두 손을 모아 컵 모양을 만들어 내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동전이나 작은 돌멩이 같은 물건을 들고 원 안에 서세요. 동전은 예컨대 ‘친절’과 같은 한 가지 자질을 나타냅니다. 원을 따라 걸으면서, 어린이들 손 위로 여러분의 손이 지나가며 “존은 친절해, 이사벨라는 친절해, 더비는 친절해” 등등 말합니다. 각 어린이들은 선생님이 자신의 손에 동전을 떨어뜨려 준 것처럼 두 손을 오므립니다. 여러분은 그 중 한 아이의 손에 실제 동전을 쥐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 한 아이가 나와서 누구 손에 동전이 쥐어져 있는지 알아 맞춥니다. 이때 아이는 “켄지가 아주 친절해요”와 같이 말하면서 동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맞춥니다. 켄지는 손을 벌려 자신이 동전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 줍니다. 아이는 세 번까지 맞추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자질의 이름을 가지고 게임을 반복합니다. 모든 아이가 적어도 한 번, 손에 물건을 받도록 하세요.

F. 색칠: 그림 16

G. 마침기도

제 17 과

A. 기도 낭송과 암기

이 과의 수업에서 시작해 총 네 번의 수업에서 어린이들은 아래의 기도문을 암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새롭게 암기한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면 암기를 위한 어린이들의 노력에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제 16과에 소개된 기도를 암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몇 명의 어린이가 시작기도에 참여한 후, 여러분은 아래의 인용구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이름은 저의 치유이며, 당신을 기억함은 저의 치료입니다. 당신께 가까이 감이 저의 소망이며, 당신을 사랑함은 저의 반려입니다. 제게 베풀어주시는 당신의 자비는 저의 치유이며, 현세와 내세에 저의 구원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가장 은총 많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¹¹⁸

B. 노래 (이전에 배운 노래 복습을 포함)

용기의 원천

합창:

Am
용기와 힘의 원천은

Dm E Am
하느님 말씀의 증진

Am
용기와 힘의 원천은

Dm E Am
하느님 사랑에 굳건함

G
자신을 잊어요

C
올바른 편에 서요

E7
약자를 지켜 줘요

말씀을 가르쳐요
용기 내어 행동해요

그분의 길 따라가요
행복을 향한 그 길

합창

C. 인용구 암기

아래는 이 과의 주제와 암기할 인용구를 소개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설령 우리 자신밖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달리 없다 해도, 여전히 옳은 것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을 겪더라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착하고 품위 있게 삶에서 마주치는 고난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용기를 이끌어냅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용기로 직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인용구를 암기해 봅시다.

“용기와 힘의 원천은 하느님의 말씀을 증진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굳건함이다.”¹⁹

원천

1. 경미는 계곡에 있는 마을에 삽니다. 근처 산꼭대기의 눈이 녹아 흘러내려 마을의 식수를 공급합니다. 산꼭대기의 눈이 마을의 식수의 원천입니다.
2. 퍼터스 부인은 사랑스럽고 예의 있는 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퍼터스 부인에게 행복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증진

1. 쇼아의 두 친구가 말다툼을 해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쇼아는 서로의 관점을 생각해 보도록 도와서, 친구들을 화해시켰습니다. 쇼아는 언제나 친구들 사이에서 이해와 평화를 증진합니다.
2. 간호사 선생님이 어린이 교실을 방문해서 건강에 유익한 음식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증진합니다.

굳건함

1. 프로밀라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프로밀라는 학교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려운 수련을 마친 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의사가 되려는 프로밀라의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2. 즈본다이는 학교를 설립하는 걸 돕기 위해 외딴 마을에 갔습니다. 가족이 그립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즈본다이는 굳건한 결심으로, 그 마을에 수년 간 머물면서 교사들을 훈련하고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D. 이야기

알리 아스카는 페르시아의 상인이었습니다. 바하이가 된 후에 그는 신앙에 적대적인 사람들로 인해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잠깐 사이 그는 가졌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알리 아스카는 그래도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는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그는 이웃 나라의 아드리아노플 도시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드리아노플에서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상품을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품을 단 한 개도 팔지 못했습니다. 도적의 습격을 받아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도적들은 체포되고, 그들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훔친 큰 재물도 압류되었습니다. 지방 관리 중 한 사람이 그 재물에 현혹되어, 그 재물을 자신이 가로채아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알리 아스카를 사무국으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리 아스카, 이 도적들은 엄청난 부자요. 그들이 훔친 물건이 엄청난 양이라고 정부에 보낼 보고서에 쓸 테니, 당신은 재판에 나가서 내가 적어 준 대로 증언하시오” 그렇게 하면 정부는 그 돈을 모두 알리 아스카에게 돌려 줄 것이고, 두 사람이 그 돈을 나눠 가지면 된다고 관리는 말했습니다.

알리 아스카는 그런 계획에는 절대로 장단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칸”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둑맞은 물건은 얼마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거짓으로 보고 하겠습니까? 심문을 받게 되면 나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도리입니다.”

그 관리는 한 번 더 알리 아스카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우리에게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온 거요. 우리 둘 다 큰 이득을 볼 수 있소. 일생에 한 번 뿐인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러나 알리 아스카는 단호히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칸, 하느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관리는 화가 났습니다. 알리 아스카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의 계획은 무산되고, 손에 넣은 큰 재물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알리 아스카에게 겁을 주어 자신에게 협력하게 하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를 감옥에 보내야겠네.”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를 추방하겠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네를 괴롭힐 것이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알리 아스카를 페르시아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알리 아스카는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칸, 뜻대로 하세요. 나는 옳은 일에서 등을 돌릴 수 없습니다.”

E. 게임: “참 거짓”

어린이들이 큰 원을 그리고 서게 합니다. 여러분은 원 중앙에 섭니다. 이제 어린이들에게 참인 문장과 거짓인 문장들을 섞어서 들려줄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참인 문장에 어린이들은 “참이에요”라고 대답하며, 깡충깡충 뛰어 원 중앙으로 한 걸음 다가섭니다. 거짓인 문장에 어린이들은 “거짓이에요”라고 대답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모든 문장은 어린이들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참인 문장의 사례로는 “태양은 빛을 냅니다” “나무는 씨앗에서 자랍니다” “산은 높습니다”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장도 좋습니다. “세라는 지금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어요.” “저쪽에는 벤치가 두 개가 있어요.”

거짓 문장의 사례로는 “빗방울은 아래에서 위로 내려요.” “물고기는 하늘을 날아요.” “돌멩이는 발로 걸어요.” 역시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장들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거짓 문장보다 참인 문장의 수를 더 많이 들려주세요. 게임이 끝날 때 아이들은 원 중앙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어야 합니다.

F. 색칠: 그림 17

G. 마침기도

제 18 과

A. 기도 낭송과 암기

기도로 수업을 시작한 다음, 어린이들은 앞선 과의 수업에서 소개되었던 기도를 계속 암기하는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B. 노래 (이전에 배운 노래의 복습을 포함)

희망을 품어요

^C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G 우린 미래를 알 수 없어요

C F
그래도 은총은 늘 흐르고 있으니

G C
하느님 믿고 나아가세요

합창:

F G
희망을 품어요, 희망을 품어요

C F
하느님의 은총은 어디에나 있어요

F
태양은 또 다시 떠올라

G
하늘을 온통 밝혀요

C F
희망의 눈을 떠요

F G C
희망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봐요

언제나 희망 품고, 성장 위해 노력해요
겨울은 물러가고 봄이 찾아와요
그분의 은총은 끊임없어요
그 덕에 만물이 소생하지요

합창

기쁨과 평화의 원천이 되어요
봉사하고 빛나는 존재가 되어요
그분의 은총은 늘 흐르고 있으니
내일을 향해 희망을 품어요

합창

C. 인용구 암기

아래에는 어린이들이 암기할 인용구를 소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하느님의 선물과 은총이 항상 우리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때 희망을 갖습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에서 우리 몫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에 가득 찬 가슴으로, 하느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가득 쏟아질 것을 우리는 항상 기대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압돌바하의 다음 말씀을 암기합시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십시오. 언제나 희망을 품으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¹²⁰

신뢰하다

1. 에드워드는 문제가 있어 흥 웨이에게 도움을 청하려 찾아갔습니다. 에드워드는 흥 웨이가 최선을 다해 자신을 도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흥 웨이를 신뢰합니다.
2. 니르말라는 집의 지붕을 수리하고 싶지만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날 니르말라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니르말라는 친구들의 말을 신뢰하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희망을 품다

1. 아이오즈피나는 양지 바른 곳에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면서 씨앗이 자라나길 고대합니다. 언젠가는 씨앗이 튼튼한 묘목으로 자랄 것이라 희망을 품었습니다.
2. 안토니오의 친구 마티아스는 타도시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친구가 그리워지만, 곧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은총

1. 매일 밤 릴리안은 기도하며 자신이 누리는 수많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들 뿐 아니라 자신이 누는 침대도 떠올립니다. 릴리안은 자신이 받은 은총에 감사합니다.
2. 레자에게는 자신을 사랑해주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많은 친구와 친척이 있습니다. 레자는 그들의 사랑과 지원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끊기다

1. 타헤르가 수도꼭지를 잠그니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의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2. 흐린 날에도 태양 광선은 여전히 지구에 내리쬐고 있습니다. 태양 광선은 끊임없이 지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D. 이야기

옛날에 한 노숙자가 런던 템즈 강변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모두 잃어버린 채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가게 앞을 지나가던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사진 한 장, 바로 압둘바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얼어붙은 듯이 멈춰 서서 그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압둘바하를 본 적도 없고 그분이 누구신지도 몰랐지만, 꼭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신문에 주소가 실려 있었기에 그는 그분을 만나길 희망하며 그 주소의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50킬로미터나 되는 아주 먼 거리였지만, 그는 계속 걸어서 그 집에 당도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남성은 지치고 굶주려 있었고, 그 집의 주인은 그를 친절히 안으로 불러 들여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여성에게 압둘바하께서 계신지 물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 주실까요?” 그는 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만나주실까요?”

압둘바하께서 그를 틀림없이 만나주실 거라고 여성이 답하는 순간, 사부님께서 현관에 나타나셨습니다.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압둘바하께서는 그를 환영하시려고 양 팔을 뻗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치 오래도록 기다리셨던 옛 친구를 만나신 것 같았습니다. 압둘바하께서는 사랑과 긍휼로 그를 환영해 주시며 그에게 당신 옆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압둘바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이 마음에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살리는 방법을 알고 계셨고, 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압둘바하께서는 그에게 슬픔을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시며, 하느님의 왕국 안에서 그는 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압둘바하께서 긍휼을 쏟아 주시자, 그분의 위로의 말씀이 그의 가슴을 치유하고 그에게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그의 슬픔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이제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슬퍼하지 않겠다고 압둘바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신 밭에서 일거리를 찾아 하고, 돈을 모아 땅을 조금 사서 바이올렛을 재배해 시장에 내다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압둘바하로부터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께서 그의 노력에 확증을 주시고,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절망은 희망으로 변화했습니다.

E. 게임: “비를 부르는 사람”

어린이들을 여러분 주위에 원을 그리고 둘러서게 하십시오. 게임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지금 사막 한가운데 서 있고,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은 손바닥을 마주 비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씩 시선을 줄 때마다, 여러분과 시선이 마주친 어린이는 그 동작을 똑같이 따라 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원을 한 바퀴 돌아오면, 모든 어린이는 손바닥을 비비고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시 한 사람씩 시선을 주면서 새로운 동작을 시도하고, 어린이들은 그것을 따라합니다. 새로운 동작으로 손가락을 튕기고, 이어서 손뼉을 마주 칩니다. 다음으로 손바닥으로 무릎 위를 치고, 이어서 발을 구릅니다. 어린이들이 다함께 내는 소리는 마치 처음에는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이내 우두둑 비가 쏟아지고, 결국 큰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로 변하는 소리를 연상시킬 것입니다.

F. 색칠: 그림 18

G. 마침기도

제 19 과

A. 기도 낭송과 암기

늘 그랬던 것처럼,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어린이들이 제 17과에서 소개된 기도를 계속해서 암기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B. 노래 (이전에 배운 노래 복습을 포함)

바쁜 손

합창:

C F
바쁜 손은 행복한 어린이의 것

C G
평화와 사랑을 전파하며

C F
주위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 오는

C F G C
행복한 어린이가 우리들이죠

C F
일하는 손으로 새 세계 건설해요

C G
우리 모두에겐 역할이 있어요

C F
우리 누구에게나 감사할 게 있어요

C F G C
우리는 머지않아 목표를 이룰 거예요

합창

모두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세상
새 세계를 건설하는 우리의 노력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우린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지요

합창 (마지막 줄 반복)

C. 인용구 암기

이 과에서 어린이들은 신용에 대한 인용구를 암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래와 같이 이 주제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품성 가운데 하나는 신용입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은 진실한 말을 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약속을 지킬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언제나 우리의 말을 그대로 되비춰야 합니다. 우리가 신용이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을 해 내면서, 조화롭게 함께 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의 중요성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음의 인용구를 암기해 봅시다.

“신용은 사람들을 평온과 안전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문이다.”¹²¹

신용

1. 아토스는 어머니에게 저녁식사 준비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친구들이 밖에 나가 놀자고 집에 찾아왔을 때, 아토스는 어머니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다음에 놀자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아토스는 신용의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2. 수니타가 가족을 위해 물건을 사려고 상점에 갔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사기에 충분한 돈을 가져 오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니타가 상점 주인에게 부족한 돈을 다음 날 가져다 드려도 될지 여쭙었습니다. 상점 주인은 수니타가 신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약속한 대로 돈을 가져다 줄 것을 알기에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평온

1. 에밀리오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생각에 집중하고 묵상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습니다. 그는 인근의 조용한 정원에 갑니다. 평온함 속에서 그는 머릿속과 마음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2. 큰 폭풍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고요한 정적에 놓입니다. 폭풍우 후에 평정과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안전

1. 아기 동물들이 놀라면,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는 새끼들에게 안전을 제공합니다.
2. 등산객이 산에서 길을 잃어, 숲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자, 마을에서 수비대가 그를 찾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그를 찾아냈을 때 등산객은 안도하며, 이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무사히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D. 이야기

신앙의 초기 시대에는 바하이들의 수가 적었고 그들은 몇몇 나라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지에 계신 압돌바하께 자주 편지를 써서 소식을 전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그 편지들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먼 길을 가로질러야 했으며, 압돌바하께서는 큰 사랑과 관심으로 일일이 답신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격려의 말씀은 그들에게 힘을 주고,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당시 성지에 모함마드 타키라는 바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전 젊었을 때 페르시아에서 성지로 이주했으며,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돌바하께로 오가는 모든 해외 우편물은 모함마드 타키의 집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모함마드 타키를 통하면 모든 편지는 틀림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달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은 압돌바하를 대적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압돌바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유배되거나 심지어 처형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의 집 주위에는 스파이들이 숨어졌고 그분은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압둘바하와 타국에 있는 바하이들 사이의 통신을 두절하고 연결을 끊어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또, 문서를 훔쳐 내어 당국에 거짓으로 모함을 하려고 했습니다.

압둘바하께서는 이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종종 밤늦은 시간까지 등잔불 밑에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분은 우편물이 안전하게 전달되는 확실한 방식을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압둘바하께서는 그분의 적들이 모함마드 타키가 중요한 일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모함마드 타키가 우편물을 나르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시도할 터였습니다. 그래서 압둘바하께서는 그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그를 이웃 나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적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다른 이들이 그에게 편지를 받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 안전한 곳에서 그는 이제껏 해 온 것처럼 계속해서 모든 서신을 보내고 받는 일을 충직하게 수행하면서 압둘바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벗들의 성지와 의 소통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으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벗들은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 게임: “맹인”

학생들을 둘 씩 짝을 지워, 서로 손을 잡게 하세요. 둘 중 한 아이의 눈을 가립니다. 다른 아이는 짝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를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도전을 가하려면, 눈을 가린 아이는 나무 밑동, 도랑, 돌, 타이어 등의 장애물을 피하도록 합니다. 두 아이가 신뢰를 다진 후에는, 손을 잡지 않고 짝이 해 주는 말을 통해서만 안내를 받게 합니다. 이 경우 안내자는 눈을 가린 짝이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가까이서 함께 걸어야 합니다.

위의 게임을 변형시켜서, 모든 학생의 눈을 가리고 기차처럼 줄을 지어 셉니다. 여러분, 혹은 어린이 한 명의 안내를 받습니다.

F. 색칠: 그림 19

G. 마침기도

제 20 과

A. 기도 낭송과 암기

여러분과 몇몇 어린이가 시작기도를 낭송한 다음, 아이들과 함께 이전 세 개 과에서 공부했던 기도를 복습합니다.

B. 노래 (이전에 배운 노래의 복습을 포함)

하느님 사랑의 불꽃

D
내 마음 속에

A
불꽃이 있네

G
하느님께서 그 불을 놓으셨네

D
그것은 참으로 특별한 불꽃

A
그분의 사랑의 불꽃

G
그분의 사랑의 불꽃

합창:

D A
기도해요

기도해요 (에코 보이스)

G
하느님께 기도해요

A D A
제 마음에 불 붙여주세요

제 마음에 불 붙여주세요 (에코 보이스)

G
아 그 불꽃

A D A
그분 사랑의 불길

G
노력 할게요

A D
그 빛으로 모든 가슴 비출 수 있게

날이면 날마다
불꽃을 키워요

기도하고
친절 베풀면
불꽃을 키울 수 있어요
기도하고
인류에게 봉사하면 돼요

합창

불꽃이 타올라
더욱 더 커지면
만나는 모든 이가
느낄 수 있어요
만나는 모두가
온기를 느껴요

합창

C. 인용구 암기

이 과의 주제는 불붙음입니다. 아래의 문구는 여러분이 이 주제와 암기 인용구를 소개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슴 속에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를 지녔습니다. 매일 그분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불길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불이 한층 더 환히 타오를수록,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이 그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가슴 역시 불타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저마다 불을 밝히는 하나의 촛불과 같이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로부터 빛과 온기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다음 인용구를 암기하십시오.

“사람들이여, 하느님의 사랑의 열기로 그대 자신이 불붙게 하라. 그로 인해 다른 이들의 가슴도 불붙게 하라.”¹²²

불붙이다

1. 집안이 추워서 악셀의 아버지는 불을 피우시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통나무를 난로에 넣으시고, 그 밑에 잔가지들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러자 곧 장작에 불이 붙었고, 불로 방안이 따뜻해졌습니다.
2. 과학자 한 분이 학교를 방문하여, 우주에 대해 흥미로운 점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분의 강의 후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학생들이 우주에 대해 더 알려는 소망에 불을 붙였습니다.

D. 이야기

토마스 브레이크웰은 미국 남부의 방적공장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휴가를 보내고는 했습니다. 1901년 여름 유럽으로 가는 길에 그는 한 여성을 만나 영적인 주제에 관해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하자 그 여성은 비슷한 관심을 지닌 자신의 친구에게 그를 소개했습니다. 소개받은 젊은 여성은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거기서 세 사람은 얼마간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브레이크웰은 다시 집주인에게 다시 방문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도 될지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다시 오라고 초대 받았습니다.

브레이크웰이 도착했을 때, 집주인은 그의 눈이 빛나고 목소리에 감동이 서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권유 받은 브레이크웰은 잠시 집주인을 골똘히 바라보더니 심상치 않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전날 그 집에서 나온 후 그는 따스하고 잔잔하게 가라앉은 저녁 공기 속에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하나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세찬 바람 한 줄기가 불어 왔고, 그것은 마치 하느님께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복음을 실은 듯 느껴졌습니다!

집주인은 그에게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브레이크웰이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사흘간 집주인은 장시간에 걸쳐 그에게 바하이 신앙 역사와 가르침, 그 가르침의 완벽한 모범이 되시는 압둘바하께서 성지의 감옥도시인 악카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브레이크웰의 가슴은 크나큰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바람은 오직 악카로 가서 압둘바하를 뵈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마침 성지로 떠나려는 청년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는 브레이크웰과 동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압둘바하께 방문 허락을 구하는 편지가 발송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성지를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압둘바하의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몇몇 사람이 모여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안을 둘러보면서 브레이크웰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방에 착석해 있는 이들 가운데 압둘바하가 계실 텐데, 그 누구에게도 가슴이 끌리지 않았기에 혹시 파리에서 자신이 이야기 들었던 천상의 존재를 자신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절망감 속에 앉아 있을 때 한 순간 문이 열리고 브레이크웰은 그 방향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눈부신 광휘를 마주했고 그 빛 속에서 압둘바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브레이크웰은 자신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브레이크웰은 이틀간 압둘바하를 뵙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의 가슴 속의 불길은 한층 밝게 타올랐습니다. 그가 어린이들을 노동자로 고용한 방적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자, 압둘바하께서는 그 일을 그만둘 것을 그에게 권유하셨고 브레이크웰은 주저함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방문을 마친 후 그의 영혼은 불타오르는 상태에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남은 생은 짧았습니다. 남은 짧은 생애동안 그는 빛나는 촛불같이 타오르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불꽃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브레이크웰이 타계한 후 압둘바하께서는 그를 기리는 서한을 제시하셨는데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브레이크웰, 나의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천국영령이 든 등잔에 불을 붙였고, 압하 천국에 들어갔으며, 축복받은 나무의 그늘에 쉼 곳을 찾았고, 천상의 안식처에서 그분을 알현하였도다.”

E. 게임: “아픈 사람 돕기”

어린이 한 명을 선택해 “아픈 사람” 흉내를 내게 합니다. 다른 두 어린이는 서로 마주보고 양손으로 서로의 팔을 꼭 붙잡아 “의자” 모양을 만듭니다. 아이들의 체구나 기술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의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아이가 왼 손으로는 자신의 오른손 팔목을 꼭 붙잡고, 오른 손으로는 서로의 왼쪽 팔목을 꼭 붙잡아도 됩니다.

다른 어린이들은 “아픈 친구”를 도와서 의자에 앉게 합니다. 한 그루 나무나 한 지점을 “보건소”로 정합니다. 의자를 만든 두 어린이는 “아픈” 어린이를 그곳까지 데려갑니다.

어린이 수가 많으면, 두 줄로 마주 서서 의자 대신 “들것”을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로 마주 보는 아이의 팔을 서로 잡게 합니다. 이제 “아픈 아이”는 들것에 누워서 “보건소”로 이동합니다. 아이들 모두가 힘을 합해야만 “환자”를 안전하게 보건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세요. “아픈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친구가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모두 아주 슬플 거예요. 하지만 친구가 무사히 보건소에 도착하면, 우리는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기쁘고 보람 있을 거예요.”

F. 색칠: 그림 20

G. 마침기도

C. 인용구 암기

이 과에서 어린이들은 빛남의 자질과 관련된 인용구를 암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래와 같이 이 주제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빛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의 가슴은 그분의 사랑으로 빛나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앎의 빛 -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영광에 대한 앎 - 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의 너그러운 행동, 친절할 말을 통해 사랑과 앎의 빛이 환히 빛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비추어 나오는 기쁨의 찬란한 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광휘의 중요성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다음의 인용구를 암기하십시오.

“존재의 아들이! 너는 나의 등이며 내 빛이 네 안에 있노라. 거기서 네 광휘를 얻고 나 밖에 달리 아무 것도 구하지 말라.”¹²⁴

광휘(찬란한 빛)

1. 티렐이 잠에서 깰 때 찬란한 햇빛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양의 광휘가 그를 감싸 주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2. 산토스 부인은 모든 이들을 마치 가족처럼 사랑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다른 이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하며 도움을 베풁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사랑을 느끼고 큰 기쁨을 느낍니다. 모두가 그에게서 비쳐 나오는 밝은 광휘를 봅니다.

구하다

1. 아기 새가 알을 깨고 나오면 어미 새는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어미 새는 갓 태어난 새끼를 위해 먹이를 구합니다.
2. 학교에서 학생 전원은 특별한 소풍에 초대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소풍에 참여하려면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모든 학생은 소풍에 참여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D. 이야기

도로시 베이커에 대해서는 이후에 여러분이 더 듣게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소녀였을 때 도로시는 압둘바하를 뵈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서양의 나라들을 방문 중이셨던 압둘바하께 도로시를 데려간 것은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낯선 집에 도착해

도로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고 경건하게 압둘바하께서 말씀하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도로시와 그의 할머니가 방에 들어서자 미소 지으시며, 어린 도로시에게 손짓하시어 당신 가까이 와서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간절한 동시에 떨리는 마음으로 도로시는 방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바닥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면서 도로시는 조심스런 발걸음으로 둘러앉은 사람들을 지나 압둘바하의 발치에 놓여 있는 발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압둘바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도로시는 자신의 김정 신발만 응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도로시는 압둘바하를 바라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압둘바하의 자애 어린 모습에서 풍기는 온기에 이끌렸습니다. 그분의 광채는 마치 강력한 자석과 같았습니다.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세를 고쳐 앉고 압둘바하 쪽으로 몸을 돌려, 팔꿈치는 무릎에 대고 손으로 턱을 받친 채 압둘바하의 빛나는 얼굴을 하염없이 쳐다보았습니다.

압둘바하께서 그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후에 도로시는 전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친절한 얼굴, 음률이 있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모습에서 풍기는 온기뿐이었습니다. 사랑이 가득 찬 그분의 눈길은 그에게 하느님의 영적 세계들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시의 가슴 속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활활 타오르게 되자 도로시는 압둘바하께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도로시는 자신이 압둘바하를 섬기고, 압둘바하의 아버님, 바하올라의 대업에 봉사하게 허락해 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압둘바하는 답신에서 도로시의 목표에 대해 칭찬하시며, 그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라 확신을 주시고 그가 자신의 열망에 따라 성공하기를 희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로시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하느님과 인류에 봉사하는데 바쳤습니다.

E. 게임: “서로 따라 하기”

어린이들을 둘씩 짝지어 서로 마주 보게 하세요. 짝을 지은 어린이 중 한 아이가 간단한 신체 동작을 만들어 보이게 합니다. 다른 아이는 짝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몇 분 후에는 역할을 바꿔서 합니다. 짝의 동작 뿐 아니라, 짝의 얼굴 표정도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짝을 지은 어린이 중 한 아이가 다른 아이 뒤에 서게 합니다. 앞에 선 아이가 동작을 해 보이면, 뒤에 있는 아이는 그 동작을 그림자처럼 따라 합니다.

F. 색칠: 그림 21

G. 마침기도

제 22 과

A. 기도 낭송과 암기

지난 수업 몇 번에 걸쳐 배운 기도 외우기를 다음 수업에서는 끝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의 노력이 잘 진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먼저 기도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B. 노래

행복할래

Am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네

Am E7
이 신앙 안에서 우린 꼭 보여줘야 해

Dm
우리는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란 걸

Am E7 Am
자신의 삶으로 신앙을 가르쳐야 해

합창

Am
행복할래

Am
강해질래

Am
내 전 생애에 걸쳐

Am
그분을 섬기기 위해

Dm Am
그러니, 하느님의 법을 따라야 하지

E7 Am
그렇지, 하느님의 법을 따라야 하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네
세상의 허례와 허식 속에서
사람들은 빈 말에 지쳐 버렸고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기 원하네

합창

C. 인용구 암기

이 과에서 어린이들은 아래의 인용구를 암기하기를 배웁니다. 이 과의 주제는 충직입니다. 이 주제를 소개할 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충직한 영혼은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내려주신 모든 은총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는 중단치 않고 하느님을 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과 법을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도 여전히 노력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충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서, 그 외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충직한 영혼에게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바하올라의 다음 인용구를 암기해 봅시다.

“최상의 노력의 예복을 갖춰 입고, 이 대업에 봉사하려고 일어난 충직한 이는 행복하다.”¹²⁵

갖춰 입다

1. 메이는 특별한 경우에만 입는 예쁜 드레스를 한 벌 갖고 있습니다. 그는 공동체 모임에 참석할 때 그 옷을 입었습니다. 메이는 특별한 날 특별한 드레스를 갖춰 입었습니다.
2. 나탈리아는 모두에게 친절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나탈리아의 영혼에게 친절의 옷을 갖춰 입히셨습니다.

예복

1. 어떤 나라에서 판사들이 법정에서 긴 검정 관복을 입고, 흰 가발을 써야 합니다. 그들은 판사의 예복을 온전히 갖춰 입어야 합니다.
2. 궁을 나서기 전에 왕자는 띠를 두르고 머리에 왕관을 씩니다. 그는 왕가의 예복을 입습니다.
3. 야곱은 매일 아침 집을 나오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란 마치 영혼이 입는 예복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루 동안 그에게 힘을 실어 주고, 보호해 줍니다.

노력

1. 학생들은 학교 주변에 나무를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동체는 씨앗과 흙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노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2. 피에르와 아를렌은 산 정상까지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꽤 많은 노력이 들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래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D. 이야기

압둘바하께서 어린 소년이었을 당시, 페르시아의 귀족 가문이었던 그분의 집에는 이스판디야르라는 이름의 시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대단히 충직했고 가족들도 그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질서와 무지에 사로잡혔던 당국에 의해 압둘바하의 사랑하는 아버님 바하올라께서는 체포되었고 가족은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 것도 없었고 바하올라와 가까웠던 이들은 모두 위협에 처했습니다. 여전히 이스판디야르는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관료들이 이스판디야르를 쫓을 것을 야심 압둘바하의 어머니는 그에게 도시를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판디야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갚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그는 여러 상점 주인한테 물건을 구매하고 갚을 대금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갚 수 있겠습니까? 상점 주인들은 바하올라의 시종인 제가 물건을 구입하고 다 써버린 후에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대금을 다 갚기 전에는 저는 갚 수 없습니다. 관료들이 절 잡아 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들이 저를 처벌해도 해를 입을 건 없습니다. 저들이 설령 저를 죽인다 해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도망가서 사라지는 일은 행동은 할 수 없습니다.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는 남아있겠습니다.”

한 달여 동안 이스판디야르는 거리와 시장 여기저기에서 자신이 지닌 작은 물품들을 팔았습니다. 빚을 모두 갚고 나자 그는 가족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가 가족과 함께 계속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시기 동안 한 대신이 그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들여, 거처를 제공하고 보호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 바하올라께서는 감옥에서 풀려나셨고 당국에 의해 일가족 전체와 함께 페르시아에서 추방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웃 나라의 도시인 바그다드로 갔습니다. 변함없이 바하올라께 충직했던 이스판디야르는 바그다드로 그분을 찾아와서 그분의 가족에게 다시 봉사할 수 있을지를 여쭙습니다. 바하올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떠났을 때 그 누구도 자네를 보호해 줄 수 없었네. 그럼에도 페르시아의 한 대신이 자네에게 거처를 제공해 주었지. 그가 자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자네를 보호해 주었으니, 자네는 그에게 충직해야 하네. 그가 흔쾌히 자네가 떠나도록 한다면 우리에게 오게나. 그러나 자네가 떠나는 걸 그가 원치 않으면 그를 떠나지 말게.”

이스판디야르가 울곤고 믿음직스럽고 충직했기 때문에, 그 대신은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스판디야르여!”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를 보내고 싶지 않네. 그러나 자네가 그러길 원한다면 자네 뜻대로 하거나.” 이스판디야르는 바하올라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스판디야르는 대신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에게 봉사했고, 그 후 그가 사랑했던 가족에게 돌아와 생을 마칠 때까지 압둘바하께 봉사하였습니다.

E. 게임: “게 누구요?”

어린이 한 명의 눈을 가린 후, 다른 어린이들을 등진 채 긴 의자에 앉게 합니다. 다른 어린이 한 명을 지명해, 눈을 가린 아이에게 다가가 긴 의자를 두드리게 합니다. 앉아 있는 어린이는 “게 누구요?”하고 묻습니다. 두드린 아이는 목소리를 바꾸어 “나요!”라고 대답합니다. 앉아 있는 아이는 문을 두드린 게 누구인지 알아 맞춥니다.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다른 아이에게 순서가 돌아갑니다. 눈을 가린 아이가 친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아주 조용히 있어 주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F. 색칠: 그림 22

G. 마침기도

제 23 과

A. 기도 낭송과 암기

시작기도를 낭송하면서 수업을 시작한 후, 아이들이 제 21과에서 암기하기 시작한 기도를 계속 암기하도록 도와줍니다.

B. 노래

인내

D A
다리가 저리고 아파 오나요

A D
길은 멀고도 머네요

C. 인용구 암기

이 과에서 어린이들은 인내와 관련된 인용구를 암기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품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내 없이는 우리가 삶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공부, 일, 가족, 우정,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노력, 그 어떤 일에서나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삶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일들은 매일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인내를 연마하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일에서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는 중이고,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획득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도와 줄 다음의 인용구를 암기해 봅시다.

“진실로 하느님께서서는 인내로 견디는 이들에게 보상^{報償}을 더하십니다.”¹²⁶

보상^{報償}

1. 앤더슨 선생님은 자신의 학급 어린이들이 과학 수업에서 준비한 탁월한 프로젝트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학생들의 노력을 보상해 주시려고 그들을 수족관에 데려가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2. 알레나는 매일 기타 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린 동생을 위해 감미로운 노래를 연주하자 동생 얼굴에 기뻐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걸 본 알레나는 그간 자신이 기울인 노력에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견디다

1. 알리야와 가족은 먼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친절한 이웃의 도움으로 알리야 가족은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고, 지금은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2. 휴는 병이 났습니다. 많이 아팠지만, 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로 자신의 고통을 견뎌 냈습니다.

D. 이야기

리신은 복숭아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리신은 매일 학교에 복숭아 한 개를 가져가서 점심시간에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 입까지 맛있게 먹고는, 씨앗이 들어 있는 속열매 껍질은 늘 던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리신은 수업 시간에 씨앗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신에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복숭아 씨앗을 땅에 심어서 나무가 되도록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는 복숭아 열매 껍질을 종이로 싸서 보관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달려온 그는 자신의 나무가 자라날 장소를 찾게 도와 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씨앗을 얻으려면 열매껍질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리신은 심을 당장 심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했습니다. “리신, 열매껍질이 마를 때까지 기다릴 인내심도 없으면, 씨앗에서 싹이 틀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나?” 그래서 리신은 열매껍질이 잘 마르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며칠 후 리신은 마침내 열매껍질을 쪼개어 씨앗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무가 크고 높이 자랄 수 있을 만한 마당 한 귀퉁이를 가리켜 보이셨습니다. 리신은 작은 구멍을 파고 씨앗을 놓은 후 습기가 있는 흙더미로 덮었습니다. 리신은 기대감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리신은 흙더미로 가서 싹이 틀 기미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록 싹이 트지 않자 리신은 점점 실망했습니다. 리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내 씨앗이 자라나지 않아요” 리신이 말했습니다. “정말 내 나무를 갖게 될 날이 올까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씨앗이 싹을 틔우기까지 할 일이 아주 많이 있단다. 너와 아주 비슷해. 네가 갓 태어났을 때 너는 아주 작은 아가였고 그땐 먹고 자고만 할 수 있었어. 그런데 널 봐! 이젠 네가 어엿한 소년이 되어, 걷고 말하고 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나! 나무가 자라려면 몇 년이 걸릴 거야. 그런데 네가 잘 돌봐주면 언젠간 그 그늘 아래 앉아 그 열매를 즐길 수 있을 거란다.” 이 말씀을 듣고 리신에게는 다시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씨앗이 겨우 싹을 틔우기까지도 수많은 변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그는 수업에서 배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언제나 그랬듯이 리신은 흙더미를 살펴보러 왔다가, 아주 작은 싹이 땅을 뚫고 고개를 내민 모습을 발견하곤 크게 흥분했습니다! 그의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농부인 이웃에게 달려가 이 신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웃은 나무가 아직 어리고 가냘플 때 어떻게 돌봐주어야 하는지 그에게 가르쳐 주고, 리신은 최선을 다해서 그 조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충고를 해 주셨으니 감사의 인사로 제 복숭아를 많이 드릴 날이 곧 올 거예요” 리신이 말했습니다. 이웃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신, 열매껍질이 마르도록 기다리느라 네가 얼마나 인내해야 했는지 기억하니?” 리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씨앗에서 싹이 트기를 기다릴 때는 그보다 더 큰 인내심이 필요했었던 것도 기억하니?” 리신은 포렛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묘목이 자라 나무가 되려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시간이 필요하단다. 네가 복숭아를 따려면 또 여러 해가 지나야 하지.”

그래서 싹이 자라서 묘목이 되고, 묘목이 더 자라서 나무가 되는 동안 리신은 나무를 정성껏 돌봐 주었습니다. 나무는 조금씩 커지고 굽어져갔고 리신 자신도 키와 덩치가 커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신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나무의 꽃망울이 있었던 자리에 첫 번째 복숭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씨앗에서 처음 싹이 튼 것을 보았을 때 느꼈던 기쁨을 그는 또 한 번 맛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그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숭아가 먹음직스럽게 익을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 게임: “시작점을 찾아라”

술래가 된 어린이에게 눈을 가리고, 다른 아이들을 등지고 앉아 있게 합니다. 또 다른 아이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내 “시작점”이 되게 합니다. 눈을 가린 아이가 다시 아이들 속에 섞이도록 요청하기 전에, 모든 아이들은 시작점이 된 아이의 동작을 따라 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점 아이가 손뼉을 치면,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합니다. 손을 흔들면,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합니다. 이제 눈을 가렸던 아이는 수건을 풀고 그룹 안에 섞입니다. 이제 술래는 주의 깊게 살펴서 누가 시작점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 때, 아이들은 시작점 어린이를 너무 자세히, 자주 쳐다보지 않도록 유의해서 쉽게 알아맞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역할을 바꿔 “시작점”이 되거나 술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F. 색칠: 그림 23

G. 마침기도

제 24 과

A. 기도 낭송과 암기

기도로 수업을 시작한 후, 지난 몇 과에 걸쳐 아이들이 암기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도문과 인용구를 잘 암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봅니다.

B. 노래

변치 않는 하느님 사랑

G C
우리는 걷고 또 걸어요

D G
하느님의 길을 걷고 또 걸어요

G C
우리는 변치 않아요

D G
하느님 사랑에 변치 않아요

G C
우리 가는 길에 어려움 만나도

D G
하느님의 길 걷고 또 걸어요

G C
변치 않는 하느님 사랑으로

D G
그 길을 계속 걸어요

우리는 봉사하고, 또 봉사해요
하느님 대업에 봉사해요
우리는 변치 않아요
하느님 사랑에 변치 않아요
저마다 자기 역할 다 하면서
하느님 대업에 봉사해요
변치 않는 하느님 사랑과
마음 속 기쁨으로 봉사해요

우리는 바로 서요
하느님을 향해 바로 서요
우리는 변치 않아요
하느님 사랑에 변치 않아요
틀림없는 그분의 도움으로
하느님을 향해 바로 서요
변치 않는 하느님 사랑으로
모든 슬픔이 사라져요

C. 인용구 암기

마지막 과 수업의 주제는 굳건함입니다. 다음의 개념들은 어린이들에게 이 주제를 소개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는 굳건함

입니다.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그것은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때문에 그분의 법과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굳건하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바하올라의 다음 인용구를 암기해 봅시다.

“그대가 주님의 대업 안에 굳건히 남아있으면 최상의 고귀한 지위로 높여질 것이다.”¹²⁷

최상

1. 그 정원은 자비에르가 이제껏 본 어떤 정원보다 아름답습니다. 이 최상의 아름다움을 지닌 정원보다 더 아름다운 정원을 그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2. 켈레소의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케이크를 먹은 가족들은 최상의 맛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고귀한

1. 매일 밤 잠자기 전에 마르타는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께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때 마르타의 영혼은 고귀함이 무엇인지 느낍니다.
2. 모임에서 쿠마르는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공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매우 고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굳건히

1. 친구는 하늘의 별들이 공중에 켜져 있는 작은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수업에서 모든 별이 지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항성이라는 것을 배운 로즈마리는 이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즈마리는 진실 앞에 굳건히 남아 있었습니다.
2. 누군가 매일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모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모나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모나는 기도의 법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D. 이야기

여러분은 바히예 카눔이 압돌바하의 여동생이시라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분이 여섯 살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아버님이신 바하올라께서 투옥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선포하신 성스러운 메시지의 진실을 정의롭지 못한 당국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히예 카눔의 가족은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의 하나였지만,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한 때 먹을 것이라곤 밀가루 한 줌 밖에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감옥에서 풀려나 온 가족이 고향에서 추방당하자, 바히예 카눔과 가족들은 노새를 타고 이웃 나라의 도시인 바그다드로 출발했습니다. 그 여정은 매서운 혹한의 날씨 속에 삼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는 두 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십여 년간 바그다드에서 머물렀기에, 바히예 카눔은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예고 없이 정부는 또 다시 아버님에게 바그다드를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분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당국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여성이었던 바히예 카눔은 가족과 함께 또 다시 머나먼 거리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그 후에는 아드리아노플로 갔습니다. 위협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적대가 더욱 더 커졌고, 결국 그분의 고귀한 생명을 위협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드리아노플에서 거의 5년을 이런 압박과 긴장 속에서 지낸 후에, 바히예 카눔은 다시 추방되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아버님을 감옥도시 악카로 유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온화한 성품의 영혼과 그의 가족들은 황량한 도시의 벽 안에 갇혀, 극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사십여 년의 시간을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님이 타계하셨습니다. 타계하신 아버님이 신앙의 수장으로 임명하신 오라버니를 지원하는 것이 바히예 카눔에게 주어진 의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친구와 친척이 압둘바하를 질시하며 그분께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바히예 카눔은 이 모든 타격을 침착한 인내와 용기로 감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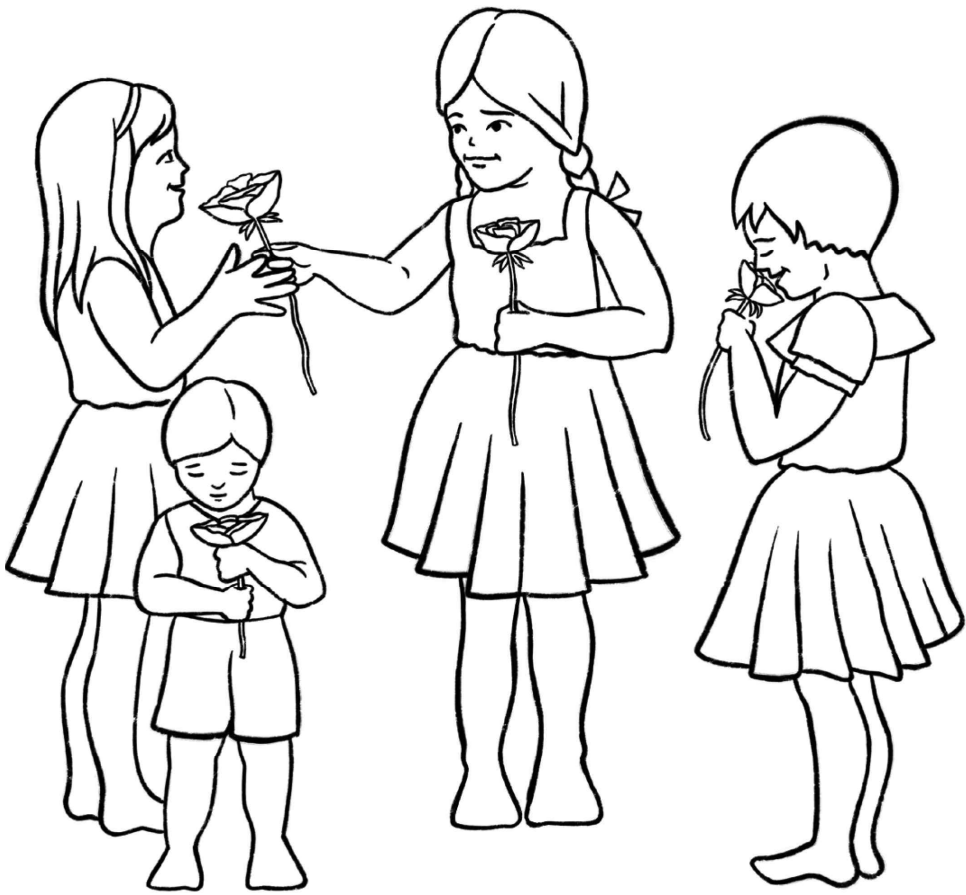
많은 세월이 흘러, 압둘바하께서 타계하시고 그분의 손자인 청년 쇼기 에펜디께서 할아버님의 계승자로서 막중한 의무를 인계받았을 때, 바히예 카눔은 그분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가장 충실한 옹호자였습니다. 그 당시 바히예 카눔은 칠십 대의 연로한 어른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늘 대혼란과 격변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변질되지 않았고, 그의 가슴은 늘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굳건하고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쁨과 기쁨, 친절과 우아함은 유년 시절부터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E. 게임: “도움의 손길”

어린이들이 짝을 지어 서로 손을 잡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눈을 뜬 채 교실 공간을 걸어 다닙니다. 처음엔 보폭을 좁게 해서 조심스럽게 걷다가, 점차 보폭을 넓히도록 합니다. 서로 짝인 아이들은 걸으면서 다른 아이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제 둘 중 한 아이가 눈을 가립니다. 그런 채로 그들은 계속 걷기 연습을 합니다. 누군가와 부딪히지 않고, 잘 피하려면 짝인 친구가 잘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촉각만으로 짝에게 신호를 보내도록 지시합니다. 아이들이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은 그들이 신호를 개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한 번 누르는 것은 “멈춤”, 두 번 누르는 것은 “뒤로 돌기”, 세 번 누르는 것은 “오른쪽으로 돌기”, 네 번 누르는 것은 “왼쪽으로 돌기”를 뜻합니다.

F. 색칠: 그림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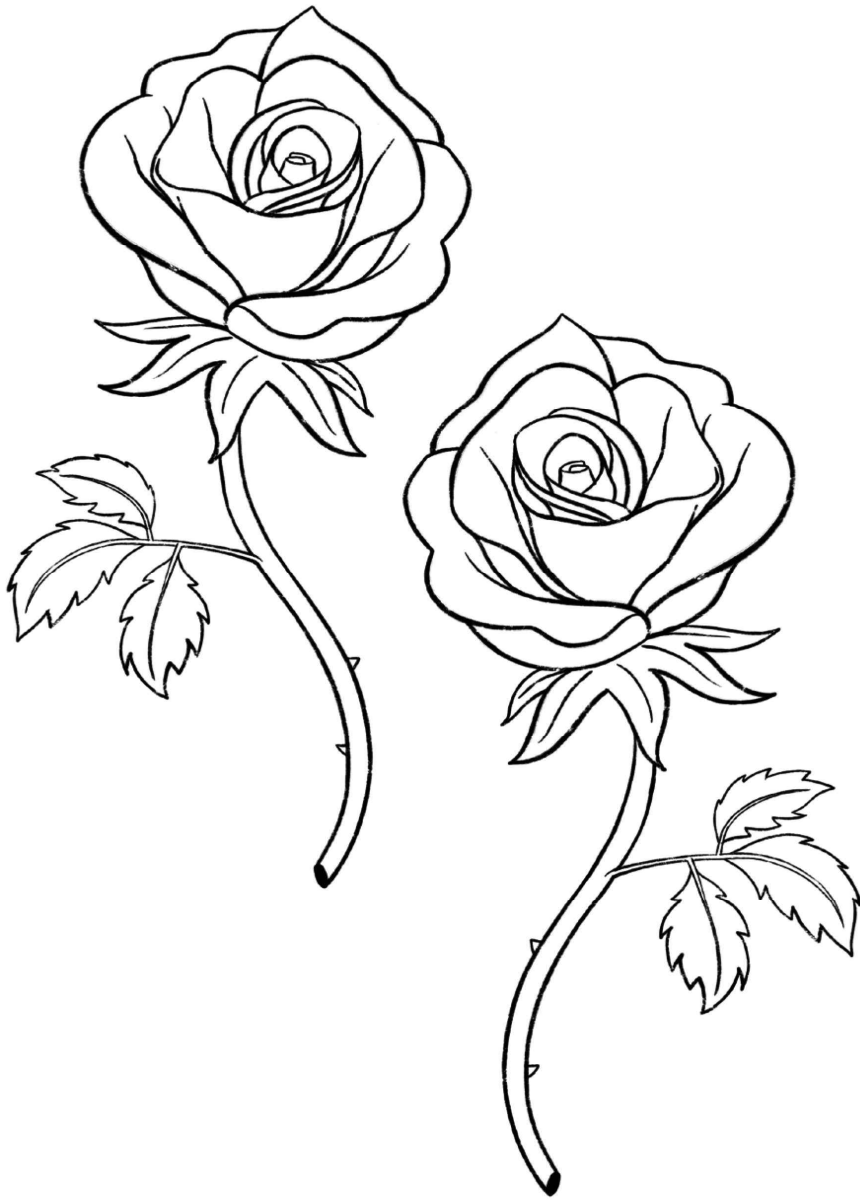
G. 마침기도



“영靈의 아들아! 이것이 나의 첫 번째 권고이니,
순수하고 친절하며 빛나는 마음을 지니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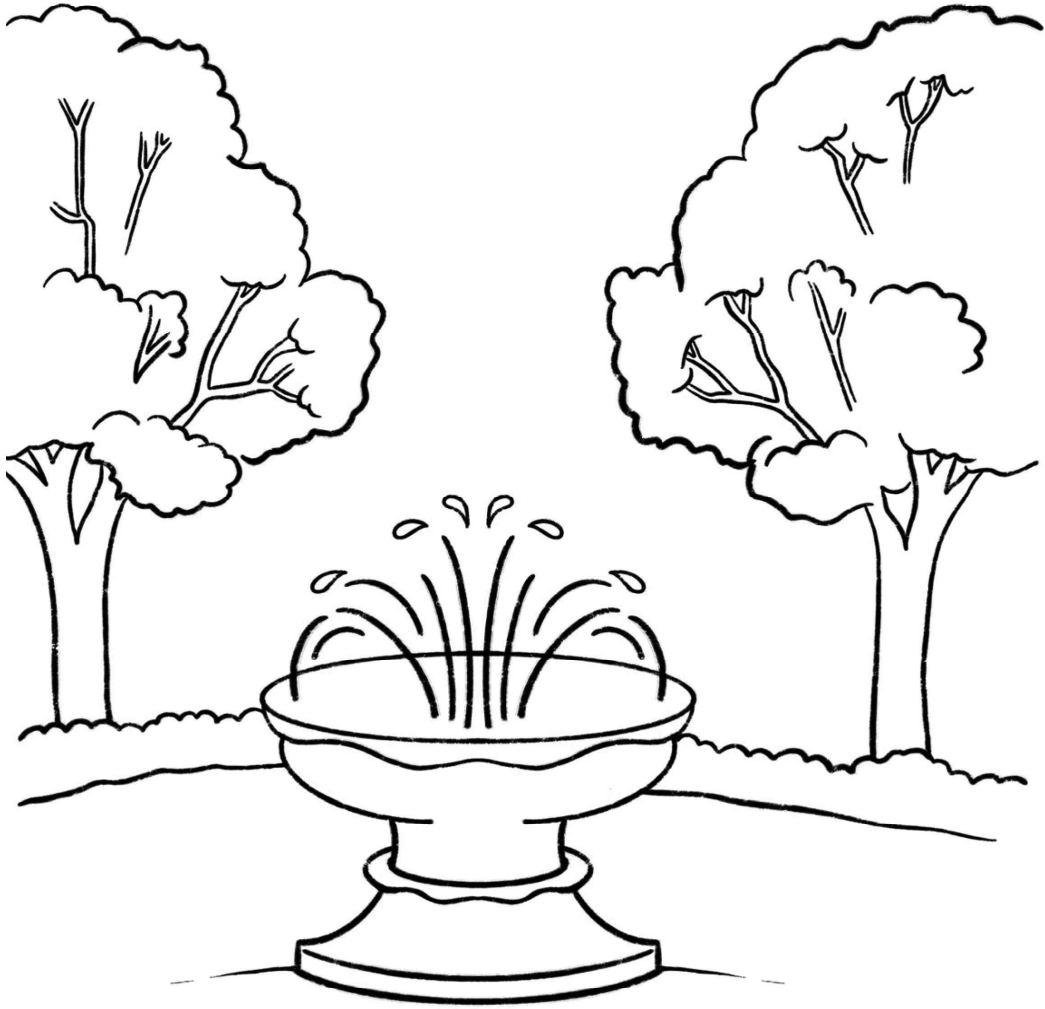
“너희는 정의의 길에 발을 내디뎌라. 진실로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이다.”



“벗이여! 그대 가슴의 동산에 사랑의 장미 밖에 달리 아무 것도 심지 말라...”



“진실성은 인간 모든 미덕의 토대이다.”



“베풀과 관대함은 나의 속성이니, 나의 미덕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는 이는 형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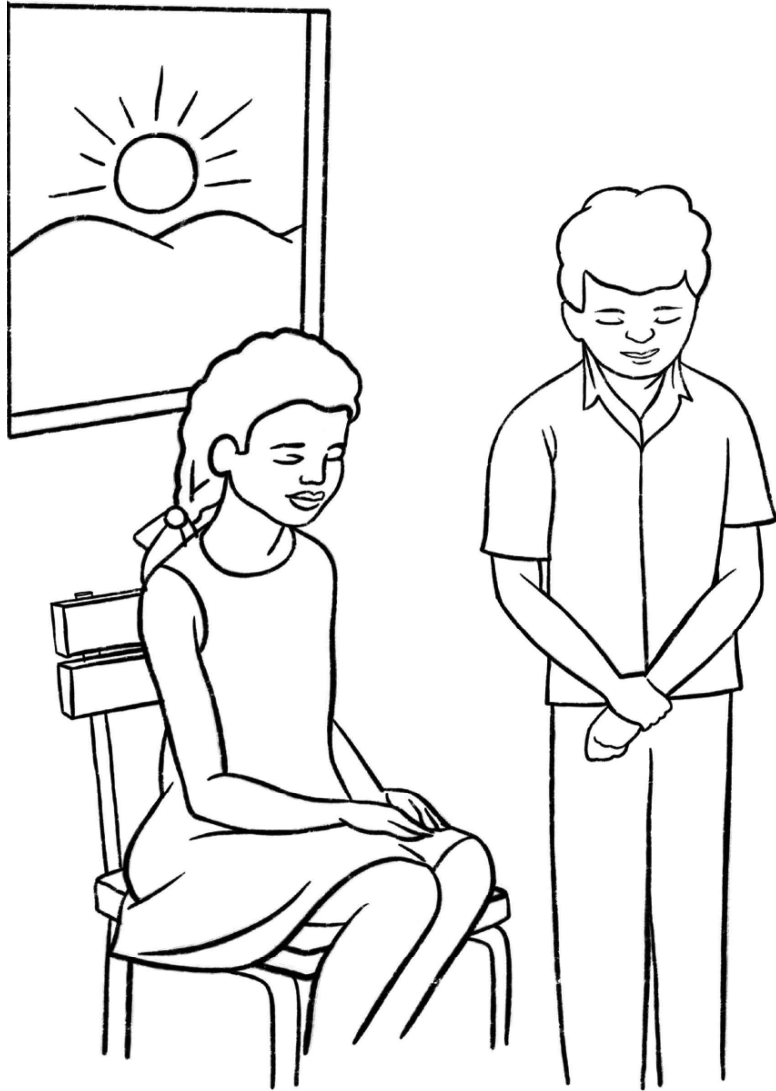
“자신보다 자신의 형제를 선호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사람의 아들이! 네 마음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야 네가 나를 만나 내 아름다움을 되비출 만하게 되노라.”



“우리는 언제나 진실성과 성실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너는 내 앞에서 겸손하여라. 그래야 내가 너를 은혜로이 찾아가리라.”



“행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일어나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대가 올리는 감사로 은사의 증대를 촉진하십시오.”



“...용서와 자비, 하느님께 총애 받는 이들의 마음을 북돋아 줄 것들로 그대 자신을 단장하라.”



“사람들이, 진실성으로 너희의 혀를 단장하고, 정직의 장신구로 너희의 영혼을 장식하라.”



“하느님의 왕국은 공평과 정의, 살아있는 모든 영혼에게 베푸는 자비와 긍휼,
친절의 토대 위에 있다.”



“알지니, 너의 진정한 장신구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 외의 일체에
초연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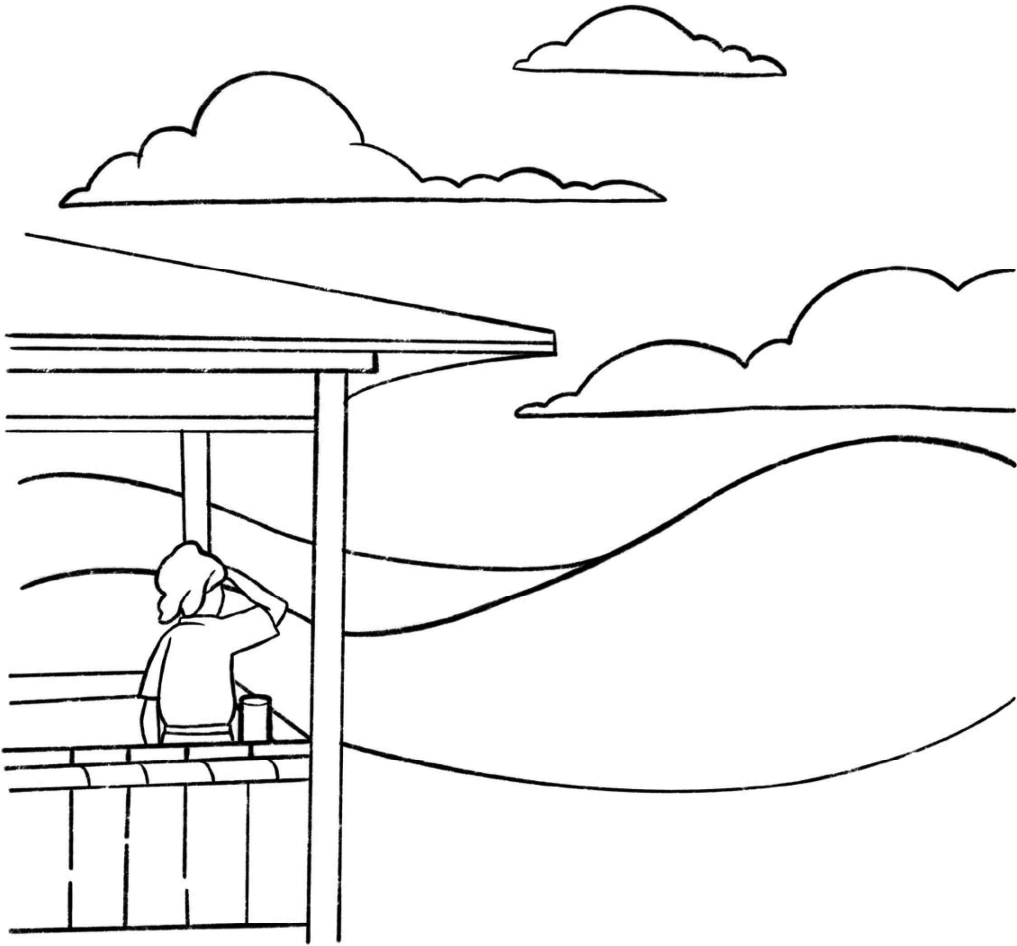
“모든 영광의 원천은 주께서 내리신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임이요,
하느님께서 정하신 뜻에 만족함이다.”



“최상의 친절과 사랑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과 어울리는 이에게 복이 있다.”



“용기와 힘의 원천은 하느님의 말씀을 증진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굳건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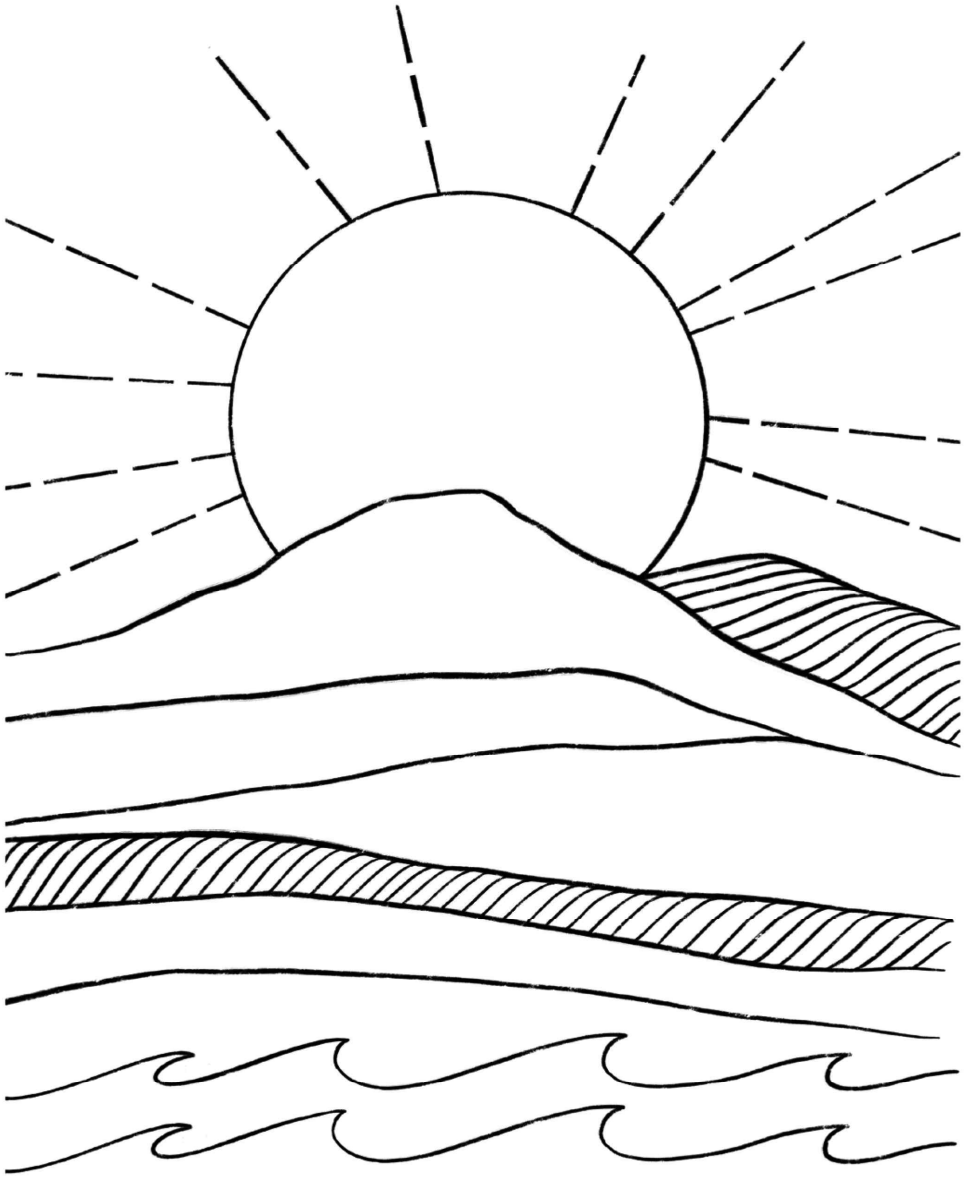
“그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십시오. 언제나 희망을 품으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용은 사람들을 평온과 안전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문이다.”



“사람들이여, 하느님의 사랑의 열기로 그대 자신이 불붙게 하라.
그로 인해 다른 이들의 가슴도 불붙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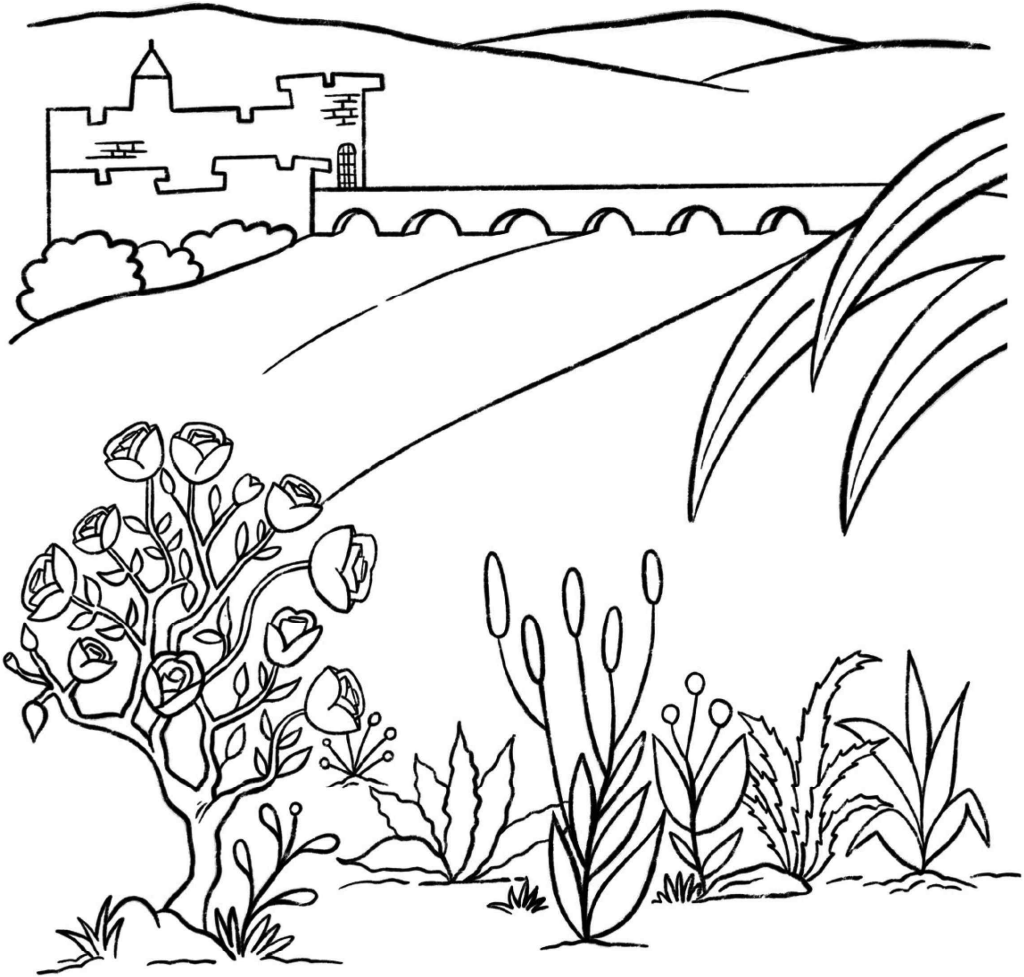
“존재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등이며 내 빛이 네 안에 있노라.
거기서 네 광휘를 얻고 나 밖에 달리 아무 것도 구하지 말라.”



“최상의 노력의 예복을 갖춰 입고, 이 대업에 봉사하려고 일어난 충직한 이는 행복하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인내로 견디는 이들에게 보상을 더하신다.”



“그대가 주님의 대업 안에 굳건히 남아있으면 최상의 고귀한 지위로 높여질 것이다.”

■ 참고 문헌

1. 압돌바하, 《바하이 기도서》에 수록 ‘Abdu’l-Bahá, in Bahá’í Prayers: A Selection of Prayers Revealed by Bahá’u’lláh, the Báb, and ‘Abdu’l-Bahá (Wilmette: Bahá’í Publishing Trust, 2002, 2017 printing), p. 28.
2. 상동 Ibid., p. 29.
3. 《케타베 악다스 이후 계시된 바하올라 성한집》 Tablets of Bahá’u’lláh Revealed after the Kitáb-i-Aqdas (Wilmette: Bahá’í Publishing Trust, 1988, 2005 printing), no. 6.25, pp. 66-67.
4. 바하올라, 쇼기 에펜디 《신성한 정의의 도래》에 인용 Bahá’u’lláh, cited by Shoghi Effendi, The Advent of Divine Justice (Wilmette: Bahá’í Publishing Trust, 2006, 2018 printing), par. 42, p. 41.
5. 《케타베 악다스 이후 계시된 바하올라 성한집》 Tablets of Bahá’u’lláh Revealed after the Kitáb-i-Aqdas, no. 3.23, p. 27.
6. 바하올라, 《숨겨진 말씀》 아라비아어 2번 Bahá’u’lláh, The Hidden Words (Wilmette: Bahá’í Publishing Trust, 2003, 2012 printing), Arabic no. 2, pp. 3-4.
7. 《케타베 악다스 이후 계시된 바하올라 성한집》 Tablets of Bahá’u’lláh Revealed after the Kitáb-i-Aqdas, no. 10.5, p. 155.
8. 압돌바하의 한 서한 (공인된 영문번역) From a Tablet of ‘Abdu’l-Bahá. (authorized translation)
9. 상동 Ibid.
10. 《압돌바하 선집》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Abdu’l-Bahá (Wilmette: Bahá’í Publishing, 2010, 2015 printing), no. 12.1, p. 42.
11. 《바하올라 선집》 139.8 Gleanings from the Writings of Bahá’u’lláh (Wilmette: Bahá’í Publishing Trust, 1983, 2017 printing), CXXXIX, par. 8, p. 345.
12. 압돌바하, 쇼기 에펜디 《신성한 정의의 도래》에 인용 ‘Abdu’l-Bahá, cited by Shoghi Effendi, The Advent of Divine Justice, par. 40, p. 39.
13. 압돌바하, “신용, 바하이 주요 미덕”, 《편집 저작의 편집》에 수록 ‘Abdu’l-Bahá, in “Trustworthiness: A Cardinal Bahá’í Virtue”, compiled by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Universal House of Justice, published in The Compilation of Compilations (Maryborough: Bahá’í Publications Australia, 1991), vol. 2, no. 2053, p. 338.
14. 압돌바하, 《바하이 기도서》에 수록 ‘Abdu’l-Bahá, in Bahá’í Prayers, p. 28.

15. 상동 Ibid., p. 29.
16. 《케타베 악다스 이후 계시된 바하올라 성한집》 Tablets of Bahá'u'lláh Revealed after the Kitáb-i-Aqdas, no. 9.4, p. 138.
17. 상동 Ibid., no. 10.15, p. 156.
18. 《압돌바하 선집》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Abdu'l-Bahá, no. 206.13, p. 357.
19. 상동 Ibid., no. 199.6, pp. 334-35.
20. 압돌바하의 1912년 7월 1일 강연, 《세계평화의 선포》에 수록 From a talk given on 1 July 1912, published in The Promulgation of Universal Peace: Talks Delivered by 'Abdu'l-Bahá during His Visit to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n 1912 (Wilmette: Bahá'í Publishing, 2012), par. 1, p. 304.
21. 《압돌바하 선집》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Abdu'l-Bahá, no. 237.5, p. 442; also in Bahá'í Prayers, p. 328.
22. 압돌바하의 1912년 3월 강연, 《세계평화의 선포》에 수록 From a talk given by 'Abdu'l-Bahá on 3 September 1912, published in The Promulgation of Universal Peace, par. 29, p. 441.
23. 《융합의 성막》 The Tabernacle of Unity: Bahá'u'lláh's Responses to Mánikchí Šáhib and Other Writings (Haifa: Bahá'í World Centre, 2006), no. 5.7, p. 74.
24. 《기념일》 Days of Remembrance: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Bahá'u'lláh for Bahá'í Holy Days (Haifa: Bahá'í World Centre, 2016), no. 42.8, pp. 209-10.
25. 압돌바하의 1911년 11월 22일 강연 《파리 강연집》에 수록 From a talk given on 22 November 1911, published in Paris Talks: Addresses Given by 'Abdu'l-Bahá in 1911 (Wilmette: Bahá'í Publishing, 2006, 2016 printing), no. 35.2, p. 135.
26. 《압돌바하 선집》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Abdu'l-Bahá, no. 16.5, pp. 51-52.
27. 《만군의 주의 소환》 The Summons of the Lord of Hosts: Tablets of Bahá'u'lláh (Wilmette: Bahá'í Publishing, 2006), no. 5.51, p. 301.
28. 《케타베 악다스 이후 계시된 바하올라 성한집》 Tablets of Bahá'u'lláh Revealed after the Kitáb-i-Aqdas, no. 4.23, p. 39.
29. 《만군의 주의 소환》 The Summons of the Lord of Hosts, no. 3.17, p. 249.
30. 압돌바하의 1912년 5월 5일 강연, 《세계평화의 선포》에 수록 From a talk given by 'Abdu'l-Bahá on 5 May 1912, published in The Promulgation of Universal Peace, par. 3, p. 127.

31. 바하올라, 《바하이 기도서》에 수록 Bahá'u'lláh, in Bahá'í Prayers, p. 164.
32. 상동 Ibid., p. i.
33. 《케타베 악다스 이후 계시된 바하올라 성한집》 Tablets of Bahá'u'lláh Revealed after the Kitáb-i-Aqdas, no. 6.19, p. 64.
34. 《바하올라 선집》 82.3 Gleanings from the Writings of Bahá'u'lláh, LXXXII, par. 3, pp. 180-81.
35. 상동 5.2 Ibid., V, par. 2, pp. 6-7.
36. 압돌바하 《신성한 문명의 비밀》 'Abdu'l-Bahá, The Secret of Divine Civilization (Wilmette: Bahá'í Publishing, 2007, 2016 printing), par. 130, p. 93.
37. 《숨겨진 말씀》 아라비아어 70번 The Hidden Words, Arabic no. 70, p. 21.
38. 《바하올라 선집》 129.2 Gleanings from the Writings of Bahá'u'lláh, CXXXIX, par. 2, p. 316.
39. 상동 139.4 Ibid., CXXXIX, par. 4, p. 343.
40. 압돌바하의 1912년 4월 23일 강연, 《세계평화의 선포》에 수록 From a talk given by 'Abdu'l-Bahá on 23 April 1912, published in The Promulgation of Universal Peace, par. 5, p. 69.
41. 《바하올라 선집》 125.3 Gleanings from the Writings of Bahá'u'lláh, CXXXV, par. 3, pp. 300-1.
42. 상동 15.1 Ibid., XV, par. 1, p. 39.
43. 압돌바하의 1912년 5월 5일 강연, 《세계평화의 선포》에 수록 From a talk given by 'Abdu'l-Bahá on 5 May 1912, published in The Promulgation of Universal Peace, par. 4, p. 128.
44. 압돌바하의 1912년 12월 2일 강연, 상동 From a talk given by 'Abdu'l-Bahá on 2 December 1912, ibid., par. 2, pp. 638-39.
45. 《케타베 악다스 이후 계시된 바하올라 성한집》 Tablets of Bahá'u'lláh Revealed after the Kitáb-i-Aqdas, no. 6.3, p. 57.
46. 바하올라, 《늑대의 자식에게 주는 서한》 Bahá'u'lláh, Epistle to the Son of the Wolf (Wilmette: Bahá'í Publishing Trust, 1988, 2016 printing), p. 23.
47. 바하올라, 《편집 저작의 편집, “신용”》에 수록 Bahá'u'lláh, in “Trustworthiness”, published in The Compilation of Compilations, vol. 2, no. 2037, p. 334.
48. 압돌바하, 《어린이를 위한 바하이 기도와 성한집》에 수록 'Abdu'l-Bahá, in “Bahá'í

Prayers and Tablets for Children: A Compilation Prepared by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Universal House of Justice”, no. 11.

49. 상동 Ibid., no. 10.
50. 압돌바하 1912년 4월 14일 강연, 《세계평화의 선포》에 수록 From a talk given by ‘Abdu’l-Bahá on 14 April 1912, published in The Promulgation of Universal Peace, par. 9, p. 17.
51. 《압돌바하의 신성의 철학》 Abdul Baha on Divine Philosophy (Boston: The Tudor Press, 1918), pp. 41-42.
52. 《압돌바하 선집》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Abdu’l-Bahá, no. 35.8, p. 104.
53. 상동 Ibid., no. 7.4, p. 33.
54. 《바하올라 선집》 121.6 Gleanings from the Writings of Bahá’u’lláh, CXXI, par. 6, p. 291.
55. 상동 66.6 Ibid., LXVI, par. 6, p. 144.
56. 《케타베 악다스 이후 계시된 바하올라 성한집》 Tablets of Bahá’u’lláh Revealed after the Kitáb-i-Aqdas, no. 10.8, p. 155.
57. 바하올라, 《바하이 세계 1925-1926》 1권에 수록 Bahá’u’lláh, in The Bahá’í World: Volume One, 1925-1926 (Wilmette: Bahá’í Publishing Trust, 1926, 1980 printing), p. 42.
58. 《숨겨진 말씀》 아라비아어 40번, The Hidden Words, Arabic no. 40, p. 13.
59. 상동, 페르시아어 50번 Ibid., Persian no. 50, p. 39.
60. 압돌바하의 한 서한 (공인 영문번역본) From a Tablet of ‘Abdu’l-Bahá. (authorized translation)
61. 《바하올라 선집》 116.1 Gleanings from the Writings of Bahá’u’lláh, CXLVI, par. 1, p. 357.
62. 《압돌바하 선집》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Abdu’l-Bahá, no. 1.7, p. 8.
63. 압돌바하의 1912년 5월 12일 강연, 《세계평화의 선포》에 수록 From a talk given by ‘Abdu’l-Bahá on 12 May 1912, published in The Promulgation of Universal Peace, par. 8, p. 166.
64. 압돌바하의 1911년 10월 16일, 17일 강연, 《파리 강연집》에 수록 From a talk given by ‘Abdu’l-Bahá on 16 and 17 October 1911, published in Paris Talks, no. 1.7, p. 6.
65. 압돌바하, 《바하이 기도서》 ‘Abdu’l-Bahá, in Bahá’í Prayers, p. 173.
66. 바하올라, 상동 Bahá’u’lláh, ibid., p. 94.
67. 《압돌바하 선집》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Abdu’l-Bahá, no. 179.1, p. 285.
68. 압돌바하 1912년 11월 10일 강연, 《세계평화의 선포》에 수록 From a talk given by

- ‘Abdu’l-Bahá on 10 November 1912, published in *The Promulgation of Universal Peace*, par. 8, p. 599.
69. 《바하올라 선집》 153.1 Gleanings from the Writings of Bahá’u’lláh, CLIII, par. 1, pp. 366-67.
 70. 《숨겨진 말씀》 페르시아어 21번 *The Hidden Words*, Persian no. 21, p. 29.
 71. 《압돌바하 선집》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Abdu’l-Bahá*, no. 178.1, p. 284.
 72. 압돌바하의 1911년 11월 21일 강연, 《파리 강연집》에 수록 From a talk given by ‘Abdu’l-Bahá on 21 November 1911, published in *Paris Talks*, no. 34.8, p. 133.
 73. 바하올라, 《편집 저작의 편집, “신용”》에 수록 Bahá’u’lláh, in “Trustworthiness”, published in *The Compilation of Compilations*, vol. 2, no. 2013, p. 327.
 74. 상동 *Ibid.*, no. 2024, p. 330.
 75. 상동 *Ibid.*, no. 2027, p. 330.
 76. 바하올라, 세계정의원 경전연구국 “교도의 지침에 수록 ”Bahá’u’lláh, in “Guidelines for Teaching”, compiled by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Universal House of Justice, published in *The Compilation of Compilations*, vol. 2, no. 1898, p. 293.
 77. 《바하올라 선집》 15.6 Gleanings from the Writings of Bahá’u’lláh, XV, par. 6, p. 41.
 78. 《만군의 주의 소환》 *The Summons of the Lord of Hosts*, no. 1.145, pp. 114-15.
 79. 《거룩한 임의 부르심: 바하올라의 신비 저작 선집》 *The Call of the Divine Beloved: Selected Mystical Works of Bahá’u’lláh* (Haifa: Bahá’í World Centre, 2018), no. 2.22, p. 21.
 80. 바하올라, 《바하이 기도서》에 수록 Bahá’u’lláh, in *Bahá’í Prayers*, p. 162.
 81. 압돌바하, 상동 ‘Abdu’l-Bahá, *ibid.*, p. 29.
 82. 압돌바하의 한 서한, (공인 영어번역본) From a Tablet of ‘Abdu’l-Bahá. (authorized translation)
 83. 바하올라, 《케타베 악다스》Bahá’u’lláh, in *The Kitáb-i-Aqdas: The Most Holy Book* (Wilmette: Bahá’í Publishing Trust, 1993, 2013 printing), par. 70, p. 45.
 84. 압돌바하의 1911년 11월 23일 강연, 《파리 강연집》에 수록 From a talk given by ‘Abdu’l-Bahá on 23 November 1911, published in *Paris Talks*, no. 36.9, p. 140.
 85. 압돌바하의 1912년 4월 12일 강연, 《세계평화의 선포》에 수록 From a talk given by ‘Abdu’l-Bahá on 12 April 1912, published in *The Promulgation of Universal Peace*, par. 2, p. 10.
 86. 《융합의 성막》 *The Tabernacle of Unity*, no. 3.16, p. 64.

87. 《압둘바하 선집》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Abdu’l-Bahá, no. 141.4, p. 228.
88. 상동 Ibid., no. 1.4, p. 6.
89. 《숨겨진 말씀》 아라비아어 48번 The Hidden Words, Arabic no. 48, p. 15.
90. 《바하올라 선집》 66.11 Gleanings from the Writings of Bahá’u’lláh, LXVI, par. 11, p. 146.
91. 《만군의 주의 소환》 The Summons of the Lord of Hosts, no. 2.30, p. 229.
92. 《케타베 악다스 이후 계시된 바하올라 성한》 Tablets of Bahá’u’lláh Revealed after the Kitáb-i-Aqdas, no. 14.11, p. 212.
93. 《바하올라 선집》 134.1 Gleanings from the Writings of Bahá’u’lláh, CXXXIV, par. 1, p. 328.
94. 상동, 161.1 Ibid., CLXI, par. 1, p. 384.
95. 상동 118.1 Ibid., CXLIII, par. 1, pp. 353-54.
96. 바하올라, 《케타베 이간》 Bahá’u’lláh, The Kitáb-i-Íqán: The Book of Certitude (Wilmette: Bahá’í Publishing Trust, 2003, 2018 printing), par. 146, pp. 123-24.
97. 압둘바하의 1912년 11월 23일 강연, 《세계평화의 선포》에 수록 From a talk given by ‘Abdu’l-Bahá on 23 November 1912, published in The Promulgation of Universal Peace, par. 4, p. 632.
98. 압둘바하, 《바하이 기도서》에 수록 ‘Abdu’l-Bahá, in Bahá’í Prayers, p. 29.
99. 《숨겨진 말씀》 아라비아어 1번 The Hidden Words, Arabic no. 1, p. 3.
100. 《바하올라 선집》 118.1 Gleanings from the Writings of Bahá’u’lláh, CXVIII, par. 1, p. 283.
101. 《숨겨진 말씀》 페르시아어 3번 The Hidden Words, Persian no. 3, p. 23.
102. 압둘바하, 쇼기 에펜디 《신성한 정의의 도래》에 인용 ‘Abdu’l-Bahá, cited by Shoghi Effendi, The Advent of Divine Justice, par. 40, p. 39.
103. 압둘바하, 《바하이 기도서》에 수록 ‘Abdu’l-Bahá, in Bahá’í Prayers, p. 29.
104. 《숨겨진 말씀》, 페르시아어 49번 The Hidden Words, Persian no. 49, p. 39.
105. 《케타베 악다스 이후 계시된 바하올라 성한집》 Tablets of Bahá’u’lláh Revealed after the Kitáb-i-Aqdas, no. 6.37, p. 71.
106. 《숨겨진 말씀》 아라비아어 36번 The Hidden Words, Arabic no. 36, p. 12.
107. 《압둘바하 선집》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Abdu’l-Bahá, no. 225.30, p. 407.
108. 바하올라, 《바하이 기도서》에 수록 Bahá’u’lláh, in Bahá’í Prayers, p. i.
109. 《숨겨진 말씀》 아라비아어 42번 The Hidden Words, Arabic no. 42, p. 13.
110. 《압둘바하 압바스의 성한집》 Tablets of Abdul-Baha Abbas (New York: Bahá’í

- Publishing Committee, 1915, 1940 printing), vol. 2, p. 483. (authorized translation)
111. 《케타베 악다스 이후 계시된 바하올라 성한집》 Tablets of Bahá'u'lláh Revealed after the Kitáb-i-Aqdas, no. 9.5, p. 139.
 112. 《바하올라 선집》 136.6 Gleanings from the Writings of Bahá'u'lláh, CXXXVI, par. 6, p. 336.
 113. 압돌바하, “어린이를 위한 바하이 기도와 성한집” ‘Abdu'l-Bahá, in “Bahá'í Prayers and Tablets for Children”, no. 10.
 114. 《압돌바하 선집》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Abdu'l-Bahá, no. 138.1, p. 220.
 115. 《만군의 주의 소환》 The Summons of the Lord of Hosts, no. 1.119, p. 93.
 116. 《케타베 악다스 이후 계시된 바하올라 성한집》 Tablets of Bahá'u'lláh Revealed after the Kitáb-i-Aqdas, no. 10.4, p. 155.
 117. 《바하올라 선집》 156.1 Gleanings from the Writings of Bahá'u'lláh, CLVI, par. 1, p. 378.
 118. 바하올라, 《바하이 기도서》에 수록 Bahá'u'lláh, in Bahá'í Prayers, p. 94.
 119. 《케타베 악다스 이후 계시된 바하올라 성한집》 Tablets of Bahá'u'lláh Revealed after the Kitáb-i-Aqdas, no. 10.10, p. 156.
 120. 《압돌바하 선집》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Abdu'l-Bahá, no. 178.1, p. 284.
 121. 《케타베 악다스 이후 계시된 바하올라 성한집》 Tablets of Bahá'u'lláh Revealed after the Kitáb-i-Aqdas, no. 4.16, p. 37.
 122. 바하올라의 한 성한, (공인 영어번역본) From a Tablet of Bahá'u'lláh. (authorized translation)
 123. 압돌바하, 《바하이 기도서》에 수록 ‘Abdu'l-Bahá, in Bahá'í Prayers, p. 29.
 124. 《숨겨진 말씀》 아라비아어 11번 The Hidden Words, Arabic no. 11, p. 6.
 125. 《케타베 악다스 이후 계시된 바하올라 성한집》 Tablets of Bahá'u'lláh Revealed after the Kitáb-i-Aqdas, no. 17, p. 257.
 126. 《바하올라 선집》 66.10 Gleanings from the Writings of Bahá'u'lláh, LXVI, par. 10, p. 146.
 127. 상동 115.13 Ibid., CXV, par. 13, p. 278.